

博士學位論文

韓國 近代文學史의 敘述 樣相 研究



國語國文學科

梁 榮 吉

1998년 12월


韓國 近代文學史의 敘述 樣相 研究

指導教授 金 炳 澤

梁 榮 吉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梁榮吉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朴 喆 熙 (印)

委 員 金 時 泰 (印)

委 員 金 永 和 (印)

委 員 金 炳 澤 (印)

委 員 文 聖 淑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8년 12월

韓國 近代文學史의 敘述 樣相 研究

目 次

I. 序 論	2
1. 研究의 目的	2
2. 研究史 概觀	8
3. 研究 方法	12
II. 韓國 近代文學史 敘述 樣相	15
1. 韓國 近代文學史의 近代性과 近代 起點	16
2. 韓國 近代文學史 敘述 樣相의 特徵	41
1) 他律性과 自律性	41
2) 不連續性과 連續性	51
3) 觀念性과 實踐性	65
3. 韓國 近代文學史 敘述 樣相의 理論	81
1) 客觀論과 主觀論	81
2) 二元論과 一元論	93
3) 因果論과 目的論	101
4. 韓國 近代文學史 敘述 樣相의 實際	109
1) 時代 區分에 따른 敘述	109
2) 文學史觀에 따른 敘述	121
(1) 實證的 敘述	122
(2) 精神史的 敘述	127
(3) 社會學的 敘述	130
III. 韓國 近代文學史 敘述 樣相의 問題點과 克服 方案	137
IV. 結 論	145
參考文獻	151
Summary	166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 동안 한국 근대문학사는 어떻게 서술되었는가’, 또 ‘그 방법론들은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이에 대한 물음부터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문학사들이 방법론 체계에 있어 아직 정돈되지 못한 상태”¹⁾이며, “현대의 문학연구에서 가장 크게 시련받고 있는 영역이 문학사”²⁾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문학사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와 비평들을 수집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그침으로써 “문학의 진실을 확보해야겠다는 논리적 전제를 외면”³⁾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근대문학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내세워 그 동안 서술된 문학사를 방법론과 결부시켜 대비시켜 봄으로써 기간(既刊)의 한국 근대문학사들이 어떻게 서술되었는가를 되짚어보고 새로 서술되는 문학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제까지 서술된 수많은 문학사들은 문학 연구들이나 일반사 연구의 업적들을 방법론적 검토도 없이 절충적으로 엮어냄으로써 방법론적 깊이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절충적인 문학사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개별 문학사들의 歷史像(geschichtsbild)이 아니라, 잡다하게 집적된 지식의 과편들일 뿐”⁴⁾이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문학사 서술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서구의 경우에는 문학사 망각의 시대인

1) 구중서, 「한국문학사 방법론 연구」, 『한국문학사론』(대학도서, 1978), p. 78.

2) 김열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국어국문학』 88호(국어국문학회, 1982), p. 411.

3) 김용직, 『한국근대시사』(새문사, 1983), p. 26.

4) 임성운, 『문학사 기술방법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12), p. 2.

데 우리는 새로운 문학사를 써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한국문학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고한 시학이 부재한 현실에서 문학사 기술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반성적 논의인가.”⁵⁾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적 물음인 동시에 방법론적 사관이 부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그 동안 문학사 서술 방법론은 다양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가적·정치적 여건이 연구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일제 강점기는 물론 분단 시대에서도 역사 서술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 모로 제약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제약은 역사의 현재성을 외면한 채 과거에만 매달리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는 활력을 잃고 위축되었으며, 위축된 시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마저도 신장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서술과 방법론상의 제약은 일제 강점기는 물론 광복 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계속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 사학은 계몽사학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족문제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진로를 찾지 못했으며, 다음으로 등장한 실증주의 사학은 문헌고증을 위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일제 식민사학의 논리에 함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에서 사회경제사학이 논의된 바가 있었으나 이는 일본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못하였다. 한국사학은 이렇게 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광복 후에도 사회적·정치적 자유의 속박은 여전했다. 식민사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를 답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학을 서술하는 문학사가들은 문학사를 인식하는 폭을 넓힐 수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 문학사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편파되고 왜곡 축소되는 기형성을 면할 수 없었으며, 방법론에 대한 학문적 기반도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산발적인 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5) 김병욱, 「한국 문학사 기술의 제문제」(김열규 외, 『한국 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p. 127.

즉 분단 이데올로기의 경직된 대결구도로 말미암아 마르크스주의는 물론 신민족주의조차도 금기시되었다. 다만 관제사학만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보다는 안보와 반공이라는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소시민으로 육성되었다. 모든 민주화와 자유화의 요구가 거부되는 사이에 모든 방법론적 논의에서 활성을 잃고 역사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게 교육됨으로써 현재 당면하고 있는 민족 분단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자기기만에 빠지게 되었다. 즉 분단현실을 외면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긍정하는 빛나간 현재성을 찾게 된 것이다.

1922년 안확의 『조선문학사』 이후 일제 강점기를 지나 광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학사서가 서술되었다.⁶⁾ 그러나 이 저술들은 서

6) 근대문학 부분을 다루고 있는 주요 문학사서를 연대순에 따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김태준, 『조선소설사』, 1932.
 임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9. 2~10. 31.
 _____.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9. 2~10. 31.
 _____. 「속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12. 5~12. 27.
 _____. 「개설 신문학사」, 『인문평론』 1940. 11~1941. 4.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민학사, 1947.
 이명선, 『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1948.
 우리어문학회 편, 『국문학사』, 수로사, 1948.
 김사엽, 『조선문학사』, 정음사, 1948.
 조운제, 『국문학사』, 동방문화사, 1949.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7·49
 김성식, 『문학사』, 금룡도서, 1950.
 유창순, 『국문학사 요해』, 명세당, 1953.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56.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 사상계6~15, 1958~59.
 양주동, 『국문학사』, 대일인쇄소, 1959.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 탐방』, 국민서관, 197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석하, 『한국문학사』, 신아사, 1975.
 김동욱, 『국문학사』, 일신사, 1976.
 장덕순, 『국문학사』, 동화출판사, 1976.

술 당시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서술자의 관점과 가치를 강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서술되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욕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식민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인식방법과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얽매인 자신들의 관점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역사는 현재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그리고 과거 역사적 사실들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에 따라 재해석이 일어난다. 그것이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물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은 마찬가지다. “지금이야말로 근대 이후의 문학의 흐름에 대한 시각의 재조정이 필요한 때이고, 시각을 달리하여 문학사가 논의되어야 할 때”⁷⁾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다양한 욕구와 역사의 재해석에 대한 바람은 정치·사회적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전환기 때마다 역사 서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이러한 의욕은 전환기 이전에 미처 공론화하지 못하거나 왜곡·축소·편향되어 있어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자각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 문학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간추리기는 어렵지만, 첫째로 1988년 남쪽에서의 월북 및 작고한 북쪽 문인에 대한 논의의 해금, 둘째로 1990년대 초 북쪽에서의 일제강점기의 문인들에 대한 부분적인 해금, 셋째로 부분적이거나 북쪽 문학에 대한 개방, 넷째로 중국·러시아 등 사회주의권의 여러 나라와의

구중서, 『한국문학사론』, 대학도서, 1978.

박을수, 『신한국문학사』, 성문각, 1982.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86.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7) 박철희, 「문학사 기술의 현 단계와 방향」(김열규 외, 『한국 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p. 89.

외교 관계 정상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자유롭게 논의되지 못했던 일제 강점기의 프로문학, 북한 문학, 재외 동포문학 등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이에 따라 문학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학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것이다. 이제 반쪽만의 문학사가 아닌 통일문학사의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씌어진 문학사는 결코 온전한 문학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것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 이것은 분단된 국토를 고정된 대상으로 생각함으로써 통일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빚게”⁸⁾ 되었다.

한국 근대문학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서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방법론을 검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법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필요한 것은 역사 인식방법에 대한 혁신이다. 인식방법의 혁신은 개방된 역사를 바탕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전환은 과거를 과거 자체로 보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입장에서 현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의 역사”⁹⁾다. 또 “미래는 미래로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온 역사적 누적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므로, 미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게 된다. 문학사도 이와 같다. 모든 역사 서술이 다 그렇듯이, 문학사 서술도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알아서 미래를 알고 실현하자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¹⁰⁾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가장 의미 있는 탈자태는 미래라는 것이다. 본래적 역사성은 현존재의 미래라는 견지에서 의의”¹¹⁾가 있다.

8) 김병택, 『한국현대시인론』(국학자료원, 1995), p. 93.

9) William H. Dray, 『Philosophy of History』(Wag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4), 『역사철학』(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3), p. 75.

10) 조동일, 『문학연구방법』(지식산업사, 1986), p. 254.

11) Michael Gelven, 『A Commentary on Heidegger's Being and Tim

역사 서술의 의의는 시대적 관심을 반영하고 미래와의 관련하여서의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서술된 문학사는 이러한 관심과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즉, 기존의 많은 문학사들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중핵적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줄기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위성적 요소인 파편들을 중심으로 문학사의 위축된 부록(atrophied appendix)만을 제시하는 데에 열중했다. 또한 문학사 발전의 주체를 소수 문인이나 지도적 역량을 내세우는 문인으로 보는 문학사 서술로 말미암아 문학사를 폐쇄적이게 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너무 단편적이었으며 획일화되다시피 하였다. 문학적 사실 또한 과거 사실에 얽어 놓기에 급급했다. 즉 특정한 교훈적·실용적 관점에서 서술되었거나, 니이체가 지적했던 바와 같은 ‘골동품적(antiquarisch)’, ‘호고적(好古的)인 과거 예찬’의 역사, 또는 효용의 편의주의에 의한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과거의 문학에는 봉사했지만 미래의 문학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까지는 인식의 범위가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학사가는 과거의 유산을 화석으로 보지 않고, 또 고정화된 유산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문학사가는 문학사를 집필하는 현재 시점에서 현존하는 과거의 역사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문화적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을 착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를 고정된 그 어떤 것으로 바라보고 문학사를 서술한다면 그것은 이미 출판된 문학사를 보완하는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사 서술방법론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새로운 한국 근대문학사를 서술하여 한국 근대문학사상을 밝혀내고 우리 문학사의 정체성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제기되고 세워진 가설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문제 제기야말로 바로 모든 역사 연구의 시작이요 끝”¹²⁾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서술해

e₁(『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해설서』, 시간김성룡 옮김, 시간과 공간사, 1991), p. 280.

12) L. Febvre, *Combats pour l'histoire*, 1953, 日譯 『歴史のためのいみ

야 하기 때문에 역사가의 주체적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과거는 결국 현재가 되는 것이며, 또 현재에 의하여 갱신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학사도 문학사 연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문학사는 거듭나는 것”¹³⁾이다. 이는 문학사 서술 방법에 따라 문학사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쓰여지는 문학사는 현재의 관심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와의 관련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계발하여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

2. 연구사 개관

한국문학사 서술 양상에 관한 연구 수행에 있어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 성과가 너무 빈약한 데 있다. 몇몇의 문학사를 제외하면 문학사 서술에 앞서 단편 에세이 형식으로 펼쳐놓은 주장이 대부분이다.

문학사 서술 양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원론적 접근과 서술 방법론, 둘째로 근대성과 근대기점론, 셋째로 시대구분론 등의 방향이 그것들이다. 원론적 접근과 서술 방법론의 경우는 임화, 백철, 조연현, 이경선, 김윤식, 김동욱, 구중서, 김용직, 김종호, 임성운, 김열규, 박철휘 등¹⁴⁾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근대성과 근대

『斗い』(1976), pp. 31~32.

13) 박철휘, 앞의 글, p. 91.

14) 임화, 「신문학사의 방법론」(『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백철, 「국문학사 서술 방법론」(『사상계』, 1957. 3).

이경선, 「문학사 방법론 서설」(『국어국문학』 16집, 1957).

조연현, 「한국문학사 방법론 서설」(『문예춘추』, 1965. 11).

김윤식·김현, 「방법론 비판」(『문학과 지성』, 1972. 봄호).

백철·조연현, 「한국근대문학사 서술 방법상 문제점」(1973).

김윤식, 『한국문학사론고』(범문사, 1973).

김동욱, 「일반문학사 ; 한국문학사의 문제점」(『청파문학』 11호, 1974).

구중서, 「한국문학사 방법론 비판」(『월간중앙』, 1974. 8).

기점론의 부문에서는 김일근, 송민호, 김주연, 김현, 정병욱, 이청원, 윤경수, 김영수, 조동일, 홍신선, 구모룡 등¹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시대구

- 김용직, 「한국 문학사 방법」(『한국문학』, 1974. 11).
 이상비, 「민족문학사의 방법 연구」(『논문집』 9집, 원광대, 1976).
 이청원, 「민족문학사 방법 연구」(『시문학』, 1976. 12).
 구중서, 「한국문학사의 언술 방법」(『한가람』 2호, 1978. 1).
 임형택, 『한국근대문학사론』(한길사, 1982).
 김봉균, 「한국문학사의 비판적 조명」(『이응백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1983).
 이항녕·김종우, 「한국문학사의 정통성을 찾아야 한다」(『동서문화』 106호, 1983. 4).
 사재동, 「한국문학사의 기술 관점」(『청대춘추』 29집, 청주대, 1985).
 정종진, 『문학사 방법론』(청주대 출판부, 1989).
 김종호, 「한국문학사 기술방법론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국어교육연구』 22집, 1990).
 서경석, 「문학사 서술에 나타난 남북한의 거리」(『문학과 비평』 15집, 1990).
 임성운, 「문학사 기술방법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김재수, 「문학사 기술의 성립과 전개」(『인문논집』 38호, 고려대, 1993).
 송희복, 『한국문학사론 연구』(문예출판사, 1995).
 김열규 외, 『한국 문학사의 현실과 이상』(새문사, 1996).
 우한용 외, 「통일문학 지향을 위한 문학사 서술 방법의 이론적 모색」
 (현대문학이론연구회편,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집, 1997. 12).
 15) 김일근, 「민족문학사적 시대구분 시론 ; 특히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하여」, 『자유문학』 2.2, 1957. 7.
 송민호, 「개화기의 근대문학적 성격 ; 근대문학의 초기형태라는 관점에서」, 『고려대 문리논집』(문학부편), 1963. 7.
 서울대 대학신문, 「한국 근대문학의 기점 : 좌담」(김윤식, 정병욱, 정한모, 김현, 김연주), 1971. 10. 11.
 김주연, 「한국문학사의 제문제」(『서울평론』 23호, 1974).
 김현, 「문학사 방법과 반성」(『한국문학사』 비판에 대한 대답)(『한국문학』, 1974. 7).
 김주연, 「후진국 문학 ; 문학사 논의와 관련하여」(『문학비평론』, 열화당, 1974).
 정병욱,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근대문학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판소리연구』 8, 1975. 1.
 이청원, 「언문일치 운동의 기점 문제 ; 민족문학사의 방법 연구」, 『시문

분론의 부문에서는 김일근, 이상비, 장덕순, 김석하, 전용윤, 안승덕, 조석래, 김영수, 홍기삼, 황정산, 유세중, 송희복, 원용문 등¹⁶⁾에 의해서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원론적 측면과 서술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는, 임화의 「신문학사의 방법론」을 시작으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근대기점론’과 ‘시대구분론’에 치우쳐 있다. 그 외의 구체

학』73, 1977. 8.

윤경수, 「한국 근대문학의 기점」, 『현대문학』310, 1980. 10.

김영수, 「근대문학의 기점 연구」, 예술원 『논문집』24, 1985. 12.

정환균, 「영정시대의 문학활동 양상」, 『홍익어문』5, 1986. 1.

조동일,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설문학』131, 1986. 10.

고명수, 「한국문학사상 근·현대 문학 기점 논의와 그 문제점」, 동국대 『목석어문』4, 1991. 3.

구모룡,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문제」, 『오늘의 문예비평』7, 1992. 9.

홍신선, 「우리 근대 자유시의 성립과 내력」, 『현대시』5-5, 1994. 5.

구모룡, 「근대성, 혹은 근대의 초극; 김윤식 읽기를 위한 각서」, 『오늘의 문예비평』13, 1994. 5.

16) 김일근, 「민족문학사적 시대구분 시론」, 『자유문학』2.2. 1957. 7.

한국경제사학회, 『한국사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1970.

이상비, 「국문학에 있어서의 시대구분의 고찰 서설」, 원광대 『논문집』6, 1972.

장덕순, 「한국문학사의 시대구분 ; 문학사의 시대구분론」<특집>, 『성심』, 창간, 1972. 2.

김석하, 「한국문학사 시대구분의 방안 추의」, 『동양학』2, 1972. 12.

전용윤, 「국문학사 시대구분에 대한 고찰」, 대전공전 『논문집』11, 1973. 5.

안승덕, 「국문학사 시대구분 문제」, 『수곡』8, 1977. 12.

조석래, 「국문학사 시대구분의 방향」, 진주교대 『논문집』28, 1984. 11.

김영수, 「한국문학의 시대구분 재고」, 『청대춘추』29, 1985. 2.

홍기삼, 「한국문학사 시대구분론」, 『한국문학연구』12, 동국대, 1989.

황정산, 「남북문학사 시대구분론 ; 해방 이후의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시학』239, 1989. 2.

송희복, 「문학사와 시대구분」, 『동악어문논집』26, 1991. 11.

한국경제사학회, 『한국사 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1996.

적 논의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관 중심의 방법적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 더구나 ‘문학사론’이라는 이름의 많은 저서들은 작품론이나 논문들을 묶어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저서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은 사견이거나 단편적인 논의에 그친 것들이다.

임성운의 「문학사 기술방법론 연구」(1990)인 경우 체계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지나치게 일반론 중심의 접근이어서 한국문학사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이후 김열규, 박철희 등의 『한국 문학사의 현실과 이상』(1996)에 와서 체계적이고 방법론적인 이론이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한용 등의 「통일문학 지향을 위한 문학사 서술 방법의 이론적 모색」(1997)에 와서는 통일문학사 방법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인 경우 김열규의 「한국 문학사 기술의 제문제」, 박철희의 「문학사 기술의 현 단계」 등을 제외하면, 주제사, 사회사, 남북의 비교 등 주요 논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우한용 등의 「통일문학 지향을 위한 문학사 서술 방법의 이론적 모색」에서는 통일문학사에 대한 관심 이외에 장르사에 대한 관심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근대성과 근대기점에 대한 논의에서는, ‘근대기점’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논의함으로써 근대성을 인식하는 방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성이 부족하여 소박한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근대기점을 논의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독자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자국사 미화책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시대구분론에 대한 논의에서도 일반사 방법론에 예속된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수성과 연계된 시대구분 논의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문학사 서술로 실천되기도 했고, 아직 실천되지 않고 기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 근대문학사가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서술되었는가의 논의를 위한 것이므로, 앞으로 논의할 ‘타율성과 자율성’, ‘불연속성과 연속성’, ‘관념성과 실천성’ 등을 바탕으로 그 변천과정에 따라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1기 : 안학의 『조선문학사』(1922)~1972년까지

제2기 :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1973)~1981년까지

제3기 :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1982)~1987년까지

제4기 : 1988년 북쪽 문인에 대한 부분 해금~오늘날에 이르기까지¹⁷⁾

제1기는 타율적·불연속적 인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서술의 시기로, 호고적·골동품적·교훈적·실용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제2기는 자율적·연속적 인식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로 방법론 모색의 시기이기도 하다. 제3기는 그 동안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양분하여 인식하던 문학사에 대해 통사로서도 서술이 가능함을 확인해 주는 자율성과 연속성이 실현되는 시기이다. 제4기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제약에서 다소 풀려나 문학의 실천성에 대한 논의가 자유로워진 시기이며, 분단 시대적 문학사 인식을 탈피하고 통일문학사 출현을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문학사 서술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사 서술 특징과 이론에 관련되는 몇 몇의 제한된

17) 김종호는 「한국문학사 기술방법론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국어교육 연구』22, 1990), p. 172에서 제1기 : 임화에서~김현·김윤식 이전까지(초창기~60년대말), 제2기 : 김현·김윤식에서~조동일 이전까지(70년대 논의), 제3기 : 조동일 이후~(80년대 논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4기까지 확대하고, 그 기준과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문학사를 중심 자료로 사용하고, 소설사와 시사를 보조적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몇몇 문학사만을 연구 자료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이면서 동시에 장점이기도 하다. 그 동안 발행된 문학사서 모두를 대상으로 삼지 못함으로써 모든 문학사를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자료의 제한으로 좀더 논의의 깊이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설정한 근대문학사 서술 시기별로 1~3종의 주요 문학사서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제1기에 해당하는 저술로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신문학사」·「속 신문학사」·「개설 신문학사」,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 조연현의 『현대문학사』, 제2기에 해당하는 저술로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 제3기에 해당하는 저술로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제4기에 해당하는 저술로 김재용 외 3인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를 중심으로 살펴나가하고자 한다. 또 보조적으로는 안확의 『조선문학사』,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박영희의 『한국현대문학사』, 이재선의 『한국현대소설사』, 김용직의 『한국근대시사』 등의 문학사를 부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 시기는 근대 시기인 그 기점에 대한 논의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 근대문학사가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서술되었는가를 살피고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제Ⅱ장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과 제Ⅲ장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으로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우선 그 동안 근대기점에 국한된 논의를 확대시켜 ‘근대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새로운 근대기점 설정을 위한 방법을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타율성과 자율성’, ‘불연속성과 연속성’, ‘관념성과 실천성’으로 나누어 문학사 서술 양상의 특징을 해명하고, ‘객관론과 주관론’, ‘이원론과 일원론’, ‘인과론과 목적론’으로 나누어 문학사 서술상의 이론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시대구분에 따른 서술’과 ‘문학사관에 따른 서술’로 나누어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실재를 논의하고자 한다. ‘시대구분에 따른 서술’에서는 그 방법·

기준·명명 방법·극복 방안과 그 실제에 대하여, ‘문학사관에 따른 서술’에서는 ‘실증적 서술’, ‘정신사적 서술’, ‘사회학적 서술’로 나누어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각각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 극복 방안을 아홉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II.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

한국문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근대문학’이라 함은 ‘한국 근대문학’과 ‘근대 한국문학’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한다. 우선 이들의 개념부터 정리하여 보면, ‘한국 근대문학’은 한국문학 가운데에서 ‘근대적’인 문학을 대상으로 일컫는 것이며, ‘근대 한국문학’은 한국사 근대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문학을 일컫는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의 개념은 문학사 자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인식이라는 장점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약점으로 작용하여 제한적이고 미시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근대 한국문학’의 개념은 문학사를 한국사 근대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단점을 지니면서도 이를 민족사의 실천적 범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또 근대문학을 논의할 때 고려되고 있는 것은 국문문학으로 한정되어 인식되고 있는 언어의 문제이다. 언어에 있어서 ‘한글’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장점이 되는 반면에 출발점에 있는 문학사적 자료의 빈곤을 초래하여 실증주의자들로 하여금 부정적 회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는, 근대문학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에 있는 근대성과 근대기점의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한국 근대문학’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근대 한국문학’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근대성과 근대기점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실상은 이 둘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근대 한국문학’을 같은 위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근대 한국문학’을 ‘한국 근대문학’과 같은 위상에서 검토하지 못한 것은 우선 일제 강점기 동안에 문학사를 민족사의 일부로 인식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랐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분단 상황의 여러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제약에 의한 인식의 완고한 틀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

들을 환원시켜 보고, 또 완고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한국 근대 문학사상은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문학으로 설정되는 시기와 근대 한국문학으로 설정되는 시기는 그 출발점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시기부터는 일치하게 된다. 이 근대 한국문학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은 불연속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통사적 서술에 있어 필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근대사에 편입되어 독립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과 근대기점’,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특징’,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이론’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과 근대기점’에서는 ‘근대기점’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근대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근대기점’ 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특징’에서는 ‘타율성과 자율성’, ‘불연속성과 연속성’, ‘관념성과 실천성’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논의하고,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이론’에서는 ‘객관론과 주관론’, ‘이원론과 일원론’, ‘인과론과 목적론’으로 나누어 그 이론적 적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과 근대기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과 근대기점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바로 ‘근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근대의 기점을 어디서부터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근대기점’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근대성’과 ‘근대기점’, 그리고 ‘여러 근대기점의 문제점’과 ‘새로운 근대기점 인식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5년 4월 동아문화연구소에서 펴낸 『동아문화』 제3집의 「근대화 특집」에서부터였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사를 비롯한 일반사에서 ‘근대기점’의 설정이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였다. 1968년 3월 30일 동아일보사에서 개최한 「한국사 시대구분론 종합토의」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본격화되었다.

한국문학사에 있어서의 ‘근대기점’에 관한 논의는 일반사에서보다 몇 년 뒤인 1971년 10월 11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가 주관한 「한국근대문학의 기점」이라는 좌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김윤식(사회), 정병욱, 정한모, 김현, 김주연 등이 참석한 이 좌담에서 ‘기간(既刊)의 문학사가 서구에서 새로운 문학양식이 들어온 시대부터 근대문학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국문학사에서도 ‘근대기점’의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근대기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자, 이를 지지하는 논의를 비롯하여 새로운 논의가 많이 등장했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근대기점으로 설정된 것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① 18세기 후반 영정조 기점, ② 1860년 동학 창건 기점, ③ 1876년 개항 기점, ④ 1894년 갑오개혁 기점, ⑤ 1919년 『창조』 창간 또는 3·1 독립운동 기점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이 ‘근대기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는 서술자의 판단과 주관에 맡겨진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도 근대기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그 동안의 논의는 역사 인식의 불철저, 논리 계발의 빈약, 동조와 변형 등으로 체계적인 논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근대성’과 ‘근대기점’은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그리고 ‘여러 근대기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새로운 근대기점 인식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근대성’의 문제

우선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근대성(modernity)’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성’에 대한 규명은 독립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작품론이나 작가론에서 근대성을 찾아 그 의의를 밝히려는 것과 ‘근대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첫째로 한국 근대문학 자체에서만 논의하려는 내재적 관점, 둘째로 사회와의 관련에서 찾으려는 외재적 관점, 셋째로 이 두 관점을 하나로 인식하는 복합적 관점 등이 그것이다.

문학 자체에서만 근대성을 찾으려는 내재적 관점은 박철희, 외재적 관점에서 근대성을 찾고 있는 경우는 김현, 근대성을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을 복합하여 인식하는 경우는 임화, 이재선, 김용직, 조동일, 김재용 등이 해당된다.

우선 내재적 관점에서 근대성을 논의한 박철희는 “한국문학의 ‘근대성’은 타설적(他說的) 형식의 쇠퇴와 자설적(自說的) 형식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시의 경우, 근대 이전의 문학, 특히 개화기 시가는 감각보다는 이념이, 개성보다는 관념을 앞세운 타설적 구조 위에서 형성 전개된 데 반하여, 근대 이후의 시는 반대로 자설적 구조 변화를 일으켰다. 그만큼 이념보다는 감각, 관념보다는 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아의 발견 및 강조, 과거에의 회귀, 낭만적 정열, 에로스적 충동 등과 같은 도피 모티프 등, 한국시의 근대지향성을 이루는 서정성이 1920년대 초기시의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¹⁾라고 하여 ‘감각’과 ‘개성’에서 문학의 근대성을 찾았다.

김현은 ‘신분제도의 혼란’, ‘경영형 부농의 등장’, ‘상인계급의 대두’, ‘화폐유통’, ‘실사구시의 성립’, ‘독자적인 수공업의 대두’, ‘서민계급이 진출하면서 인간평등 자각’ 등을 중심으로 근대성을 인식하였다. 그는 ‘시조, 가사 등 재래적 문학 장르의 집대성’, ‘판소리, 가면극, 소설 등의 발전’

1) 박철희, 앞의 글, p. 85.

등 내재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재적 관점에서 근대성을 인식하고 있다.²⁾

근대성을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을 통합하여 인식하는 경우는 임화, 이재선, 김용직, 조동일, 김재용 등이 해당된다. 임화의 경우는 한국 근대문학의 근대성을 문학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찾고 있다. 그는 ‘自由로운 散文을 形式으로 한 文學’과 ‘市民精神’³⁾에서 찾으면서 서구적 장르로 정착된 문학을 근대문학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근대성을 “商品資本의 蓄積 産業資本에의 轉化 商品流通의 擴大와 그것을 可能케 하는 生産力의 增大 手工業의 獨立 「매뉴팩처어」의 成長 交通의 發達, 市民階級の 勃興 等”⁴⁾ 사회경제의 발달상에서 찾고 있다.

이재선은 문학의 내용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에서 근대성을 찾고 있다. 그는 20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소설사에 있어서 객관묘사, 重層描寫, 서술시점 및 사변적인 교훈의 배제 등 내부 현실의 탐구”⁵⁾를 볼 수 있다면서 현실 탐구의 사실주의에서 찾았다. 그리고 문학사회학의 입장을 전제하면서 첫째, 독서 대중인 시민계급의 확대, 둘째, 근대적인 인쇄술의 기술 형성의 발전, 셋째, 신문 잡지의 발간, 넷째, 작가의 전문화 현상, 다섯째, 상업적인 책방의 속출 등⁶⁾에서 근대성을 해명했다.

김용직은 근대시의 기본 속성인 근대성을 “문체라든가 형태에 나타나는 세련미”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근대 이전의 시가들은 아무래도 거칠고 소박한 단면을 드러낸다. 그런 단면이 어느 정도 지양·극복된 작품들을 근대적인 것으로 손꼽아 보자는 생각이다.”⁷⁾라고 함으로써 근대 이전의 작품 형식과 비교하여 근대성을 찾고 있다. 또 “근대의식이란 시민계급의 자아각성과 그에 수반된 세계인식”⁸⁾으로 규정하여 사회학적인

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pp. 20~21.

3) 임화, 「개설 신문학사」(4)(『조선일보』, 1939. 9. 8).

4) 위의 글(6)(『조선일보』, 1935. 9. 14).

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 49.

6) 위의 책, pp. 49~50.

7) 김용직, 앞의 책, p. 41.

8) 위의 책, p. 39.

관점도 배재하지 않았다.

조동일은 “문학의 근대적인 것 또는 근대성이란 언어 선택의 국문문학, 문학갈래에 있어서의 소설문학, 문학담당층에 있어서의 시민주도의 민족문학이며, ‘근대의식’, ‘근대화’ 및 ‘민중의 능동적 작용’, ‘현실을 인식하며 타개해 나가는 과업’ 등을 함의하고 있는 문학”⁹⁾이라고 하여 근대성을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근대문학을 시민문학에서 찾으면서 “시민문학은 시민만의 문학에 머무르지 않고, 상층 사대부 문학과 하층 농민문학의 폐쇄성을 무너뜨리고, 상하층의 관심사까지 가능한 대로 끌어들이며 근대 민족문학을 지향하는 속성을 지녔다.”¹⁰⁾고 하여 문학 담당층의 확대에서 근대성을 찾고 있다. 또, 김재용은 ‘첫째, 근대민족 국가의 성립, 둘째, 민족의식의 성장, 셋째, 민족 공통어의 형성’에서 민족문학이 성립한다¹¹⁾고 하여 민족문학적 성격에서 근대성을 찾았다.

이들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한계가 없지 않다. 우선 한국 문학에서 근대성을 찾는 것은 문학 자체의 내재적 문제를 포함한 시대와 민족 문제까지도 함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외재적 관점은 일반사에서 일컬어지는 ‘근대성’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를 문학적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는 논리의 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단순 차용에 머물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문학적 문제와 문학외적 문제로 각각 분리하여 인식하는 한계에 머물게 되었다. 복합적 관점 역시 외재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조동일의 경우 문학담당층으로 다소 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의 근대성은 민족 의식의 성장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 민족 의식의 성장 발전이 바로 근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의식이 성장을 이루는 복잡계의 변화에 의해서 패러다임(paradigm)의 교체를

9) 이재선,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의 ‘고대’와 ‘현대』(김열규 외, 『한국 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p. 110.

1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3권(지식산업사, 1989), p. 186.

11)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한길사, 1993), pp. 55~56.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장 발전된 자주적 의식이 사회문화와 사회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문학사의 패러다임을 교체하여 근대문학사를 형성시켰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주적 민족의식의 성장 발전 주체인 민족은 근대문학사의 담당자이며, 이러한 민족의식을 성장 발전시켜온 대내외적 여건이 바로 한국 근대문학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근대문학사를 이루는 복잡계의 요소들을 찾아 그 동안의 인식 방법부터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근대성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내재적 관점에서는 박철희가 문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타설적 형식의 쇠퇴와 자설적 형식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이념과 관념’보다 ‘감각과 개성이 강조’되는 문학적 형식에서 근대성을 인식하고 있다. 외재적 관점에서는 김현이 ① 신분제도의 혼란·② 경영형 부농의 등장을 비롯한 경제구조의 변화·③ 실사구시의 성립·④ 인간평등 자각 등에서 근대성을 찾고 있다. 그리고 복합적 관점으로는 임화의 경우 ① 자유로운 산문 형식·② 서구적 장르·③ 시민정신의 내용·④ 사회경제의 발달상에서, 이재선의 경우 ① 인쇄산업과 사실주의 발달·② 사회적 여건의 성숙에서, 조동일의 경우 국문문학·소설문학·민족문학·시민문학 등에서, 그리고 김재용은 ①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② 민족의식의 성장·③ 민족 공통어의 형성 등에서 근대성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나름대로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을 규명하고 있으나, 문학 자체의 내재적 문제를 포함한 시대와 민족 문제까지도 함의할 수 있는 확대 해석을 위한 논리의 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즉 자주적 민족의식을 성장 발전시켜온 주체인 민족이 근대문학사의 담당자이며, 민족의식을 성장시켜온 대내외적 여건이 근대문학사의 배경이라는 확대 해석의 논리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근대성은 민족의식을 이루는 패러다임의 교체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그 동안의 인식 방법을 전환시킬 방법을 제기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근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기점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근대기점’의 문제

근대성을 갖는 근대문학의 기점을 설정할 필요성은 있는가. 필요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설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근대’라는 용어는 서구의 3분법의 한 시대 개념이기 때문에 근대성을 규명하고 근대기점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서구적 잣대로 우리 문학을 재단할 우려를 처음부터 안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니 ‘근대기점’이니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연속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역사 서술에 있어서 ‘근대’라는 용어를 서구적 개념만으로 돌려놓는다면 그것은 우리 문학의 전통성에 연속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강박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근대’라는 용어는 연속성이나 불연속성의 문제에서가 아닌 역사 서술에 있어서 보편적인 본질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물론 그 동안 불연속적 가치개념으로 사용되고 규명되었던 것들을 경계할 필요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한국 근대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근대기점은 설정되어야 한다.

그 동안 논의된 근대기점으로는 갑오경장 기점, 영정조 기점, 동학창건 기점, 개항기 기점, 3·1독립운동 기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갑오경장 기점에 대한 논의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894년 갑오경장 기점을 근대기점으로 설정한 예는 안확의 『조선문학사』(1922)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임화가 조선일보에 연재한 「개설 신문학사」(1939), 백철의 『신문학사조사』(1955),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1956) 등의 문학사 서술에 적용되었다. 이들은 “此時를 際하여 文明의 旗幟를 翻하고 大改革을 行코자하는 派黨이 起”¹²⁾함, “甲午 以後에 展開되는 開化의 過程은 (...) 朝鮮 新文化의 建設의 唯一의 路”¹³⁾, “이 땅에 근대적인 신문화운동이 어느 때 시작되었나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역시 1894년, 즉 갑오혁신 이후”¹⁴⁾, “갑오개혁이 우리의 근대적인 그 최초의 출발이었

12) 안확, 『조선문학사』(한일서점, 1922), p. 117.

13) 임화, 「개설 신문학사」(17)(『조선일보』, 1939. 10. 10).

던 것은 확실”¹⁵⁾함 등으로 갑오경장 기점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조연현에 와서 이루어졌다. 그는 “한국의 근대적인 과정을 「갑오경장」부터라고 해석하는 것은 모든 사학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우리가 「근대」라는 개념을 봉건적인 것과 구별되는 開明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의 근대적인 출발이 갑오경장을 비롯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¹⁶⁾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의의를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는 귀족정치에서 평민정치에의 전환을 밝혔고 외국에의 종속적인 위치로부터 주권의 독립을 분명히 하였으며, 둘째, 사회적인 면에서는 개국기원의 사용, 문벌과 신분계급의 타파, 문무준비제의 폐지, 연좌법 및 노비제의 폐지, 조혼의 금지와 부녀재가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셋째, 경제적인 면에서는 銀本位의 통화제와 국세 金納制의 실시, 도량형의 개정과 은행회사의 설립 등 이밖에 무려 2백여 항목에 달하는 근본적인 개혁”¹⁷⁾ 등을 내세웠다.

이 갑오경장 기점은 “모든 사학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하여 자체 논리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는 또 “갑오경장은 한국과 청국과의 관계를 끊고 한국 내에 그들의 세력을 부식하려고 한 일본의 이익이 그 발단이 되었던 것”¹⁸⁾으로 인식하면서도 끝내 앞 시대와의 연속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와의 단절적 인식으로 불연속성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타율적으로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하는 한계를 처음부터 안고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갑오경장 기점론은 한동안 당연시되었으나, 1971년 소위 영정조 소급론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자 논리의 허약성을 드러내고 더 이상의 논리를 내세우지 못하였다.

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 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소위 소급론은 1971년 10월 11일 『대학신문』의 좌담에서 새롭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영

14) 백철,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1955), pp. 5~6.

15)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제1부)(현대문학사, 1956), p. 3.

16) 위의 책, p. 19.

17) 위의 책, pp. 20~21.

18) 위의 책, p. 40.

정조 기점은 1932년 『조선소설사』를 쓴 김태준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며, 1955년 백철의 『신문학사조사』(1955)에서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설정하면서 그 “근대성을 영정조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¹⁹⁾고 하여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내용이다. 즉 “영정 시대를 획(劃)한 것은 영정 양대 동안에 문화적 업적이 그의 전후와는 대차(大差)가 있는 발전과 특색을 보여 줌”²⁰⁾, 또는 “1750년을 전후한 이조의 영조 정조시대란 우리 문화사상에 있어 구라파의 14, 5세기의 일을 연상케 하는 루네이상스적인 기운이 발상되고 있던 현상”²¹⁾ 등으로 그 의의를 제시했다.

이러한 영정조 기점은 갑오경장 기점론을 극복하는 방법론으로 발전하여 1971년 「대학신문」에서 김윤식·김현이 좌담 형식의 논의를 펼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1973년 『한국문학사』를 펴내었다. 그들은 “우리는 이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문자로 표현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한 체계적인 노력이 싹을 보인 영정조시대를 근대문학의 시작으로 잡으려 한다”면서 그 이유를 ① 영정조시대에 이르면서 이조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신분제도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 경영형부농의 등장, ② 상인계급의 대두, 화폐유통, ③ 실사구시의 성립, ④ 독자적인 수공업이 점차 대두, ⑤ 시조, 가사 등의 재래적 문학 장르가 집대성되면서 점차로 판소리, 가면극, 소설 등으로 발전, ⑥ 서민계급의 진출하면서 인간평등 자각²²⁾ 등을 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내재적 관점에 깊이 젖어 있던 근대성을 외재적 관점과 연계하여 관심의 폭을 넓히고 불연속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연속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영정시대 기점론은 어느 시대를 기점으로 설정하든 그 동안 불연속적 타율적으로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하던 타성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 백철, 앞의 책, p. 5.

20) 김태준, 『조선소설사』(1932, 도서출판 예문에서 1989년 재출판), p. 133.

21) 백철, 앞의 책, pp. 5~6.

22) 김윤식·김현, 앞의 책, pp. 20~21.

다음으로 1860년 동학 창건 기점론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기점론이 고개를 든 것은 영정조 소급론이 등장한 이후부터였다. 이는 1894년 갑오경장 기점에 젖어 있던 인식에서 새롭게 등장한 영정조 소급론이 충격으로 비쳐졌다. 영정조 소급론으로 말미암아 갑오경장 기점은 부정적으로 비쳐졌고, 영정조 기점을 인정하기는 너무 소급된 듯한 인상 때문에 다소 절충적인 방편으로 동학 창건 기점을 설정하고 있다.

황폐강은 1860년을 근대와 전근대의 갈림길로 보았다. 그 근거로 최제우의 동학가사 창작유포, 최창업의 천주교 가사, 신재효에 의한 판소리 사설의 정리, 방각본 국문소설의 본격적인 유행²³⁾ 등을 내세웠다.

이는 근대성을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인식 방법에 있어 갑오경장 기점론을 부정하는 것 이외에 영정조 소급론에서 보여준 방법론적 차원을 뛰어 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오세영은 “황폐강의 1860년대 기점설은 갑오경장 기점설 가운데서 우리의 근대화가 자생적으로 태동하였다는 전통 계승설을 변형한 견해”²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동학 창건 기점을 설정하면서 논리계발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 영정조 소급론이나 갑오경장 기점론에 대한 부정논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동학 창건 기점의 타당 논리도 소박한 차원에 머물렀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또 1876년 개항 기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용직은 “한국 근대시의 기점은 개항기 이후에 제작된 새 유형의 작품으로 책정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개항기 기점설이 그대로 우리 근대시에 끼친 영정시대 서민시가의 역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개항기 시가의 근대성은 그 형태·구조를 통해 뚜렷이 확인된다. 적어도 거기에는 고전시가가 지닌 전근대성이 상당부분 지양, 극복”²⁵⁾되었다고 하면서 영정시대와의 관련

23) 황폐강, 「한국문학사의 근대」(고전문학연구회 편, 『근대문학의 형성 과정』, 문학과 지성사, 1983),

24) 오세영, 「근대시의 기점」(장덕순 외, 『한국 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92), p. 605.

25) 김용직, 앞의 책, p. 43.

하에서 개항기 기점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본격적인 근대시를 「태서문예신보」(1918)의 출현에서부터 서술하고 있어²⁶⁾ 논리의 한계를 보여 줌은 물론, 동학 창건 기점론의 대두와 마찬가지로 절충적 방법으로서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19년을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조동일은 근대문학을 ‘사대부가 물러나고 시민이 주도권을 차지한 것’, ‘한문학을 퇴장시키고 국문 문학이라야 할 것’, ‘그 기본 영역을 서정시·소설·희곡’ 등으로 한정시켰다. 이러한 요건은 이행기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이행기가 끝나고 근대문학이 시작되는 시점을 1919년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와서 “중세문학의 기본 전체를 오랜 기간에 걸쳐 부정하는 역사적 전환의 결과 평등과 자주를 지향하고 현실 인식을 존중하는 근대 민족문학이 이룩”²⁷⁾되었다고 보았다.

조동일의 이러한 관점은 서구적 기준의 장르와 그 형식(form)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문학사의 배경이 되는 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서구적 장르의 형식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근대문학의 완성으로 보일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자칫 ‘식민지 문명론’, 또는 ‘식민지 시혜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율성과 관련되는 논리의 모순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 외에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서 기점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재선이다. 그는 20세기 문턱을 그 기점으로 설정하면서 “한국소설사에 있어서 작품 내적 특질에 있어서의 근대소설 내지 현대소설의 기점은 20세기로 접어든 그 문턱부터라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발전단계로 보아 중산층 내지 시민계층의 의식이 노출되기 시작한 십 팔구 세기의 문학은 그 이전과 당대의 기존 문학에 대한 자체적인 동요 및 문학의 근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인식론적인 전환의 긴 모색이며 외래문학의 수용은 근대소설의 성립을 위한 중요한 한 재원으로서 기여되는

26) 위의 책, p. 127.

2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5권(지식산업사, 1989), pp. 5~6.

가운데서 우리의 소설은 비로소 근대문학의 본령으로 편입”²⁸⁾되었다고 하여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나 시점을 그 기점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 그는 “한국의 정신사나 문화사적 경험양식에 있어서 근대적인 주체나 자아확산의 맹아가 뚜렷이 대두하거나 나타나게 된 실학사상을 거치면서 근대화 과정인 갑오경장 및 갑오동학 혁명 등의 경험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²⁹⁾고 하여 근대적인 맹아의 대두를 실학사상에서 찾고 있다.

또 “3·1운동은 우리의 주체적 자의식이 응축된 근대성의 구체적 양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1894년에서 1919년 사이의 기간은 우리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의 이른바 ‘근대성’이 형성·정립되고 확연해지는 시기로 인지된다.”³⁰⁾고 하여 ‘실학사상 → 갑오동학혁명·갑오경장 → 3·1독립운동’으로 근대성의 형성을 설명했다.

또 김재용은 분명한 기점을 설정하지 않고 19세기말부터 1910년까지를 첫째 시기로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첫째 신문 등을 만들어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고, 둘째 한문 대신에 민중들이 읽기 쉬운 한글을 널리 쓰게 했으며, 셋째 1896년 대중적인 정치단체의 성격을 띤 독립협회를 창설³¹⁾하였다고 그 시기적 특징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문화운동은 출판운동·국문운동·교육운동 그리고 학회운동”³²⁾으로 요약했다.

이상에서 갑오경장 기점, 영정조 기점, 동학 창건 기점, 개항기 기점, 기미 기점 등을 중심으로 근대기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971년 소위 영정조 소급론이 대두되기 이전의 논의들은 문학사 서술에 앞서 밝힌 내용이거나 문학사 서술의 한 부분의 내용들로 체계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식이라기보다는 소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영정조 소급론이

28) 이재선, 앞의 책, pp. 49~50.

29) 이재선, 위의 글, pp. 113~115.

30) 위의 글, pp. 113~115.

31) 김재용 외, 앞의 책, p. 66.

32) 위의 책, p. 66.

대두된 이후에 여러 기점론이 등장하지만 영정조 소급론의 논리적 차원을 뛰어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근대기점들은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근대기점’ 논의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근대기점들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 우선 갑오경장 기점론은 영정조 소급론이 등장하면서 타율적이고 불연속적인 인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갑오경장은 “동아시아에 형성된 일본 중심의 근대적 제국주의 질서 속에 조선이 편입되는 과정을 범제화”한 것이며 “반(反)침략 자주화의 민족적 과제를 상실한 예속적 개혁운동”³³⁾이었다. 당시부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1897년 광무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광무개혁은 갑오동학 혁명을 겪으면서 자체적으로 성장한 자주적 의식을 바탕으로 갑오경장을 부정하고 자주적 근대화의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경술 강점 당시부터 광무 개혁을 부정하여 자주적 근대화의 의미를 아예 업신여겼다. 즉 그들은 “한국을 改하여 조선이라 칭³⁴⁾”하여 근대국가의 모습인 ‘대한제국’을 처음부터 부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유린하였다. 갑오경장 기점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문헌 고증자료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수동적이었던 정치권에서부터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오경장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일제의 한반도 근대화 과정의 역할론과 맞물려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오경장을 근대문학의 기점으로 설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 같다. 첫째, 외세에 의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둘째, 1897년의 광

33)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 강의』(한울 아카데미, 1994), p. 263.

34) 박해묵, 『반만년 조선역사』(덕흥서림, 1923), p. 253.

무개혁에서 갑오경장을 부정하여 새로이 자주적으로 개혁을 단행한 것은, 당시부터 갑오경장은 한국적인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 셋째로 역사적 사실들을 일련의 연속체로 인식할 때 갑오경장과 관계되는 사건들을 연결시켜보면 ‘임진왜침 → 1876년 함포 외교에 의한 개항 → 1884년 갑신정변 → 1894년 갑오경장 → 1905년 보호조약 → 1907년 대한민국 군대 해산 → 1910년 경술강점 → 조선총독부 설치 → 3·1독립 항쟁의 진압 → 황민화’로 되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갑오경장은 민족의 근대와 관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침탈의 한 과정이며 자주적 근대화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주적 역량을 유린하였다는 점 등이다.

다음으로 영정조 기점이 부적절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근거로 제시하는 실학사상의 발생·성장과 상공업의 발달, 문학 갈래의 다변화 등에서 근대적 일면을 찾아 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의미에서 전통적 질서 내에서의 변화를 일컫는 것으로 전통적 질서의 부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 시대를 구획할 수 있는 발전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과급되면서 가속적 확대현상을 일으켜 나가야 마땅하다. 18세기에는 사회 및 문화면에서도 새로운 풍조가 나타났음에도 전통사회가 부정되고 근대시민사회 및 시민문화를 이룩하지 못한 것은 당시로서는 여건의 미성숙이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영정조 기점의 진보적 역사 인식은 보수적·체제옹호적 한계를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자국사를 미화시키고자 하는 편협한 이기심에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역사 인식을 통하여 식민사관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역사 인식의 방법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서술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문제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18세기는 근대로 전개되는 기점이라기보다는 변화의 진폭이 앞시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18세기는 밑으로부터 강렬한 욕구에 의해 시작된 근대화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근대적 가치 개념을 갖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

다.

1860년 동학 창건 기점의 주장자들은 앞시대보다 아래로부터의 자각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문학적 사실로서 최제우의 동학가사, 최창업의 천주교 가사,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정리, 방각본 소설의 본격적인 유행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점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대로 전환하려는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한 시대의 시작이라기보다는 한 시대의 시작으로 가는 전환기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환기적 특징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환기란, 체제 중심고리의 이완과 붕괴, 이데올로기의 해체, 정신적 혼란, 난해성, 기존의 규율과 권위의 거부, 정부 차원의 강제 수단의 무기력, 무제한적 다원주의와 온갖 모순의 확산, 가치관의 위기와 같은 과도기적 성격 등으로 말미암아 무정부적 상태가 지속되는 시기이다. 이는 혼돈 상태인 무계획성과 무질서로 대변된다. 이러한 혼돈 상태는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재편성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조정 과정을 거쳐 다음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1860년에 우리가 믿고 있던 북경(北京)은 영불(英佛)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다. 또 두만강 하구의 우리 땅인 녹둔도(鹿屯島)도 연해주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청나라 이외의 또 다른 양이(洋夷)와의 국경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즉 이웃해 있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 준전시를 맞게 된 것이다. 즉 임진·병자 두 전쟁을 겪으면서 자각하기 시작한 민족의식이 또 다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아 서민에서부터 자각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1860년의 준전시적 상황, 동학 창건, 아래로부터의 욕구 분출 등 전환기적 특징을 잉태하는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한 시대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 시작으로 가는 전환기적 성격으로서의 의의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항기 기점 문제도 근대로의 전환기적 혼돈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개항시기를 근대기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개항보다 더 큰 사회학적 여건인 동학창건,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 1919년 기점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조동일은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의 제1기를 1592~1860년, 제2기를 1860~191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첫째, 이행기로 설정된 기간이 제1기와 제2기를 합쳐 무려 327년이나 된다는 점, 둘째, 과도기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셋째, 발전주의 사관과 진화론적 사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넷째, 용어 자체가 통시적·공시적 개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통시적 개념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 ‘이행기’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발전단계에 의해 단계적으로 국가가 발전한다는 개념이다. 문학의 형식이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사에서는 일정한 발전 단계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해체하고 혼돈의 시기인 전환기를 거치면서 재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³⁵⁾ 또 기미독립운동 이후 우리 민족 문학은 일제의 문화정책의 당의정에 입을 다시면서 그들에게 예속되어 갔으며, 그들이 만든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감시와 관리를 받아 온 셈이었다.

이 시기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민족의 자주적 역량이 크게 훼손되고 위축됨으로써 국가 개념을 상실하여 자주권을 박탈당했다. 민족 개념으로만 논의— 특히, 당시는 열등한 민족이거나 자기 비하적으로 인식했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미 기점론은 식민사관에서 주장하는 ‘식민지 미화론’이라든지, ‘성장 토대론’, ‘식

35) 이행기라는 용어는 또 완성을 위한 진행중이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완성이라는 말은 서구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이행기는 갈래체계가 오래 지속되었을 때는 알맞은 용어가 될 수 없다.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완성된 갈래체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지 시혜론’, ‘식민지 운명론’ 등 일본의 주장에 의해 또 다시 한국 근대문학사의 자존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역사 인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근대기점을 어디서부터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 앞서 지금까지의 논의의 한계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국가 개념이 실종되어 민족 개념에만 함몰되어 있고, 둘째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개념의 실종은 근대적 역사 서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전근대적 수사방법(修史方法)을 탈피하여 새로운 역사인식으로 국가의 독립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근대 역사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 성과의 부재로 말미암아 일본인들의 식민사관을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는 사태에 이르렀다.³⁶⁾ 결국 광무 8년(1905) 이후 반(半)식민지 상황에 이르러서는 국가 개념을 역사 서술에 개입시킬 여지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³⁷⁾ 이러한 국가 개념의 실종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완고해져 광복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되찾으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³⁸⁾

36) 김택영의 『동국역대사략』(東國歷代史略)(1899) 등. 특히 김택영의 『동사집략』(東史輯略)(1902)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순치(脣齒)관계라고까지 긍정하고 있다.

37) 국가 개념에 대하여 김윤식은 불연속적 인식의 극복 방안으로 ‘첫째, 한국사를 국가 개념의 측면보다 한민족 역사 전개 과정으로 본다면 한민족이 존속하는 한 엄연한 연속성이 놓이는 것이다. 둘째, 한민족의 역사 전개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몫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어를 통한 저항과 창조의 측면이다.’(김윤식, 『한국근대문학의 이해』(일지사, 1973), p. 107)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만 불연속성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에 국한된 문제로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과 관련한 인식 방법으로써는 적절치 못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개념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자주권을 찾기 위한 민족적 노력까지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왕조 교체와 국가체제 변천을 불연속적으로 인식하는 한계이기도 하다.

38) 일 예로 일제 강점기에 ‘3·1 만세 운동’, 또는 ‘3·1 정치 운동’으로 사용되다가 복자(伏字)를 사용한 ‘3·1 ××운동’으로, 다시 ‘3·1운동’

‘근대’라는 성격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지만, 아래로부터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민족적 역량을 모아 세계만방에 자주독립 국가임을 천명하고 외교적으로 승인을 거쳐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고 자주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근대문학도 이러한 문학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살폈듯이 자주적 역량의 역사적 사실과 외세의 침탈과정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다. 둘째, 근대기점을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만 얽매어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의 문제는 이미 살핀 바 있다. 두 번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기점 설정을 시공간적 개념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실 자체에서부터 그 시작점을 설정하는 본질개념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철은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설정하면서 “진실한 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나타난 것은 1919년초라고 생각”³⁹⁾했고, 조동일은 근대로의 이행기를 제1기와 제2기로 나누고 있으며, 김용직은 개항기를 근대기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근대시의 출현을 『태서문예신보』(1918)에서 찾고 있는 것 등이다. 또 이러한 역사적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개항기, 동학 창건, 동학 혁명, 갑오경장 등과 관련한 근대기점을 ‘개화기 기점’이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그 의의를 밝혀보지도 않고 폄하하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또 다른 역사적 사실과 연계되기 때문에 ‘개화기 기점’으로 포괄해서 인식하는 것은 역

으로 쓰도록 강요되어 강점기에 사용되었는데, 오늘날까지도 ‘3·1운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근대적 국가인 ‘대한제국’을 부정하고 봉건적 국가인 ‘조선’을 내세우면서도 국가 차원의 ‘조선’이 아닌 씨족 중심 인식인 ‘이씨조선’, 줄여서 ‘이조’로 폄하하여 사용하던 것을 오늘날까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식민사관의 극복은 국가개념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39) 백철, 앞의 책, p. 90.

사적 사실 하나 하나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근대기점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대기점으로 처음부터 인식하게 된 갑오경장 기점은 한국 근대문학사를 불연속적·타율적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이의 극복 차원에서 영정조 소급론이 대두되어 근대성과 근대기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텃으나 영정조에 이르러 패러다임의 교체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동학창건 기점과 개항기 기점인 경우에는 영정조 소급론의 등장 이후 절충적 방법으로 논의됨으로 말미암아 앞의 두 기점에 대한 충분한 극복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그 시기는 오히려 근대로의 전환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3·1독립운동 기점은 이행기라는 용어의 문제점과 민족 정체성이 크게 훼손된 시점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 근대기점의 문제는 첫째, 국가 개념의 상실, 둘째, 역사 인식에 대한 불철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기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새로운 근대기점 인식 방법

앞에서 살펴본 근대기점의 여러 한계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필자는 새로운 인식 방법에 의해서 근대 시기를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새로운 인식방법이라는 것은, 앞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한국 근대문학사의 배경과 이 배경 속에서 문학담당자들이 부딪혔던 전환기적 특성을 거쳐 민족국가의 형성에 이르는 ‘국가 개념’의 도입이며, 둘째, 시기구분의 개념을 언제부터라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닌 어떠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설정하여 순차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본질개념’의 도입이다.

이 두 가지의 새로운 인식 방법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근대 시기를 ‘대한제국’ 원년인 1897년부터 을유 광복인 1945년까지로 설정하고자 한

다. 이 근대 시기의 설정은 근대로의 전환기를 동학창건인 1860년부터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설정하는 의미와 함께 현대로의 전환기를 을유 광복부터 설정하는 의미도 있다. 앞서도 살폈지만 한 시대는 다른 시대로 바로 넘어 갈 수 있는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정부적 혼돈 속에서 가치를 재창출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질서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기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대한제국은 동학혁명 등을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거센 욕구, 대외 정세의 격변, 일본의 함포외교와 개항,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 등과의 외교 관계, 일제에 의한 갑오개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전환기적 혼란 등을 거치면서 자주적으로 탄생한 근대적 국가이다. 대한제국은 1897년 8월 광무(光武)라는 독자적인 연호의 제정과 황제 즉위, 국호제정의 과정을 거쳐 탄생되었다.

국왕의 칭호를 황제로 높여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 만국에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국호를 ‘삼한(三韓)을 아우른다’는 의미의 ‘대한(大韓)’으로 선포하고, 이 사실을 주한 각국 외교관에게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1899년에는 한청(韓淸) 통상조약의 체결로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광무년간에 시행된 일련의 사업들은 농민항쟁 등으로 폭발하고 있는 봉건 사회의 내적 모순을 제거하는 한편,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여 부국강병을 근간으로 근대화를 추진하여 외세의 침략을 일정하게 저지하기도 했다.

근대의 시작점에 있는 당시, 근대문학사의 담당자가 감당해야 했던 문학사의 배경은 앞 시대의 전환기와 다르게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즉 언론·출판 활동⁴⁰⁾을 비롯하여 학회 활동⁴¹⁾, 교육 활동⁴²⁾, 국어·

40) 언론 활동은, 1896년 『독립신문』에 이어 1910년 일제 강점 때까지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대한민보』, 『경향신문』 등을 발간하여 국권 회복, 근대적인 개혁, 국력 신장을 위한 대중 계몽, 사회 교육 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또 출판 활동은 ① 『을지문덕전』·『강감찬전』·『최도통전』·『이순신전』 등의 위인전류, ② 『이태리 건국삼결전』·『위싱턴전』·『미국독립

국문 운동⁴³⁾ 등 근대적 모습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갔다. 이러한 근대적 활동은 대다수를 이루는 아래로부터의 욕구와 ‘국가 개념’이라는 자장(磁場)을 중심으로 민족적 역량이 결집됨으로써 가능한 활동들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형성은 외세 침략을 경계하는 자주독립 활동으로 이어지고, 을사 이후 항일 의병활동, 강점 이후 독립운동, 민족적 역량을 함께 모은 3·1독립 항쟁,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국제적으로 독립을 위한 여러 방면의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에 대한 염원이 근대문학사

사』·『이태리독립사』·『법국혁명사』·『월남망국사』·『나과륜전사』·『만국사』·『로마사』 등 다른 나라의 건국이나 망국사, ③ 『憲政要義』·『법학론』·『정치원론』·『국가학』·『경제학』 등 근대 국가 설립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법률 서적, ④ 『여자독본』·『라란부인전』 등 여성 관계 서적 등을 비롯하여 ⑤ 일반 잡지와 각종 교과서 출판 등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출판 활동은 많은 출판사를 창립시켰고, 이어 서점이 성시를 이루게 되었다.

- 41) 학회 활동은 1904년 ‘국민교육회’를 비롯하여 관서의 ‘서우학회’, 관북의 ‘한북흥학회’, 호남의 ‘호남학회’, 충청도의 ‘호서학회’, 경기의 ‘기호흥학회’, 강원도의 ‘관동학회’, 경상도의 ‘교남학회’, ‘대동학회’, 그리고 ‘여자교육회’ 등이 조직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기관지를 발간하여 교육제도, 교육행정, 교육방법, 실업교육, 사회교육의 필요성, 국문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대중계몽사업을 전개하였다.
- 42) 교육활동은 교육구국 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살핀 학회와 개인에 의해 전국 각지에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1908년 통감부의 사립학교령에 의해 인가 받은 사립학교가 무려 2,200여 곳에 달하였다.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인가되지 않은 학교까지 합하면 5,000여 학교에 이를 정도로 사립학교 중심의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 43) 국어·국문운동은 1896년 『독립신문』과 1898년 『제국신문』이 국문으로 간행되었고, 『협성회회보』와 『매일신문』 등이 발간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어정리에 대한 연구서들이 많이 간행되었는데, 주시경이 쓴 『大韓國語文法』(1906)을 비롯하여 『國語文典音學』(1908)·『國語初學』(1909)·『國語文法』(1910), 지식영의 『新訂國文』, 이능화·최광옥의 『國文一定意見』 등이 발간되었다.

또 『턴로역정』의 역자 게일(Gale, James Scarth)에 의해서 최초의 한영사전인 『Korean-English Dictionary』(1897)가 편찬 발행되기도 하였다.

의 배경을 이루었다.

3·1독립 항쟁 이후 문학담당자들은 일본을 극복의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는 문학 담당층들의 정신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하여 정신적 지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3·1독립운동 직후의 우울의 정서도 독립운동의 실패라는 포기적 정서가 아니라 국가의 독립운동 방법을 제대로 모색하지 못하는 딜레마적 정서와 결합된 것이다., 신경향과 문학을 비롯한 프로문학 그리고 민족주의 문학 등도 국가의 독립을 위한 힘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활동이었다. 또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서 그 동안 배제되었던 의병가사를 비롯한 망명지 문학이나 유민문학 등도 이 ‘국가 개념’의 자장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의 구체적인 문학적 사실로는 1895년 『턴로역정』과 『유옥역전』이 번안된 이후에 생산되는 역사소설·전기소설·토론체 소설 등의 서사문학과, 1896년 『황제탄신경축가』라는 합동찬송가 이후 생산되는 애국독립가·개화가사·창가 등의 시가문학이다.

서사문학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집단적 가치로서의 ‘민족의 발견’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적 가치로서의 ‘자아의 발견’이다.”⁴⁴⁾ 이러한 관점은 “당시 민중들을 동학혁명과 의병운동 등 반제·반봉건의 민족운동을 이끈 동인”과 “개인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사고의 전환”⁴⁵⁾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과 ‘자아’의 발견은 그때까지의 경직되었던 세계관과 인간관을 변모”⁴⁶⁾시켰으며, 이러한 정신사적 변화에 상응하는 문학으로서 전환기의 판소리 사설 정리와 방각본 소설의 본격적인 유행 등의 전통을 계승하여 역사소설·전기소설·토론체 소설 등이 창작되었다.

또 이 시기의 시가 문학은 “고정적인 율격의 정형시를 탈피하고자 하는 모색과 시도”⁴⁷⁾가 있었으며, 근대 이전의 전통 율격을 탈피하는 구체

44) 문성숙, 『개화가소설론 연구』(새문사, 1994), p. 8.

45) 위와 같음.

46) 위와 같음.

47)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 시가 연구』(국학자료원, 1996), p. 23.

적 사실로서 찬송가와 창가 양식이 등장했다. 이 찬송가 등은 “외국문학의 영향을 받아 전환을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그 외국 시가의 거센 영향 속에서도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재창조하려는 나름대로의 지속적인 실험을 시도한 것 또한 변화의 주요한 요인”⁴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와서 전통적인 시가들이 전환기의 동학 가사와 천주교 가사 등의 영향으로 형태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구성적인 측면, 형상적인 측면에서 변모하는 애국독립가·개화가사·창가 등이 창작되었다.

이 서사문학과 시가문학은 문학의 양식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리얼리즘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들에서는 언문일치의 구어체 문장 실험, 문학담당층의 대중화, 언론·출판 등 매스미디어의 다변화로 문학사회학이 근대적 모습으로 성립하고 있음을 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사회학적 특징은 패러다임의 교체에까지 이른 것으로 근대로의 전환기 형태와는 그 내용과 형식면 모두에서 사뭇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전환기적 혼란을 경험한 후 ‘국가 개념’이 정신적 지주로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사적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기점에 있는 문학적 경험이 축적·성장하면서 서구적 문학 양식을 받아들여 내용과 형식면 모두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문학사회학은 언론·출판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방각본과 같은 목판인쇄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기술을 도입한 대량 인쇄 방법은, 문학은 물론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근대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에서 새로운 근대기점 인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새로운 근대기점 인식 방법의 이론적 전제는 첫째, ‘국가 개념’의 도입이며, 둘째, ‘본질 개념’의 도입이다. 이 인식 방법에 의하여 대한제국 원년부터 을유 광복까지를 근대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근대 시기는 동학창건과 대외 정세의 격변으로 시작되는 근대로의 전환기와 을유 광복 이후의 현

48) 위와 같음.

대로의 전환기 사이에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시작점에는 언론·출판 활동, 학회 활동, 교육 활동, 국어·국문 활동 등 근대적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근대문학사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국가 개념의 자장을 중심으로 민족적 역량이 결집된 결과였다.

문학적 사실로는 역사소설·전기소설·토론체 소설 등 서사문학과 애국독립가·개화가사·창가 등 시가문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환기의 ‘관소리 사설 정리’, ‘방각본 소설의 유행’, ‘동학 가사’, ‘천주교 가사’ 등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으며, 서구적 양식을 수용하여 한국 근대문학을 발전시키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문학 사회가 근대적 모습이 성립되어 패러다임의 교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학의 ‘근대성’, ‘근대기점’, ‘여러 근대기점의 문제점’, ‘새로운 근대기점 인식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성’은 내재적 관점에서는 타설적 형식의 쇠퇴와 자설적 형식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이념과 관념’보다 ‘감각과 개성이 강조’되는 문학적 형식에서 찾았다. 외재적 관점에서는 ① 신분제도의 혼란·경제구조의 변화·실사구시의 성립·인간평등 자각, ② 인간주의·과학적 합리주의·인격의 자율 등에서 인식하였다. 그리고 복합적 관점으로는 ① 산문 형식·서구적 장르·시민정신의 내용·사회경제의 발달상, ② 인쇄산업과 사실주의 발달·사회적 여건의 성숙, ③ 국문문학·소설문학·민족문학·시민문학, ④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민족의식의 성장·민족 공통어의 형성 등에서 근대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주적 민족의식을 성장 발전시켜온 주체인 민족이 근대문학사의 담당자이며, 민족의식을 성장시켜온 대내외적 여건이 근대문학사의 배경이라는 확대 해석의 논리를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근대성은 민족 의식을 이루는 패러다임의 교체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그동안의 인식 방법을 전환시킬 방법을 제기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다.

둘째, 갑오경장 기점, 영정조 기점, 동학 창건 기점, 개항기 기점, 기미

기점 등을 중심으로 근대기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소위 영정조 소급론이 대두되기 이전의 논의들은 체계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식이라기보다는 소박한 수준에 머문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정조 소급론 이후 여러 기점론이 등장하지만, 소급론의 논리적 차원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셋째, 근대기점 논의의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갑오경장 기점은 한국 근대문학사를 불연속적·타율적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영정조 소급론은 패러다임의 교체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동학창건 기점과 개항기 기점인 경우에는 영정조 소급론의 논리에 대한 극복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3·1독립운동 기점인 경우는 이행기라는 용어의 문제점과 민족 정체성이 크게 훼손된 시점이라는 한계를 각각 지니고 있었다.

넷째, 새로운 근대기점 인식 방법에서는 ‘국가 개념’과 ‘본질 개념’을 도입하여 대한제국 원년부터 을유 광복까지를 근대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의 시작점에는 언론·출판 활동, 학회 활동, 교육 활동, 국어·국문 활동 등 근대적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근대문학사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문학적 사실로는 역사소설·전기소설·토론체 소설 등의 서사문학과 애국독립가·개화가사·창가 등의 시가문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사회가 근대적 모습이 성립되어 패러다임의 교체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근대성과 근대기점의 문제가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상에 어떻게 실천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특징

이제까지 서술된 한국 근대문학사들은 타율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관념성의 문제를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극히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기존 문학사를 도식적으로 재단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살핀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에 따른 다섯 시기를 결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에 해당하는 문학사들은 타율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관념성 등에 의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제2기의 문학사에 와서 자율성과 연속성에 의한 서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제3기 문학사에 이르러 고전 문학과 현대문학을 하나로 이어주는 통사가 서술되었다. 제4기 문학사에 이르러 실천성에 대한 논의가 자유로웠으며, 분단시대의 문학사 인식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상의 특징에 대하여 크게 ‘타율성과 자율성’, ‘불연속성과 연속성’, ‘관념성과 실천성’ 등을 상징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1) 타율성과 자율성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특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이다.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역사상과 깊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새로이 서술되는 문학사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문학사 인식의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한국 근대문학이 자체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성장한다는 인식과 사회문화의 힘인 타율

1) 문학사 서술 시기에 있어서 먼저 일어났던 인식 방법을 좇아 ‘자율성’에 앞서 ‘타율성’, ‘연속성’에 앞서 ‘불연속성’, ‘실천성’에 앞서 ‘관념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에 의해 성장한다는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근대문학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했다는 자생론적인 자율적 인식과 외국문학의 영향에 의해 성장했다는 전과론적인 타율적 인식이다. 전자는 문학사 서술의 시대구분에서 일반사 시대구분 방법에 의존하여 시대를 명명하고 구분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후자의 경우는 영향사의 문제로 이식문학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실천성의 문제(Ⅲ-1-3)관념성과 실천성)와 시대구분 문제(Ⅳ-1.시대구분에 따른 서술)가 관련되는 것으로 해당 항목에서 살펴보고, 이 부분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근대문학이 외국문학의 영향에 의해 성장했다는 타율적 인식과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했다는 자율적 인식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타율성과 자율성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자율성의 문제는 주체성(autonomous spirit)과 결부되어 동일체 의식을 포함(sense of identity)하며, 그리고 자주성과 자립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이는 정체성(identity)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이와 유사 관계에 있는 언어들로 부정적인 측면의 배타적, 국수적이라는 언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상에 있어서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는 제1기 문학사(1922~1972)에서는 타율적으로 인식하다가 제2기 문학사(1973~1981)에 와서 자율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서구문학의 형식적 측면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이는 한국 근대문학이 스스로 성장할 능력이 부족하여 일제를 통하여 서구적 양식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다고 본다면 타율적 인식이고, 우리 민족의 근대화 과정에서 문학적 욕구의 다양화로 말미암아 장르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어 능동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보면 자율적 인식이다. 전자는 전근대적인 문학을 업신여기는 불연속적 인식의 근간이 되며, 후자의 경우는 전근대적 민족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능동적 수용이라는 연속적 인식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이 타율성과 자율성에 대한 그 동안의 서술 실태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타율적으로 인식하여 서술하고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타율성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상에서 타율적으로 인식한 대표적인 인물은 임화를 들 수 있으며, 백철, 조연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新文學史 研究는 西歐的 形態의 文學이 成立하고 發展한 歷史를 中心으로 可能”²⁾하다는 임화의 타율적 인식은 ‘한국 문학의 식민지성’, 혹은 ‘주변문화성’을 드러내어 “여말·선초의 사대부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경사를 생각해 할 정도”³⁾로 서구 지향적 태도에서 드러난다.

조연현도 한국 근대사의 전개 과정을 ‘기형성’에 두고, “그 하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한국엔 「근대」가 없었다는 점이며 그 또 하나는 한국의 현대적인 과정을 엄밀히 분석하면 그것은 구라파의 근대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⁴⁾”을 내세워 식민사관의 하나인 봉건부재론과 같은 근대 부재론적인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근대사적인 과정은 그 출발과 함께 구라파의 현대적인 과정과 교류”⁵⁾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사 과정은 ‘근대’와 ‘현대’가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없어 “한국 근대사의 후진성과 기형성을 설명해 주는 기본적 개념⁶⁾”으로 설명함으로써 ‘아시아적 정체성’이라든가, 식민지 시혜론, 또는 식민지 문명론적인 인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문예사조의 혼란상과 착란은 특수한 근대적 과정의 일반형으로서

2) 임화, 「개설 신문학사」(5)(『조선일보』, 1939. 9. 9).

3) 김윤식·김현, 앞의 책, p. 14.

4) 조연현, 앞의 책, pp. 24~25.

5) 위의 책, p. 26.

6) 위와 같음.

정확하게 말하면 ‘혼란과 착란의 현상’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적 현상’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러한 혼란과 착란의 원인은 주로 한국의 근대적인 자각과 출발의 시간적인 후진성과 공간적인 미숙성에서 기원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2, 3세기나 앞선 구라파의 근대적인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우리의 근대적인 출발은 이미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던 것이며 그것을 그대로 소화하기에는 우리의 근대적인 전통이 아직도 공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시간적인 후진성과 공간적인 미숙성은 한국의 근대적 과정을 구라파의 축소판이나 그 보형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갖게 하였다.⁷⁾

이를 요약 제시하면, ‘한국 근대문학사의 과정에서 야기된 문예사조의 혼란상은 한국적 현상이며, 그 원인은 한국의 근대적인 자각과 출발의 시간적인 후진성과 공간적인 미숙성에 있으며, 이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구라파의 축소판이나 그 보형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타율적 인식의 출발점을 김윤식과 조동일은 『독립신문』에서 찾고 있다. 김윤식은 ① 철저히 외국인 위주라는 의도적 측면과 근본적으로 발간자의 서구 편향을 철저히 보여준다는 사상적 측면이 문제성을 띠는 것, ② 군주 중심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할 것, ③ 이 신문의 자강독립 사상은 거의 직선적인 사상이고, 이 개화 사상은 현저히 기독교적이라는 것, ④ 이 신문이 주장한 국문체는 마치 영어문장의 번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에 가장 저항이 덜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⁸⁾

또 조동일은 『독립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창가를 예로 들어 “창가는 문제나 갈등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이미 공인된 주장을 내세우는 노래이므로 단순하고도 낙관적인 발상에 머물렀다. 군주에 대한 충성을 근간으로 해서 백성은 본분을 지키고 밖으로의 개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한 주장도 문제려니와, 그 둘 사이의 균형이 깨어진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

7) 위의 책, p. 331.

8) 김윤식·김현, 앞의 책, pp. 85~87.

진 한계를 나타냈다.”⁹⁾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예로 1896년 8월 1일자 박기림의 <애국가>¹⁰⁾, 1896년 5월 9일자 이필균의 <애국가>¹¹⁾, 1896년 5월 26일자 이중원의 <동심가>¹²⁾ 등을 제시했다. 이들 내용은 문명국이 침략을 일삼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인식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전통적인 교육의 의의와 지난 시기의 역사를 일거에 부정하는 자기비하의 사고방식을 나타냈으며, 개화의 의의를 일방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민족의 주체적인 역량을 인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하였다.¹³⁾ 즉, 이러한 『독립신문』의 한계가 우리 문학 전반에서 타율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또 이재선은 현대소설의 확립과 정착을 위해서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구문학의 수용과 이해가 불가피했으며, 외국문학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문예사조의 혼류’로 지적될 만큼 사조적인 번잡성을 띤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수용과 이입 그 자체가 결코 터무니없거나 무익한 것은 아니었던 것¹⁴⁾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타율적 인식을 다소 탈피한 반(半)자율적 인식 방법이다. 그는 이러한 인식 방법을 통하여 수용과 이해의 측면에서 문예사조의 혼류 등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타율성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보다 깊은 곳, 즉 심층에서 작용하는 힘(forces profondes)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타율적 인식은 우리 문학사를 떠받쳐 주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하부구조(infra structure)인 장기지속적인 역사(l’histoire de longue durée)는 물론, 한국 근대문학사를 이루고 있는 복잡계(complex system)에 대한 이해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학사를 이식문학사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문학사의 표면만을 살핀 결과라 할 것이다. 문학사는 표면보다는 심층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인식의 전

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4권(지식산업사, 1989), p. 256.

10) 「아메리카 후후 풍속 영길리국 부강훈 법」

11) 「교혹히야 기화되고 기화히야 사름 되네」

12) 「잠을 찌세 잠을 찌세 스천년이 꿈속이라」

1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4권, p. 256.

14) 이재선, 앞의 책, p. 218.

환 없이는 타율성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타율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 근대문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근대문학이 스스로 성장할 능력이 부족하여 일제를 통하여 서구적 양식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인식은 임화로부터 시작하여 조연현 등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윤식과 조동일은 이러한 타율적 인식의 출발을 『독립신문』에서 찾고 있고, 이재선은 반(半)자율적으로 인식하여 수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타율적 인식은 근대문학사의 표면만을 살핀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사의 심층에 작용하는 힘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타율적 인식의 틀에서 인식의 전환을 이룬 자율적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율성



한국 근대문학사의 자율적 인식은 타율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앞 시대의 문학이라는 토양을 근간으로 성장했다는 방법론적 문제이다. 그동안 타율적 인식에 젖어 있던 문학사 인식방법은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1973)에서 새롭게 문제로 제기되어 자율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율적 인식의 핵심은 한국문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자체의 욕구와 시대적인 추이에 의하여 서구 문학의 형식을 받아들였던 것이지, 결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학사 전개 과정에서 문학 담당자들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이러한 욕구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연속적 인식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자율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였다.

김현은 『한국문학사』(1973)에서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모든 것은 구라파식의 역사발전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 중세, 근세의 역사적 3분법, 근대주의 등의 모든 학문적 근거는 진보라는 개념에 입각해 있다. (...) 후진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보란 항상 서구화만을 의미하게 된다. (...) 진보를 서구화라는 개념으로 한정시킬 때, 그 의식은 서구문명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의미망이 중요시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의미망의 총체적 표현을 무어라고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집적물로서 구라파식 진보의 개념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망을 구축해 내는 작업이다.¹⁵⁾

즉,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진보와 서구화, 서구문명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타율성에서 벗어나 진보의 개념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의미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 확보에 대한 의지의 실현은 여러 방법에서 한국 근대문학사상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학사 서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는 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 김현은 『한국문학사』(1973)에서 한국시의 근대성과 관련하여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국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시 형식을 찾는다는 어려운 문제와 씨름”¹⁶⁾했다면서, 그 새로운 시 형태에의 욕구는 첫째로 다시 시조에 버금할 수 있는 새로운 정형시를 찾아내야 하겠다는 욕구, 둘째로 시를 거의 완전히 해체해 버리려는 대담한 욕구— 자유시와 그것의 한 극단적인 형태인 산문시 —가 있었다고 서술하였다.¹⁷⁾ 즉, 김소월·한용운·이상화는 식민지 초기에 한국시가 짊어진 두 가지 과제를 자기 나름으로 성실하게 해결하려 한 시인들이며, 이들은 서구적 양식으로서의 시 형식이 아닌, 시조와의 관련하에서 새로운 시 형식을 탐색했으며, 해체적 형식의 산문시를 추구했다고 하면서 자율적 성장론을 주장했다.¹⁸⁾

15) 김윤식·김현, 앞의 책, p. 12.

16) 위의 책, p. 144.

17) 위와 같음.

또 자연주의 이론에 대해서도 그는 “서구의 자연주의 이론을 원래의 생성 형태로 환원시키고, 그 과정을 지금의 시점에서 해석하여 한국의 자연주의를 그 종속유파로 이해하지 않고, 당대의 역사적 문맥을 이루는 하나의 기호로 파악¹⁹⁾”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서구 자연주의와 한국자연주의의 차이를 밝히는 대신에 정신의 변모 과정²⁰⁾”을 살펴 “서구의 자연주의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발견한 것처럼 한국의 자연주의가 발견한 것²¹⁾”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가능하다면 염상섭의 자연주의론을 다른 명칭, 가령 한국자연주의라든지 개성주의²²⁾”라는 것으로 붙여두자고 제안한다. 모든 위대한 작가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 역시 이론을 훨씬 뛰어넘는 걸작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그는 서구 이론에 의존해서 한국문학사의 전개과정을 해석하려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재선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반자율적(半自律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는 한국소설사에 있어서 인식론적인 전환의 모색 단계²³⁾”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한국소설에 있어서의 리얼리즘은 십 팔구 세기의 작가들에게서 비롯된 모색이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서구문학의 인식방법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심미적인 시민 작가들에 의해서 비로소 성숙하게 되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시대정신적 의지와 표현 양식 내지 기법적인 새로운 가능성이 확고하게 균형을 이루는 소설의 근대적인 리얼리즘은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²⁴⁾

즉 “십 팔구 세기에 있어서의 실학사상을 토대로 한 현실 비판 의식

18) 위의 책, p. 153.

19) 위의 책, p. 155.

20) 위와 같음.

21) 위와 같음.

22) 위와 같음.

23) 위의 책, pp. 37~38.

24) 위의 책, p. 42.

의 대두와 서민적 희극성에서 비롯된 우리의 사실주의는 서구문학의 여러 표현 방법과 태도를 수용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근대적인 사실주의로 성장하게 된 것”²⁵⁾으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십 팔구 세기의 실학사상의 정신 풍토나 서민의식을 계기로 현실인식의 기반을 형성시키기 시작”²⁶⁾하였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예술 형태로서의 근대적 사실주의의 미학이 확립”²⁷⁾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화기²⁸⁾ 소설을 신소설이 대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신소설로써 개화기소설이 전적으로 대표될 수는 없다. 이와는 전혀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 소설의 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우리의 allegory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소설 형식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국선의 「금수회의록」과 장지연의 「애국부인전」(1907)이 그것이다. 전자는 동물을 매개로 한 동물 우의 소설이며, 후자는 역사적 우의법을 채택한 역사전기소설이다. 이 두 개의 전기소설은 당대의 自保的인 반어의식을 대표한다.²⁹⁾

즉, 우화 형식을 빌린 「금수회의록」과 역사적 우의법을 빌린 「애국부

25) 위와 같음.

26) 위와 같음.

27) 위와 같음.

28) ‘개화기 문학’라는 용어는 조연현이 「개화기 문학 형성고」(1966)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최원식은 『한국 근대소설사론』(창작사, 1986)에서 말하고 있다. 이 개념은 문호를 열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시기의 문학이라는 내용으로 문학사적 성격을 왜곡·변질시킬 우려를 갖고 있다. 즉 이러한 개념의 저변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부정하는 인식 태도, 서구화를 선망하는 인식 태도, 당시 일본의 대한국 정책에 대한 우호적 인식 태도 등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계몽주의자들이 안고 있던 한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화기’라는 용어는 앞 시대를 ‘미개화기’로 규정하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도 하다.

29) 이재선, 앞의 책, p. 175.

인진』에서 제국주의 침탈에 저항하는 독특한 형식을 찾아내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형식은 문학사의 연속적인 의미와 자율적 성장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 이재선은 역사 전기문학 형태에 대하여 ① 역사를 이해하는 교훈적인 매개 기능 이상으로 저항문학의 특수 형태가 지닌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란 외의(外衣)를 입고 있으나 의도는 민족적인 저항력을 상승시키려는 것, ② 민족의 영웅들이 투쟁을 수용하고 찬양하는 것은 역사적·정치적 환경과의 유사성 즉 경험 문법의 보편적 상관성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 해결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 것, ③ 과거 역사의 객관적인 진실을 통해 자기 인식과 자신뿐만 아니라 당대의 역사적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는 정신을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³⁰⁾ 등으로 역사 전기문학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의 관련하에 설명하여 그 동안 타율적 인식에서 신소설을 우위에 두고 인식하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자율적 인식의 틀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자율성의 문제는 그 동안 연속성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그 논리가 제대로 체계를 이루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자율성의 문제는 문학 담당자인 우리 민족과 문학사의 배경인 시대·사회적 문제와의 관련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서구 문학의 수용이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지속적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를 떠받쳐주는 복잡계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1기 문학사에서 타율적으로 인식하다가 제2기 문학사에서부터 이를 극복하여 자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는 주체성과 정체성의 문제로 서구문학의 형식을 받아들여 근대문학을 개척한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방법에 있어서 문학사의 역사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즉, 한국 근대문학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일제에 의해 성장했느냐, 아니면 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30) 위의 책, p. 177.

문학적 욕구의 다변화에 의해 능동적으로 서구적 양식을 받아들여 근대 문학으로 발전시켰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2) 불연속성과 연속성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에서 타율성의 문제 다음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불연속성의 문제이다. 자율성과 타율성이 근대문학의 주제적 자세와 관련되는 문제라면, 불연속성과 연속성은 앞 시대 문학적 전통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역사 인식 이론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에 있어서 앞 시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다. 전자는 역사란 분절되지 않는 연속성과 다소의 불연속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를 분절하여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시대구분 방법에 크게 작용하는 문제이다. 후자는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방법에 있어서 근대문학이 앞 시대의 문학을 이어받아 발전시켰느냐, 아니면 앞 시대 문학과 관계없이 새롭게 시작되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앞 시대 문학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고 보느냐, 아니면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보느냐의 문제로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하는 방법적 문제이다.

전자는 역사 인식의 일반론으로 시대구분<II-4-1>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며, 이 부분에서는 후자의 경우인 한국 근대문학사와 앞 시대 문학과와의 관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인식하여 서술되고 전개되었는가를 검토하고, 그 방법적 문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근대문학사를 불연속성에 근간을 두고 서술한 경우는 제1기 문학사 대부분이며, 이의 대표적인 문학사가는 임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백철, 조연현 등이 임화의 이식문학론을 뒷받침하는 문학사를 서술했다. 그러나 제2기 문학사가 등장하는 70년대에 들어 불연속성의 문제가 깊게 논의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김윤

식·김현의 『한국문학사』(1973)와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1981)에 와서 이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불식되었다.

(1) 불연속성

불연속성의 근간은 문학적 현상의 전이·변화 또는 이전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장르·미적 규범과 같은 것이 해체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새롭거나 다른 형태의 것으로 산출되는 현상으로 주로 ‘轉移의 양식’이며, 독창성의 개념에 근거한 ‘반대의 미학’(aesthetic of opposition)이다.³¹⁾

이 불연속성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한 대표적인 인물은 임화이다. 그는 “近代文學이란 單純히 近代에 卍워진 文學을 가리킴이 아니라 近代的 精神과 近代的 形式을 가춘 質的으로 새로운 文學”³²⁾으로 규정했다. 시조, 가사, 운문소설, 한시 등은 현대에 이르도록 전통적 문학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들은 오직 현대에서 볼 수 있는 “舊時代文學의 若干의 遺制에 不過”³³⁾한 것으로 그 의의를 평가 절하하였다. 이렇게 문학사 서술 당시에 서구적 장르 형식과 혼류하고 있던 전통적 문학 장르인 시조, 가사, 운문소설, 한시 등에 대하여 ‘구시대 문학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임화는 근대문학에 대한 불연속적 인식의 근간을 ‘언어’, ‘저널리즘’, ‘소설의 형식’에 두고 있다.

그는 “우리 新文學은 長久한 동안 自己 文學을 支配하고 있던 外國語 [한문]³⁴⁾로부터의 解放의 結果 / 우리 新文學은 이러한 意味에서 言語 形式 內容 全部가 在來의 文學으로부터의 飛躍”³⁵⁾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문문학에 대하여는 구시대 유제로 밀어냄으로써 신문학과 차별화하여

31) 이재선, 앞의 글, p. 119.

32) 임화, 「개설 신문학사」(4)(『조선일보』, 1939. 9. 8).

33) 위와 같음.

34) []는 필자 주. 이하 같음.

35) 위와 같음.

한국 근대문학을 불연속성의 바탕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언어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을 인식함에 있어 청나라와의 관계 청산과 전통문화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나라와의 관계 청산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이며, 전통문화의 부정적 인식은 자국 문화의 열등 의식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저널리즘의 발달과 관련하여 “朝鮮의 「씨-내리즘」은 다른 新文化와 가치 移植文化의 하나로 朝鮮社會의 文明開化와 新文化의 形成上 莫大한 意義”³⁶⁾가 있음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는 發達한 印刷技術과 大量生産의 能展을 基礎로 한 「씨-내리즘」 本來의 技能上으로 보아 新文化의 移植과 普及에 잇서 學校教育과 더불어 가장 威力있는 文化形態이었던 點이다.

둘째는 文化의 大衆化와 人民大衆의 文化에의 參與를 本來의 技能으로 하여 타고났던 「씨-내리즘」인 만큼 小數人에게만 適用되는 漢文 대신 大多數 人民에게 解讀될 言文으로 表現手段을 삼지 아니할 수 업섯던 點, 卽 現代 朝鮮言文 開拓과 發達上에 끼친 功績이다.³⁷⁾

즉, 저널리즘의 발달은 신문화 이식의 보급화와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여 조선 언론을 개척하는 데에 공적이 크다는 것이다. 또 소설에 대하여 “我韓은 由來 小說의 善本이 無호야 國人 所著는 九雲夢과 南征記 數種에 不過”³⁸⁾하고 “國文小說은 所謂 蘇大成傳 蘇學士傳이니 張風雲傳이니 淑英娘子傳이니호는 種類가 閭巷之間에 盛行호야 匹夫匹婦의 菽粟茶飯을 供호니 是는 皆 荒唐無稽호고 淫蕩不經”³⁹⁾하여 본받을 바가 없으며, “人心을 蕩了호고 風俗을 壞了호야 政教 [正教]와 世道에 關호야 爲[害]不淺호지라”⁴⁰⁾이 알지 않다고 『서사건국지』의 서문을 인용하고

36) 위의 글(24)(『조선일보』, 1939. 10. 25).

37) 위와 같음.

38) 임화, 「신문학사」(5)(『조선일보』, 1939. 12. 12).

39) 위와 같음.

40) 위와 같음.

있다.

또 그는 『은세계』에 대하여 첫째, 일본의 신소설이나 서구의 장편소설 처럼 인생을 객관적 태도에서 보려했고, 둘째, 모티브나 구조에 있어서도 전혀 구소설의 면영(面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셋째, 구소설의 유형을 파괴한 작품이고, 넷째, 권선징악의 낡은 소설의 방법에서 해방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소설사에 있어 낡은 전통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이며 새로운 기원이 건립된 작품⁴¹⁾이라는 것이다. 또 신소설에 대하여는 “政治宣傳이나 敎訓啓蒙인 것보다 새 文學의 誕生으로서의 意味를 갖는다.”⁴²⁾라고 했고, 신소설은 “舊小說에 比하여 如何間 새로운 時代의 文學이오, 自己의 時代를 가진 文學”⁴³⁾임을 내세워 앞 시대 문학적 유산과의 단절적 인식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임화에 이어 불연속적으로 한국 근대문학을 인식하고 있는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1956) 서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본저의 제명을 『한국현대문학사』라고 한 것은 엄밀히 따진다면 서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근대적인 과정이 우리의 역사속에 없었기 때문이다. 갑오개혁이 우리의 근대적인 그 최초의 출발이었던 것은 확실하나 그러한 우리의 근대적인 발족은 곧 우리의 현대적인 과정과 혼류되어졌던 것이었다.⁴⁴⁾

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우리 역사 속에는 ‘근대’가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갑오개혁이 ‘근대’의 출발이었지만 이는 근대라기보다 현대적인 의미와 섞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나의 문학에 대한 애정은 서구문학에서부터 생겨진 것”이며, “내가 우리의 문학에 특별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본저를 착수한 다음부터의 일”임을 고백하였다.⁴⁵⁾

41) 임화, 「속 신문학사」(9)(『조선일보』, 1940. 2. 15).

42) 임화, 「개설 조선신문학사」제3회(『인문평론』, 1941. 2).

43) 위의 글, 제4회(『인문평론』, 1941. 4).

44) 조연현, 앞의 책, p. 3.

이것은 한국 문학을 서구적인 시각에서 보았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그는 한국의 근대에 대하여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근대’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한국의 현대적인 과정도 구라과적인 ‘근대’와 ‘현대’가 명료한 구분없이 혼성되고 병행된 것으로 보고, 이것이 한국근대사의 후진성과 기형성을 설명해주는 기본적 개념⁴⁶⁾이라 하였다. 한국의 근대사 과정을 서구적 관점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를 ‘후진성’과 ‘기형성’으로 폄하하였다.

김윤식은 임화와 조연현이 불연속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 자체에서 연유된다. 둘째, 1910년대 새로운 문학을 시작한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한국 문학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26년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후로 볼 수 있다. 넷째, 식민지 기간 중의 한국 신문학은 그 내용상 노예성과 저항성과 창조성이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 문학이 평민 문학과 양반 문학의 이원성보다는 매우 다른 요소가 스며 있음을 들 수 있다.⁴⁷⁾

이런 지적과 더불어, 김윤식은 그 근간을 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한국은 국가 개념을 상실하고 민족 개념만이 존속되어 국가 개념의 연속성을 상실하였으며, ② 계몽주의(enlightenment)적 이데올로기의 강력성과 유교 극복 방식의 과격성이 있었으며, ③ 고전 중에서도 가급적 한글로 표기된 것을 한국 문학의 정통으로 잡고 연구하는 한글 결벽증이 있었으며, ④ 고전문학이 중국 문화권의 영향하에 있었다면 신문학은 일본 및 서양 문학의 영향권에 놓였기 때문에 신문학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⁴⁸⁾

그러면서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첫째, 한국사를 국가 개념의 측면보다 한민족의 역사 전

45) 위의 책, p. 5.

46) 위의 책, p. 26.

47)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의 이해』(일지사, 1973), p. 107.

48) 위와 같음.

개의 과정으로 본다면 한민족이 존속하는 한 엄연한 연속성이 놓이는 것이다. 둘째, 한민족의 역사 전개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몫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어를 통한 저항과 창조의 측면이다. 셋째로 우리가 살펴두어야 하는 점은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형성된 한국 문학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그 특성은 한 마디로 민족문학이라는 용어 속에 집약된다. 넷째, 한국 문학을 하나의 연속적인 단일개념으로 볼 때 고전에서 현대 까지를 동일한 차원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⁴⁹⁾

이렇게 한국 근대문학사를 불연속적으로 인식하는 데 따르는 극복 방안을 제시하면서 불연속적 인식의 시작에 대하여 이광수의 과거 혐오증과 새 것 콤플렉스⁵⁰⁾, 그리고 임화의 일본을 통한 왜곡된 서구편향⁵¹⁾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조동일은 불연속적 인식의 시작을 이광수와 최남선부터라고 보았다. 그는 이어서 1910년 3월에 나온 『대한홍학보』 제11호에 이광수가 이보경이라는 이름으로 낸 「문학의 가치」의 내용을 들어 “동양은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고장이라 풍요로운 곳인 서양만큼 문학이 발달하지 못했다 하며 동양을 낮추고 서양을 높이는 대비법을 제시했다. 문학을 유희로 여기는 구습에서 벗어나 서양의 경우처럼 ‘가장 沈重한 態度와 精密한 관찰과 深遠한 想像으로 心血을 灌注하는’ 것이 새로운 문학이라고 했으니, 서양을 최대한 미화하는 단순논법으로 문학을 논하는 태도가 여기서

49) 위와 같음.

50) 김윤식·김현, 앞의 책, p. 117. 민족개조는 ‘과거의 것은 모조리 나쁜 것이라는 과거 혐오증과 새로운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새 것 콤플렉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개조란 과거의 것에 대한 혐오와 새것에 대한 동경의 복합어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개조의식은 그러므로 과거의 것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한다.

51) 위의 책, p. 168. 시집 『현해탄』을 들어 “이 시집은 식민지 시인의 정신구조를 살피는 데 매우 상징적”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현해탄 콤플렉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식민지 지식인의 일본을 통한 왜곡된 서구편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새것 콤플렉스’와 ‘서구 편향’이 한국 근대문학사를 불연속적으로 인식하는 근원으로 보았다.

비롯되었다.”⁵²⁾고 지적했다. 최남선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율격 및 그 변형 원리를 이중으로 파괴하고, 일본 모형의 정형시와 일본을 거쳐 받아들인 서양시 모형의 자유시를 이식하고, 그 중간물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형식도 만들어냈으니, 어느 모로 보거나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⁵³⁾으로 평가했다.

또 조동일은 이러한 불연속적인 인식의 출발을 일본 유학생들이 한계에서 찾고 있다. 즉,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서양문화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받아들이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를 단순화하고 규범화하는 폐단을 익혀 문단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인을 따를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너무나 뒤떨어졌다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학업을 끝내지도 못하고 돌아와 우리 근대문학이 기형적인 이식문학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국 근대문학사의 성립과정의 한계를 밝혔다.⁵⁴⁾

그리고 이러한 1920년대의 불연속적 인식의 배경을 임화의 「개설신문학사」(<조선일보>, 1939. 12. 5~27)와 「조선신문학사」(『인문평론』, 1940. 11)의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임화의 서술 내용에 대하여 ‘① 한국 근대문학이 이식문학이라는 전제를 확고하게 했다. ② 아시아적 정체성 때문에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서양의 근대를 이식해야 할 운명을 지녔다는 주장으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동안에 이루어진 축적을 일거에 부정하고 있다. ③ 실학시대에 근대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중국에서 받아들인 서양 영향의 여파이므로 중국 근대화의 한 연장일 따름으로 보았다. ④ 아세아적 정체성 운운하는 말로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듯한 거동을 보이면서 서구에 대한 열등의식을 나타내어 우리 역사의 발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사관을 추종하였다.’고 봄으로써 불연속적 인식의 배경을 내세웠다.⁵⁵⁾

5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4권, pp. 212~213.

53) 위의 책, pp. 408~409.

5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5권, pp. 38~39.

55) 위의 책, pp. 236~237.

그는 또 이러한 불연속적 인식에 대하여 당대의 문학에 대한 비평이 활기를 띠고 있는 동안에 신문학 이전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아주 감퇴되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어떤 문학이 있었는지 몰라도 작가가 되고 비평가가 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것들은 어찌다가 폄하의 대상으로나 언급되었다고 주장했다.⁵⁶⁾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교육과정상의 문제로 보고, 국문학 고전에 대한 교육은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어디에서도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경성제국대학(1926)의 조선문학 전공에서는 전공자가 아닌 일본인 교수가 식민지학의 일환으로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국문학 고전을 논하고 국문학사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으며, 그럴 만한 사람도 없어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일반론이나 문학의 당면과제에 대한 비평이 전통과 연결되지 않고 빗나갔다고 식민지 시대의 한계를 주장했다.⁵⁷⁾

『한국근대민족문학사』(1993)에서 오성호는 김억·황석우·주요한·박영희·박종화·홍사용·양주동·변영로 등이 일찍부터 식민모국 일본에 유학하여 서구문학의 교양을 체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대의 계몽문학을 포함한 조선의 문학적 전통을 일체 부정하거나 폄하하고 서구문학의 교양을 기반으로 새로운 조선문학의 수립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⁵⁸⁾ 즉 일본 유학생들의 서구 편향적 인식이 근간이 되어 한국 근대문학사는 불연속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불연속성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불연속성은 ‘전이의 양식’, ‘반대의 미학’으로 한국 근대문학사는 앞 시대 문학적 전통을 부정하고 새롭게 형성된 것이라는 인식의 근간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문학사를 서술한 경우는 임화이며, 그는 ‘언어’, ‘저널리즘’, ‘소설의 형식’ 등을 통해서 불연속적인 근대문학 형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조연현은 한국 근대문학 형성과정을 후진성과 기형성을 바탕으로 인식하여 불연속

56) 위의 책, p. 245.

57) 위와 같음.

58) 김재용 외, 앞의 책, p. 346.

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윤식은 이광수의 과거 혐오증과 새 것 콤플렉스, 임화의 일본을 통한 왜곡된 서구 편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조동일은 이광수의 서구 미화와 최남선의 전통 율격의 파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또 오성호는 식민모국에 유학한 학생들로부터 불연속성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불연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식을 극복하고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문학사의 형성 과정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가. 다음에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속성

연속성(continuity)의 근간은 문학적인 규범의 재생 또는 반복현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주로 '反復의 양식'과 관련되며, 반복에 근거한 '일치의 미학'(aesthetic of identity)이다.⁵⁹⁾ '연속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문학사 서술은 물론 일반사 서술에 있어서도 역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연속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계기성에 의한 인과관계를 확보하여 현재와의 관련을 밝혀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속성의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할 때 추상성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즉,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연속성의 문제는 자율성과 더불어 가장 두드러진 한국 근대문학사의 역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속성에 기인한 한국 근대문학사의 인식은 앞 시대 문학사의 연장과 계승·발전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앞 시대 문학적 전통을 무시하고 이식문학적으로 인식하느냐의 구체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함에 있어 연속성에 바탕을 두고 인식한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장르사를 개척한 김태준과 제2기 문학사의 시작을 알린 김윤식·김현, 그리고 한국문학사의 통사 가능성을 열어준 조동일을 들 수 있다.

59) 이재선, 앞의 글, p. 119.

한국 근대문학사를 앞 시대 문학의 연속선상에서 인식한 문학사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32) 이후 백철과 조연현에 의해 소박하게나마 서술되었다. 그러나 백철과 조연현은 임화의 이식문학론을 계승한 서술의 일부로 앞 시대 문학 유산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김현 등이 근대기점을 영정조로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이며, 그들은 이를 근거로 시대를 구분하고 『한국문학사』(1973)를 서술하여 실천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의 불연속적 인식을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속성에 바탕을 두고 근대 문학사를 인식한 경우는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서였다.

우선 김태준이 연속성에 근간을 두고 인식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근대 기점(Ⅱ-1)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정 시대를 획(劃)한 것은 영정 양대 동안에 문화적 업적이 그의 전후와는 대차(大差)가 있는 발전과 특색을 보여 줌으로 인함”⁶⁰⁾이라 하여 근대 문제를 자주적으로 인식하고 연속적으로 바라보았다. 또 그가 『조선소설사』 마지막 부분에서의 지적은 관심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첫째, 갑오경장 후에 일본을 통하여 온 구미식 소설을 수입하여 ‘신소설’을 지었으나 그 또한 고대소설과 오십보 백보의 사이에 있는 것, 둘째, 춘원 일파가 순 서양식으로 소설을 짓기 시작하였더니 다시 ‘이데올로기’의 상좌로 춘원식의 내용을 담은 소설은 벌써 구관폐루처럼 되었다⁶¹⁾는 것이 그 내용이다. 김태준은 갑오경장 이후의 신소설과 춘원 등의 소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명기요, 과도기란 말이나? 좀더 진정한 투사와 ××××을 대변하는 현실의 요구있는 역량있는 작가를 기다릴 따름”⁶²⁾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의 소설문단 상황을 규정하고 있어 앞 시대 문학 유산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김태준의 인식은 연속성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춘원이나 육당에

60) 김태준, 앞의 책, p. 133.

61) 위의 책, p. 220. ; 1939년 증보판에서는 삭제된 부분임.

62) 위와 같음.

의해 불연속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문제까지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속성에 대해 백철은 “나는 우선 그 근대성을 그 전 18세기 중엽, 즉 영정조의 시대에 올라가서 찾아보는 것이 헛된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⁶³⁾고 하면서 1750년을 전후한 영정조 시대의 실사구시와 관련하여 우리 문화사상에 있어 서구의 14, 5세기의 르네상스와 비교하고 있다. 그 예로 『靑丘永言』, 『海東歌謠』, 『古今歌曲』 등의 시가집 같은 고전의 정리 수집 편찬을 들어 르네상스 시기의 고전연구와 부흥을 비교하고, 소설이 유행한 점을 지적하였다.⁶⁴⁾

연속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근대기점을 영정조 시대로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윤식·김현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근대기점 설정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동안의 문학사 인식의 불연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는 이 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문자로 표현하고 그것을 극복하려 한 체계적인 노력이 싹을 보인 영정조시대를 근대문학의 시작으로 잡으려 한다.”⁶⁵⁾고 전제하고, 영정조시대에 이르면서 ‘① 신분제도의 혼란 시작, 경영형 부농의 등장, ② 상인계급의 대두, 화폐유통, ③ 실사구시의 성립, ④ 독자적인 수공업의 대두, ⑤ 시조, 가사 등의 재래적 문학 장르가 판소리, 가면극, 소설 등으로의 발전, ⑥ 서민계급이 진출하면서 인간평등 자각’⁶⁶⁾ 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이러한 연속성을 문학사 서술에 제대로 실친한 사람은 조동일이다. 그는 『한국문학통사』 5권에서 “근대문학은 이행기 동안의 축적이 있어서 이루어졌다.”⁶⁷⁾고 전제하고 이행기가 끝날 무렵에 식민지가 되어 근대문학이 순조롭게 발현되지 못하고, 식민지 지식인의 몰주체적인 취향에 맞추어 서양문학을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민지문

63) 백철, 앞의 책, pp. 5~6.

64) 위의 책, pp. 6~9.

65) 김윤식·김현, 앞의 책, pp. 20~21.

66) 위와 같음.

6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5권, p. 6.

학으로 주저앉지 않고 오랜 축적을 살려 자아상실의 증후를 스스로 극복하는 활력에 찬 창조를 다채롭게 보여주었다⁶⁸⁾고 근대문학을 민족문학적 범위에서 논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근대문학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의 한 단면을 과장해 근대문학은 민족문학의 전통과 단절되어 있고 서양문학의 이식이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머리를 열고 “그 두 가지 그릇된 관점 시정을 이 책의 과제로 삼는다.”고 문학사 서술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또 그는 기존의 서술에 대하여 내용을 너무 좁게 잡은 것도 불만임을 토로하고, 근대문학을 문학사의 한 과정으로 보아 위치와 특징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근대문학에 이르러서 문학의 오랜 논란이 끝난 것처럼 여긴 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 극복 방법으로 ① 근대문학의 기본 영역으로 평가된 문학과 실제로 존재하고 작용한 문학을 둘 다 확인하고 그 거리를 인식하면서, 당대에 행세한 문학관의 한계를 찾는 것, ② 그래서 자생적 근대문학으로 준비된 양상 가운데서 무엇이 표면화되지 못했는가 살피는 것, ③ 더 나아가서 근대문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음 단계의 문학이 어디서 어떻게 태동하고 있는가 탐색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의 문학이 식민지적인 왜곡에서 벗어난 근대 민족문학을 확립하는 남은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또한 근대문학을 넘어서는 길을 찾아야 하는 이중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⁹⁾

그의 이러한 「책머리」의 진술에는 그 동안 서술된 문학사들의 불연속적 인식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들어 있다. 그는 서양문학과 일찍부터 관계를 가지고, 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작품을 창작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면 근대문학이 정상적으로 육성되고 세계문학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양문학과와의 관계가 늦게, 간접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근대문학이 민

68) 위와 같음.

69) 위의 책, pp. 6~7.

족문학으로 성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족어 문학을 일찍 확립하고, 근대 민족문화를 수호하려는 문학을 독자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일단 형성한 다음에 서양문학의 영향권에 말려들었으며, 서양문학의 이식으로 근대문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행기가 끝나고 근대문학에 들어설 때 서양문학의 영향이 닥쳐서 자생적인 전환마저 영향의 결과로 오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⁷⁰⁾

조동일은 그 동안의 불연속적인 인식을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한 논리를 개발했다. 그는 한국 근대문학은 서양문학과 관련을 가지기 전에 소설을 이미 크게 발전시켰으므로 서양소설의 영향을 소화해 근대소설을 이룩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그 자세면에서 능동적으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⁷¹⁾

그리고 시에 대해서도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시를 보고 아무런 율격적인 원리도 없고 어감도 무시된 자유시, 적당히 줄만 바꾼 산문이 새로운 시라고 착각하는 사람”⁷²⁾들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사람으로 김억을 들고 있다. 김억이 우리 시가의 전통적인 율격을 작품마다 새롭게 활용하여 근대시의 바람직한 방향을 개척했음을 제시했다.⁷³⁾

이러한 조동일의 연속성에 기인한 문학사의 인식은 한용운에 대한 부분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한용운에 대하여 “동시대의 범속한 시인들과는 아주 다르게, 일본을 통해 서양문학을 받아들여 창작의 모형을 삼으려 하지 않았으며, 전통 사상을 스스로 혁신한 데 근거를 두고 민족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학을 했다.”⁷⁴⁾고 주장하였다. 즉, 조동일은 연속성을 전통 사상의 혁신과 민족운동과의 관련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70) 위의 책, pp. 37~38.

71) 위의 책, pp. 38~39.

7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4권, pp. 421~422.

73) 위와 같음.

7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5권, p. 178.

또 하정일은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서 신채호의 문학관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연속성을 찾아내고 있다. 신채호는 “7자시나 11자시가 지나의 율체와 일본 음절을 모방한 것이므로 국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리랑이나 영변가 등 우리의 전통시가를 계승하여 그것의 완고한 부분을 고치고 새로운 사상을 도입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동국시계혁명’의 출발점과 관련하여 ① 근대문학의 뿌리를 서양문학이 아닌 우리의 고유한 문학전통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하고, ② 우리의 문학전통 중에서도 사대부의 문학이 아닌 민중문학을 근대 민족문학이 계승해야 할 전통으로 이해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여 고유문학과 민중문학적 측면에서 연속적 인식의 줄기를 세우고 있다.⁷⁵⁾

이러한 연속성의 문제에 대하여 이재선은 “현재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을 단절이 아닌 하나의 지속체로서 보려는 문학연구 내지 특수문학사 연구가 학계와 비평계에서 활발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른바 ‘원형’이나 ‘전상(前狀 prefiguration)’과 밀착된 신화 시학연구와 주제학(thematics) 및 문학주제사가 그것이다.”⁷⁶⁾고 하여 연속성을 바탕으로 인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형성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앞 시대 문학적 전통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불연속성에 바탕을 둔 인식 방법과 앞 시대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근대문학을 형성했다는 연속성에 바탕을 둔 인식 방법이다. 불연속적 인식 방법은 <전이의 양식>인 반면에 연속적 인식 방법은 <반복의 양식>이며, 전자가 <반대의 미학>인 반면에 후자는 <일치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전자에 의한 문학사 서술은 제1기 문학사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제2기 문학사에 와서 불연속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제3기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 와서 후자에 의한 문학사가 서술되었다.

이제 타율성, 불연속성의 문제 다음으로 한국 근대문학사 형성과 관련

75) 김재용 외, 앞의 책, p. 166.

76) 이재선, 앞의 글, pp. 118~119.

된 관념성과 실천성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관념성과 실천성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앞에서 이미 살핀 타율성의 문제와 불연속성의 문제 이외에 관념성과 실천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역시 한국 근대문학사의 역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관념론은 정신이나 심리적인 것을 우선하여 한국 문학사를 규정하는 것이며, 물질이나 객관적 실재를 이차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문학사를 역사적, 사회적 토대로부터 분리시켜 하나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로 전환시킴으로써 물질적 세계의 상위를 차지하는 근원적인 원리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성은 사회적으로 통합된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동으로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일면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생산적이고 사회 역사적인 활동의 실천적인 측면을 절대화하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념성과 실천성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리적 효용성에 의해 문학사에 나타나다가, 3·1독립운동 후에 이념의 공백 상태에서 관념적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문학사 중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32)와 임화의 「신문학사」(1939), 「개설 조선신문학사」(1941) 등은 실천성의 문제를 유물론에 바탕을 두고 서술하고 있으며,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7, 1949)와 박영희의 「현대한국문학사」(1958~59)에 와서는 실천성 문제가 프로문학 중심으로 문학사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제1기의 문학사 대부분은 순수문학을 표방하고 참여성을 경계하는 관념성에 바탕을 두고 서술되었다. 그러다가 제2기와 제3기의 사회학적인 방법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천성을 제기하다가 제4기의 김재용 등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 의해 실천성의 문제가 자유롭게 반영되기 시작했다.

(1) 관념성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문학을 관념성을 바탕으로 인식하는 것은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고 이를 우위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성은 계몽주의적 공리성이라는 실천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식의 문제가 3·1 독립운동이 실패한 후 일제의 감시와 간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정신적 혼란과 이념적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의 실천성은 변질되어 민족 개량주의에 함몰하기도 하였다. 관념성은 “정신과 의지의 작용을 역사생활에서의 주도적인 힘으로 파악”⁷⁷⁾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의 관념성에 대한 논의는 순수한 관념성 외에 실천성의 상대적 범주도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문학사를 관념적으로 인식하여 근대문학 부분을 서술한 경우는 안확이다. 그는 『조선문학사』(1922)에서 문학사를 “一國民의 心的 現像의 變遷發達을 推究하는 것”⁷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임화는 예술은 예술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순수히 신성한 그것이고, 하등 실생활적인 무엇과 관계를 맺으며 그것에 봉사할 것이 아니라는 구호는 신경향과 문학에 도전한 것이라 하여 실천성을 배제하는 것을 경계하였다.⁷⁹⁾

백철은 3·1 독립운동의 실패로 말미암은 민족적 분위기를 “절망 비관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문학에 영향을 끼쳐 퇴폐주의, 낭만주의의 비관적 성격과 현대문학이 창백한 애조를 띠게 된 역사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였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문학에서의 실천적 인식을 멀어지게 하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⁸⁰⁾ 이 배경은 “일반적인 사회분위기 가운데서 釀成된 문학상의 시대적인 정신”⁸¹⁾이 되어 “현실을 저주하고 부정하면서도 결국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애착과 고민 위에 퇴폐

77) 이상신, 『역사학 개론』(신서원, 1994), p. 256.

78) 안확, 앞의 책, p. 2.

79)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17)(『조선중앙일보』, 1935. 10).

80) 백철, 앞의 책, pp. 120~121.

81) 위의 책, p. 123.

적인 문학을 제3세계로서 건축”하였는데, “그 3세계인 문학세계는 魯漫主義의 문학과 같이 현실을 멀리 떠난 공상과 꿈의 세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병든 현실의 침상 위에 누워있으면서 고민, 고통을 일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한 도취의 세계”⁸²⁾, 또는 “퇴폐적 유희적 허무적 혹은 자연에의 도피와 혹은 동양적인 운명관인 체념과 무상을 느낀 감상적인 경향”⁸³⁾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낭만주의 문학에 대하여 현실을 떠난 관념해방과 주관방사의 문학이기 때문에 문장도 현실과 객관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오직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문구를 주관적으로 연계해간 경향을 지적하였다.⁸⁴⁾ 따라서 이 시대의 문장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미문을 꾸미기 위하여 아름다운 형용사만 연결시키는 것이 문장의 道였던 것이라 하여 낭만주의 문학이 현실을 떠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지적했다.⁸⁵⁾

홍기삼은 1910년대부터 1920년대의 문단을, 이 땅의 문학이 철저히 선각자의 구실과 민족적 사명을 포기하고 계몽주의와 새로운 문화의 전달자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개화기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창녀로서의 예술(art as courtesan)에 머물렀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기본 문제부터 이탈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이 때의 문학을 통해서 ‘한국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 이 시기의 관념적인 문학에서 한국 근대문학사상을 찾으려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⁸⁶⁾

조동일은 1930년 3월에 창간된 『詩文學』에 대하여 산문같은 수작에다 낭만적 영탄이나 곁들이는 폐단을 시정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서정시의 순수한 영역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내용을 배제하고 격앙된 느낌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순수시를 지향하겠다는 주장은 심

82) 위의 책, p. 133.

83) 위의 책, pp. 139~140.

84) 위의 책, p. 185.

85) 위의 책, p. 187.

86) 홍기삼,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평민사, 1978), pp. 22~23.

층의 논리를 파헤치면 현실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⁸⁷⁾

이상경은 현실 배제의 시작을 3·1독립운동 이후로 보았다. 즉,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전 시기 부르주아 계몽소설은 그 현실적 기반을 잃고 변모하면서 철저히 통속화”⁸⁸⁾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 1920년대 초기 시단에 대하여 “그들이 처한 특수한 정신적 조건, 즉 전대의 부르주아 계몽주의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일종의 이념적 공백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⁸⁹⁾고 하였다. 즉, 이념적 공백상태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방향을 잃고 진로를 모색하면서 현실 배제의 논리 속에 함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향의 작가로 김동인을 들고, 그의 「배따라기」(1921), 「감자」(1925), 「광염소나타」(1929) 등의 작품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한 인간의 성격과 운명을 그의 현실 상황과 고립시켜 타고난 본능과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보는 자연주의적 면모를 노정하는 한편, 추상적인 예술이라는 목적을 위해 현실의 모든 것이 무시되는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면모를 노정”⁹⁰⁾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성호는 시문학과에 대하여 ① 언어와 삶의 근원적인 연관성을 배제함으로써 삶으로부터 유리된 언어의 아름다움에 심취했고, ② 역사와 사회와 유리된 추상적인 서정의 세계 속에 시를 윤택시켰으며, ③ 식민지 상황 속에서 역사의 진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⁹¹⁾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역사적 한계와 연관되어 실천성 배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관념성이 관념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성으로 발전하고 있는 논리를 찾아내고 있다.

8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5권, p. 389.

88) 김재용 외, 앞의 책, p. 338.

89) 위의 책, pp. 343~344.

90) 위의 책, p. 340.

91) 위의 책, p. 568.

1920년대 초의 시문학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서구지향성이나 사조적 혼류의 양상, 그리고 비탄과 절망의 정조는 이와 같은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정신적 혼란에서 기인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혼란과 이념적 공백은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모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더욱이 3·1운동 직후의 변화된 현실과 민중들의 급속한 성장과 사회주의 사상의 전래, 그리고 민족개량주의의 대두 등은 소부르주아 지식인들로 하여금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응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⁹²⁾

즉, 이들은 소부르주아 지식인의 정신적 혼란과 이념적 공백의 결과 ‘① 민중들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고, ② 사회주의 사상이 전래되었으며, ③ 소부르주아의 민족개량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단순 관념성을 극복한 경우를 김소월·한용운에게서 찾았다. 그들은 낭만주의 시들이 보여준 극단적인 내면성에서 벗어나 자아와 세계 사이의 균열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최초의 예로 평가했다. 개인과 사회 혹은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사회·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근대적인 의미의 개성과 자아가 확립되었으며, 비로소 개성과 사회를 분리시키는 전근대성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⁹³⁾

골드만은 이 관념론적 관점은 작품을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인 장막 안에 덮어두기 때문에, 문화, 창작을 초역사적인 것과 탈문화적인 것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주관적인 진공 속에 내던지게 된다⁹⁴⁾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념성의 문제를 정리하면, 공리적 효용성에 의해서 문학사를 인식하다가, 3·1독립운동을 거치면서 이념의 공백 상태에서 실천성을 배제하게 되었고, 나아가 관념성을 바탕으로 문학사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사를 서술한 경우는 제1기 문학

92) 위의 책, p. 342.

93) 위의 책, pp. 368~369.

94) 루시앙 골드만, 『문학사회학방법론』(박영신 외 옮김, 현상과 인식, 1980), p. 18.

사 중에서 순수문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문학사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관념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의 관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관념성을 극복하고 실천성에 바탕을 두어 문학사를 인식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실천성

실천성을 바탕으로 문학사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화, 백철, 박영희 등은 신경향 문학과 프로문학을 중심으로,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서는 항일문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김재용 등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서는 진보적인 인식을 통해 실천적 인식을 반영하였다.

이들의 문학사에 앞서 김태준도 실천성에 바탕을 두고 근대문학사를 인식했다.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단재 신채호의 역사소설을 “융성한 정치사상과 국가관념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라 했다. “이때까지는 시사를 개탄하는 정치언론을 중요시하고 순문학 같은 것은 아주 우습게 여겼다”⁹⁵⁾고 『조선소설사』 서술 당시의 관점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① 순문학이 등장했으나 아주 미미하다는 점, ② 시대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언론과 정치사상을 중요시하고 있는 김태준의 관점, ③ 그리고 실천성 배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실천성을 문학사 서술에 반영한 경우는 1939년 9월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된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 등에서부터였다. 그는 ① 생활로부터 유리되는 문학이 곧 진정한 의미의 예술성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② 이 또한 자기를 예술적 과멸의 길로 인도하는 결과에 도달할 것, ③ 오늘날에 있어서의 조선의 문학사적 연찬(研鑽)이란 이 위기현상의

95) 김태준, 앞의 책, p. 190.

정확한 인식과 또한 그 극복의 엄밀한 과학적 기초가 되는 의미에 있어 특별히 중대한 현실적 의의를 갖는 것⁹⁶⁾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실천성을 배제하는 데 대한 우려를 보이고, 이를 위기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극복을 위한 엄밀한 과학적 기초’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임화는 문학의 실천성을 ‘지도 원리’에 바탕을 두고 진보 정신, 정치적 행동, 계몽운동, 계급 모순, 투쟁 등을 중심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실천성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문학사를 서술하면서 그 실천성의 출발점을 이인직과 이광수의 계몽적인 지도 원리와 관련시키고 있다. 즉 신경향과 문학은 국초, 춘원에서 출발하여 자연주의에서 대체의 개화를 본 사실적 정신과, 국초, 춘원으로부터 발생하여 자연주의의 부정적 반향을 통과한 뒤, 낭만파에 와서 고민하고 새로운 천공(天空)으로의 역(力)의 비상을 열망하던 진보적 정신의 종합적 통일자로 계승되어 무한의 발전의 대해로 인도할 역사적 운명을 가지고 탄생했다는 것이다.⁹⁷⁾

또 임화는 문학사의 실천성과 관련되는 근대문학사적 배경을 경제적 발전과 사회 계급의 분화에 두었다. 즉, 자본주의적 발전의 결과 근대 노동자계급의 자각과 그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행동의 통일적 핵심이 형성되어 계몽적인 제일보를 내딛게 되었다는 것이다.⁹⁸⁾ 또, 신경향과 문학의 의의를 “社會的 土壤인 現實的 運動이 「매누괵추어」의인 分散된 思想運動의 初歩階段으로부터 自己를 全目的 統一의 高處로 發展시키고 그 窮局의 利害를 가장 精鍊된 方法으로 集約하는 바 政治的 行動의 統一의 核心이 形成된 그때 비로소 그 最初의 啓蒙의인 第一步를 내어디던 것”⁹⁹⁾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지도 원리를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앞 시대 문학에 대

96)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2)(『조선중앙일보』 1935. 10. 10).

97) 위의 글, p. 354.

98) 위와 같음.

99) 위의 글, p. 357.

한 부정적 시각에서 오는 불연속적인 인식의 결과였다. “我韓은 由來 小說의 善本이 無^호야 (...) 人心을 蕩了^호고 風俗을 壞了^호야 政教[正教]와 世道에 關^호야 爲?[害]不淺^호”¹⁰⁰ 문학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또 “通俗性的의 擡頭 乃至는 增長이란 말은 다른 角度에서 보면 文學的 發展의 停滯 乃至 退步, 卽 文學의 俗化를 意味”¹⁰¹한다고 하면서 “文學이 讀者를 指導하는 立場을 放棄”¹⁰²했다고 지도 원리를 강조하였다. 또 “現在로부터의 創造的 實踐의 行路와 方向을 指示하는 한 個 行動的 基幹이 되는 것”¹⁰³이라 하여 그 지도 원리를 ‘행동적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신경향과 문학에 대하여 세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예술과 생활의 불가분의 관련과 생활적 현실에의 예술의 종속을 강렬한 구조(口調)로 절규하면서 낡은 문학에 도전한 것, 둘째, 사회경제적 사정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 셋째, 점차로 생활로부터 유리하고 예술지상주의로 전화하는 퇴화된 자연주의나 관념적인 비판과 절망의 독백으로 시종하고 말러는 낭만파적 시가에 대하여 그들이 투쟁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¹⁰⁴ 등이다.

임화의 이러한 문학사 인식은 한국 근대문학을 이식문학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불연속성과 타율성을 초래했음은 물론 그 지도 원리를 이 인식과 이광수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했다.

『조선신문학사조사』(상:1947, 하:1949)를 서술한 백철은 문학사의 실천성을 반향의 문학, 생활의 문학, 정치 문학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신경향과 문학의 출발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계급의식 같은 것의 문학이 아니고 그저 힘찬 어떤 문학을 요구한 것”이며, “이런 힘의 예술의 요구”가 “때마침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의 사회운동”에 휩쓸렸으나 “정면으로 어떤 계급문학이 아니고 그저 빈궁을 제재로 한 막연한

100) 임화, 「신문학사」(5)(『조선일보』, 1939. 12. 12).

101) 위의 책, pp. 297~298.

102) 위와 같음.

103)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2)(『조선중앙일보』, 1935. 10. 10).

104) 위의 글, p. 360.

반항의식의 문학이었다”¹⁰⁵⁾고 주장하였다. 즉 ‘계급문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문학’으로 보고, 종래의 문학을 “하나의 소일거리의 유한한 문학이요 거기에 생활이 묘사되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주로 하층에서 일을 하는 인물을 그릴 때에 그 문학은 하나의 생활문학이 된 것”¹⁰⁶⁾이라고 하여 신경향파 문학에 와서 비로소 ‘소일거리의 유한한 문학’에서 탈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신경향파 문학이 1925년 7월에 ‘카프’의 결성에 따라 프로문학으로 전환되었는데, 프로문학은 “신경향파 문학의 연장인 요 후계”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엄연하게 다르다고 하였다. 신경향파 문학은 막연하게 빈궁과 반항의 문학인 데 반하여 프로문학은 계급성과 정치의식을 내용으로 한 문학이며, 전자는 자연발생적인 문학인 데 반하여 후자는 목적의식의 문학이라고 그 차이점을 밝혔다.¹⁰⁷⁾ 또 프로문학의 특색으로 ‘문학운동의 조직성’을 들면서 “정치성을 강하게 띤 하나의 조직”으로 그 조직을 통하여 정치운동을 문학 예술 부문에서 실행한 것이며 따라서 그 조직과 문학실천을 통하여 대중에게 계몽하고 선전하는 지도 이념이 강한 문학이라고 주장했다.¹⁰⁸⁾

이러한 백철의 인식은 박영희에 이르러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영희가 『사상계』에 연재한 「현대한국문학사」(1958~1959)를 살펴보면, 그는 문학의 실천성을 민족적 반항, 풍자, 도전, 대중성, 생활과 투쟁의 문학, 해방의식, 마르크스주의와 결합, 경제 투쟁, 정치 투쟁 등에 두고 있다.

박영희는 한국의 현실생활이 점점 비참하게 되어 갈수록 일본의 위정자들은 그러한 현실을 감추려고 하며 보이지 않도록 덮어 버리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신경향파의 작가들이, 이 내려 있는 막을 벗겨 버리고 감추어져 있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려는 능동적 주관적 문학활동인 생

105) 백철, 앞의 책, pp. 258~259.

106) 위의 책, p. 261.

107) 위의 책, pp. 269~270.

108) 위와 같음.

활과 투쟁의 문학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신경향과 문학이 대두하게 된 배경과 그 활동 방향을 밝히고 있다.¹⁰⁹⁾ 이러한 신경향과 문학은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여 프로문학이 되었으며,¹¹⁰⁾ 카프가 결성된 뒤부터의 프로 문예운동은 모두 카프의 지도방침에 따라 움직였음을 밝히고 있다.

카프의 첫번째 지도방침은 문예운동을 자연생장적 경향에서 목적의식으로 전환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개인 의식에서 집단의식으로 집중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문예창작에 있어서는 가난한 생활 노동자 농민의 생활을 묘사하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맑스주의 의식 밑에서 지배계급 자본자계급과 투쟁하도록 할 것이며 이 개인 행동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계급적 집단투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니 즉 노동자 농민 일개인의 승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농민조합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었다.¹¹¹⁾

신경향과 문학은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지도 방침에 따라 ‘자연생장적 문예운동’에서 ‘목적의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방향전환론이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민족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와 제휴해야 할 것임을 박영희는 주장하였다.¹¹²⁾

김태준, 임화, 백철, 박영희가 문학의 실천성에 대한 인식을 신경향과 문학과 프로문학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조동일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실천성을 찾아내고 있다.

조동일은 문학의 실천성을 주어진 상황과 대결하는 경험을 형상화해서 상황을 타개하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는 공감을 일으켜 민족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능한 대로 찾는 것이 그 시기 문학의 사명¹¹³⁾으로 인식하고, “민족문학은 항일문학이어야 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¹¹⁴⁾

109)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사상계 제66호, 1959. 1).

110) 위와 같음.

111) 위와 같음.

112) 위와 같음.

11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5권, p. 27.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지식인들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권세력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나라의 힘을 올바르게 동원하지 못했으며, 애국계몽을 외치는 선진적 지식인들은 정열에 상응하는 실천력을 갖추지 못했다.”¹¹⁵⁾고 비판했다.

그는 실천성의 범위를 국내에서 벗어나 국외에까지 확대하고, 또 문학갈래의 범위까지도 ‘통사’의 장점을 살려 크게 확대하였다. 그는 국내의 경우 ‘항일창가’를, 국외의 경우 ‘망명지 문학’을 중심으로 문학의 실천성과 관련시켰다.

항일창가에 대한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1907년 무렵 항일창가를 모은 창가집이 여럿 있었는데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다음에 항일창가집을 모두 찾아서 없앴기 때문에 자료가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1907년에 필사했다고 하는 「창가책사」(唱歌冊寫)와 1909년에 필사했다는 「애국가」라는 표제의 창가집이 남아 있는데 창가에 대한 금압이 심했던 것은 항일사상을 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¹¹⁶⁾ 그는 이러한 항일창가가 자주적 근대화와 반외세적 산물이었는데, 자주적 근대화를 무시하려는 일제와 친일 정부에 의해서 수난을 당하면서 변질되고 퇴색되었다고 보았다.

또 민족 문제와 일제를 비판하는 작품은 가혹한 검열로 삭제하고, 게재 또는 판매 금지를 했다면서 검열에 적용하는 법규와 탄압의 실상을 소개했다. 1907년의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 1909년의 출판법 및 거기 부수되는 규칙, 1936년의 불온문서임시취체법, 1938년의 국가동원법, 1941년의 국방보안법 등 탄압을 가중시키는 법과, 『동아일보』가 1930년 4월 15일까지 292회에 걸친 압수되었던 사실, 『개벽』이 1920년 6월의 창간호를 위시해 발매금지가 34회, 정간 1회, 벌금 1회의 시련 뒤에 1926년 8월의 제72호로서 발행 정지된 사실, 1940년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된 사실, 1941년의 『문장』과 『인문평론』이 폐간된 사실 등¹¹⁷⁾

114) 위의 책, p. 23.

11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4권, pp. 249~250.

116) 위의 책, p. 262.

을 소개했다. 이는 한국 근대문학의 발달에 끼친 제약과 수난을 ‘검열사로서의 문학사’ 또는 ‘문학 박해의 역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망명지 문학’에 대하여, “망명지 문학 또는 이민문학은 한민족 문학의 일환이므로 문학사 서술에 포함되어야 마땅하고, 국내에서 받은 제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항일문학으로서 더욱 평가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했으며, 전통문학이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개작되고 혁신된 과정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¹¹⁸⁾임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 국내 문단에 국한하여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국외로 눈을 돌려 민족 문학의 실천성 문제를 ‘망명지 문학 또는 이민문학’에서 찾았다. 망명지 시가는 1905년 또는 1910년 이후 국권을 상실하자 뜻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낸 여러 형태의 시가를 총칭한 말로 규정하고, 1905년 이후 미국에서, 1910년 이후 만주에서, 1920년대에 상해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나타났으며, 1920년대 이후에 소련에서도 거기 상응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주장했다.¹¹⁹⁾

망명지에서 국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는 상해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1920년 4월 27일자 「유해무익(有害無益)의 문자(文字)」라는 논설을 인용하고 있다. 즉 “근래 잡지열이 성행하면서 유해무익의 문자가 삼천리에 횡행하도다”라고서, 어느 책을 보아도 “천박, 유치, 유약(柔弱), 퇴폐하고, 글조차 되지 못한 구역나는 연애소설”뿐인데, 작자가 “20세 내외의 청년인 것을 생각할 때 더욱 흉억(胸臆)이 터지려 하도다”라고 개탄했다¹²⁰⁾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직수입의 예술론을 집어치우고 소설을 쓰려거든 국민을 분발시키는 소설을 쓰라 하고, 「아아 청년 문사들아! 네가 앉은 땅이

11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5권, p. 35.

11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4권, pp. 289~290.

119) 위와 같음.

12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5권, pp. 24~25.

어디며, 네가 선 때가 어느 때며, 네 동포가 무엇을 바라」는가 생각해 가슴을 치고 통곡하라 했다. 그런데 민족의 각성과 시대적 사명을 나타내며 일제와 항거하는 문학이 일어나지 않았다. 신채호(申采浩)는 1923년에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에서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짖는 자는 누구이냐?」하고 나무라며 문화운동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문화운동자도 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극언했다.¹²¹⁾

국내의 문단활동을 국외에서는 ‘강도 정치하에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문학운동자’로 규정하는 것을 보면, 국외에서 바라보는 국내 문단의 성향과 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조동일은 또 “망명지 문학이나 지하문학이라야 민족문학으로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임시정부가 『독립신문』을 내서 항일문학의 발표지면이게 했다. 거기 실린 작품은 국내에서와 같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일제를 적극 규탄할 수 있었다. 이밖에 중국의 다른 곳, 노령, 미주 등지에서 전부터 있거나 새로 창간된 여러 형태의 간행물이 항일문학을 진작시켰다. 특히 만주에서 싸우던 독립군이 부른 노래는 소중한 구실을 했다. 국내에까지 은밀히 전해질 수 있어서 희망을 고취하고 용기를 북돋우었다”¹²²⁾고 망명지 문학이나 지하문학을 통하여 항일문학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또 그는 상해에서 발행된 『독립신문』 1919년 8월 21일자 창간호에서 제14호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공월(共月)이라는 가명을 쓴 작자가 연재한 「피눈물」이라는 소설에 대하여 삼일운동 때 몇몇 애국학생이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하는 데 앞장서 투쟁한 내력을 다룬 내용으로, 일제에 항거해 태극기를 들고 일어선 군중의 열기를 그리고 일제의 잔혹한 탄압을 고발하고, 그래도 꺾이지 않는 독립의 의지를 쓰고 있는데 “근대소설의 시험작으로서 소중한 의의가 있다.”¹²³⁾고 하면서 근대소설의 실험성

121) 위와 같음.

122) 위와 같음.

123) 위의 책, pp. 98~99.

을 망명지 문학에서 찾았다.

그는 또 문학의 실천성 문제에 대하여 방법적 문제를 모색하였다. 그는 ‘현실 문제 인식’과 ‘시를 시답게 쓰는 것’으로 나누고 두 극단의 예로 1931년에 나온 『카프시인집』과 『시문학』을 들고 있다. 『카프시인집』은 검열에서 삭제된 구멍 투성이어서 정면돌파를 하려던 자세가 용감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논란도 아무 주장도 펴지 않아 독자의 긴장을 풀어주었으나, 일제와의 대결을 벗어나 도피에서 위안을 찾는다는 비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극단을 극복한 예로 한용운과 이상화를 들고 이들은 “현실 문제에 대한 깊고 넓은 인식을 시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절실”¹²⁴⁾한 경지에서 대립시키지 않고 융합한 시인이라고 보았다.

오성호는 동학농민전쟁 당시의 민요에서 그 실천성을 찾고 있다. 이 민요들은 반제·반봉건 의식, 봉건지배계급이나 외세의 침탈을 비판, 풍자, 의병이나 독립군 같은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불리어진 많은 노래들의 모태로 인식하였다.¹²⁵⁾ 근대문학사 서술의 시작을 이러한 민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 동안의 방법론에서 서구적 장르에 얽매어 있던 인식에서 벗어나 근대문학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문학의 장르적 형식보다 민족 현실과 그에 대한 실천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경은 신채호의 문학론을 통해서 그 실천성을 강조한다. 그는 신채호의 문학론에 대하여 강한 반외세적 지향성, 애국 계몽성, 민중 지향성 등을 특징으로 정리하고 “역사의 주체가 영웅이 아니라 민중이라고 보면서, 민중을 위한 문학을 써야 한다고 강조”¹²⁶⁾했다고 하면서 민중을 문학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소설에서의 실천성을 ① 이광수가 근대화를 무조건 찬양하고, ② 현상윤·양건식은 그

124) 위의 책, pp. 389~390.

125) 김재용 외, 앞의 책, pp. 120~121.

126) 위의 책, pp. 168~170.

모순을 단지 느끼고, ③ 염상섭은 고통받던 식민지적 근대화의 본질을 일상성 속에서 포착했으며, ④ 현진건은 참된 예술가 정신을 쪼먹는 물질사회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민중들의 궁핍한 삶으로 사회적 관심을 넓혀갔고, ⑤ 나도향은 봉건적 인습과 경제적 궁핍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상황과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민중들의 건강한 개성을 소설 속에 그려내었으며,¹²⁷⁾ ⑥ 최서해·이기영·조명희와 같은 작가들은 “현실생활의 고통과 질곡이 가진 계급과 못 가진 계급의 적대적 대립이라고 하는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못 가진 계급의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그 극복을 지향하는 경향의 소설을 썼다.”¹²⁸⁾고 실천성의 차원과 단계를 정리하였다.

김팔봉에 대하여는 “현실을 역사의 일부로 파악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주체적 실천에 의해서 변화,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김팔봉이 식민지 현실의 전체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¹²⁹⁾고 실천성의 문제를 확대하여 인식하였다. 또 염상섭의 경우 개성을 현실반영의 예술적 매개로 설정함으로써 공리주의적 문학관에 의지하지 않고도 문학이 왜 현실의 모순을 반영해야 하고 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문학의 독자적 특질에 기반하여 예술적 반영의 문제를 해명한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염상섭의 문학론에 대하여 1900~1910년대 계몽주의적 리얼리즘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비판적 리얼리즘의 길을 여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준 비평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¹³⁰⁾

이러한 실천성의 문제에 대하여 김병택은 민족문학과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들은 대체로 역사주의의 입장에서 문학을 현실 문제 중에서도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문학은 민족을 위한 문학, 즉 민족에게 어떠한 힘을 제공하는 문학”¹³¹⁾

127) 위의 책, p. 295.

128) 위의 책, p. 294.

129) 위의 책, p. 401.

130) 위의 책, pp. 430~431.

으로 생각했다고 실천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 “민족문화과들은 항상 민족적 현실을 담은 문학을 생각했고 민족에게 도움을 주는 문학을 가치 있는 문학이라고 보았다.”¹³²⁾고 부연하였다.

한국 근대문학사를 관념성과 실천성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해보았다. 관념론은 정신이나 심리적인 것을 우선하여 한국 문학사를 규정하는 것이며, 실천성은 인간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동이 문학사를 형성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관념성과 실천성은 분리되지 않은 공리적 효용성에 의해 인식되다가, 3·1독립운동 후에 이념의 공백 상태에서 관념적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문학사 중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와 임화의 「신문학사」, 「개설 조선신문학사」 등에서는 실천성의 문제가 유물론에 바탕을 두고 서술되고 있으며,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와 박영희의 「현대한국문학사」에 와서 실천성 문제가 프로문학 중심으로 문학사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제1기의 문학사 대부분은 순수문학을 표방하고 참여성을 경계하는 관념성에 바탕을 두고 서술되었다.

그러다가 제2기와 제3기의 사회학적인 방법을 반영한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와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를 거쳐 제4기 김재용 등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 의해 실천성의 문제가 자유롭게 반영되기 시작했다.

131) 김병택, 앞의 책, p. 198.

132) 위의 책, p. 204.

3.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이론

이 부분에서는 문학사 서술 양상의 이론들, 즉 ‘객관론과 주관론’, ‘이원론과 일원론’, ‘인과론과 목적론’ 등이 ‘한국 근대문학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핀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징인 ‘타율성과 자율성’, ‘불연속성과 연속성’, ‘관념성과 실천성’의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사가 안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된 구체론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은 일반론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반론을 살펴보는 이유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수성을 이루는 구체론이 어떻게 구체적인가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일반론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외면하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론을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과 관련시켜 살펴보는 것은 문학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1) 객관론과 주관론

문학사 인식 방법에 있어서 객관론적 인식 태도는 작품의 이해·해석을 중시하려는 경향이며,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 작품의 시대·사회적 역할과 그 가치를 중시하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객관론과 주관론은 한국 문학사 서술에서는 실증주의적 방법과 정신사적 방법에서 각각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문학사 서술에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대하여 그 방법적 적용인 실증주의적 방법과 정신사적 방법에 앞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객관론적 인식 태도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고, 주관론적 태도는 시대·사회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즉, 객관론적 인식 태도는 역사적 사실들을 논리적 기호로 분석하여 역사적 사실들 간의 여러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이고,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역사적 사실들의 개별적 특수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객관론자들은 사건을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전제하면서 사실의 객관적 재구성을 강조하고, 주관주의자들은 단지 이해되고 파악됨으로써 구성되는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¹⁾

그러나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객관론적 의미와 구성된 사실만을 지칭하는 주관론적 의미가 동시에 있는 이중성을 지닌다. 이러한 이중성에 대하여 피렌느는 객관적 인식에 대하여는 “가설이나 종합 없는 역사는 골동품 수집가들의 오락물이 되고 만다.”²⁾고 했으며, 주관적 인식에 대하여는 “비판과 지식 없는 역사는 환상으로 그 자체를 잃어버릴 것”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역사가들은 지식보다도 상상력 있는 가설들을 훨씬 곁핍”⁴⁾하고 있으며, “조사는 귀찮지만 쉬운 반면 상상력은 즐거운 일이지만 어렵다.”⁵⁾고 말한다.

이러한 객관론적 인식 태도와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사실문제로 인식할 경우’와 ‘가치 문제로 인식할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인식 근거는 모든 방법들이 각기 얼마간의 진리를 포함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들은 병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후자의 인식 근거는 가치 측면에서 보아 옳은 방법이 있고 그른 방법이 있다는 데 있기 때문에 방법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진다.⁶⁾

이 객관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사를 이루는 문학 작품 하나 하나를 텍스트로 하여 본문비평, 형식이론, 고증적 접근, 문헌학적 접근 등을 바탕으로 독해와 창작 방법과 관련된 학습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또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사의 근간을 이루는 줄기 속에서 역사주의적

1) 이상신, 앞의 책, p. 249.

2) 임의완, 『역사학의 이해』(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p. 152. 여기서 객관적 인식 방법은 ‘수집’으로, 주관적 인식 방법은 ‘명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3) 위의 책, p. 152.

4) 위와 같음.

5) 위와 같음.

6) 임성운, 앞의 논문, p. 146.

입장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것이다.

(1) 객관론

문학사 인식 방법에서의 객관론적 태도는 문학사를 이루는 작품 하나 하나의 이해·해석을 중심으로 독해하거나 아니면 창작 방법과 관련시켜 학습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문학사를 서술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문학사 서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 중심의 문제 제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로 말미암아 문학사를 메마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학사 인식 태도는 개개인의 사상·감정을 공동체와의 관련 속에서 해석하려 함으로써 개인의 개성은 물론 다양성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폐단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객관론적 인식 태도는 지배와 독재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어 현실이나 사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 이러한 객관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사의 시기구분과 명명의 방법에서도 근거 위주의 실증과 관련시키는 방법을 견지함으로써 문제 제기적 시기구분이나 그 명명, 또는 정신사적 방법의 출현을 더디게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반론에서 말하는 역사 서술 방법으로서의 객관론이란 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②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서 중요한(즉 보편타당한), ③ 감정적 윤색이나 편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운(즉 불편부당한) 등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⁷⁾ 또 객관사학의 본질과 의미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역사는 하나의 대상물 내지 일련의 대상물로서 역사가의 마음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 둘째, 역사가는 이 대상물 내지 일련의 대상물들을 직접 인식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묘사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역사가는 적어도 연구와 서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이념적·사회적·性的·경제적·도덕적·美的

7) 이상신, 앞의 책, p. 239.

관심 등 모든 색채에서 벗어나서 이 대상을 엄정히 공명정대하게 어느 정도 마치 거울이 그 앞의 대상을 비추는 것같이 볼 수 있다는 것, 넷째, 실제 일어난 현실로서의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내적인 관계를 통한 어떤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불편중립의 역사가라면 그것을 연구와 관찰에 의해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역사 서술을 통해 재생하거나 묘사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이러한 역사의 본질은 그 자체로서 순전히 합리적인 혹은 지적인 노력에 의해 파악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어떠한 초월적인 신·심령 혹은 유물론 등에 의해 지배되거나 수반되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⁸⁾

이 객관론은 역사 서술이 시작되었던 시대부터 많은 역사가들의 목표가 되어 왔다. 특히 19세기 랑케에 이르러서는 객관적 서술을 역사가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는 “역사학을 본격적인 학문의 위치로 정립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역사 사실에 대한 주관성의 소거, 즉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⁹⁾으로 보았다. 그래서 랑케는, “역사 서술은 감정이나 가치판단, 즉 일체의 주관성이 배제된 ‘색채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역사가들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거듭 강조”¹⁰⁾하였다.

이 객관성이 문제가 된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근대적인 역사 서술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그것은 근대적 체제를 갖춘 역사 서술이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으며, 그 사관은 실증주의 사관이었기 때문이다. 문학사 서술에서도 이러한 역사 인식의 추이에 따라 객관성을 견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임화는 문학사 연구에 대하여 조선문학사상의 모든 사실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평가’와 역사적 발전의 모든 노정 가운데서 ‘객관적 법칙성’을 찾아내어 체계를 세우는 일은 실로 곤란한 사업이면서도 또한

8) 차알즈 A. 베어드, 『역사적 상대주의』(『역사란 무엇인가』, 이기백·차하순 편, 문학과 지성사, 1981), p. 87.

9) 길현모, 「랑케 사관의 성격과 위치」(전해종 외 『역사의 이론과 기술』,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5), p. 144.

10) 위와 같음.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역사 서술 방법상의 유의점을 내세우고 있다.¹¹⁾ 또 조연현은 역사적 사료 그 자체가 아무런 생명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형해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 부여된 생명의 약동을 표현해 내는 것이 역사가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이며 사명이라면서 그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독단’과 ‘지나간 사상을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는 기계주의적인 事實主義’를 경계하고자 했다.¹²⁾ 객관성이 문학사 서술에 있어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후에도 객관성을 견지하려는 예는 볼 수 있다. 그것은 조동일의 경우이다. 그는 문학사는 문학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기에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객관과의 만남이 이론적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되므로 무시할 도리가 없음을 토로하였다.¹³⁾

이러한 객관성의 견지는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문헌적 태도를 강조하여 문학 잡지의 역사 같은 문학사가 서술되거나, 사조 중심의 단선적 측면을 강조하는 서술이거나, 또는 문학백과사전적 서술이 되기도 하고, 통계학적인 방법을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술들은 최초주의와 공적 위주의 평가에 함몰되어 문학적 가치보다는 발표 잡지의 우열을 우선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또 서구 사조의 흐름에 한국 근대문학사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재단하여 일반화하거나 빠짐없이 모두를 진열하는 백화점식 나열 등으로 말미암아 문학사의 역사상을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기도 하고,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 수치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역사 사실들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경우는 특히 조연현과 백철에게서 두드러졌다. 조연현은 최초주의와 잡지의 역사로, 백철은 사조 중심으로 일반화하였다. 이러한 문학사 서술의 폐단은 권외의 문학을 소외시켰음은 물론 이들을 제대로 평가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도권 문학이라는 성곽을 쌓게 되었으며, 성 밖의

11)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1)(『조선중앙일보』, 1935. 10. 9).

12) 조연현, 앞의 책, p. 4.

1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1권, p. 33.

문학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예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멸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 최초의 근대소설의 문제에 대한 조연현의 다음 서술을 보면, 그 문제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광수의 「나의 문단생활 30년」을 보며는 「소년의 비애」보다 9년이나 앞선 「소년」지 창간의 해인 4241[서기 1908]년에 이미 「원한」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공인된 문학적 사실로서는 역시 「소년의 비애」를 한국최초의 근대소설로써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¹⁴⁾

이러한 서술 태도는 문학사적 가치의 판단 기준을 공인성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무정」을 한국 최초의 근대소설로 보는 이유로, 첫째는 시간적인 순서에 의하면 「소년의 비애」가 한국 최초의 근대소설이 되지마는 일반적인 공인성이나 영향력이 「무정」에 따를 수 없는 점, 둘째는 「무정」이 시간적인 순서로 봐서는 「어린 벗에게」 다음에 발표된 것이지만 그 시간적인 순서가 불과 몇 개월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시간적인 차이라는 것은 조금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 않는 점, 셋째는 이 무렵의 작품인 「소년의 비애」나 「어린 벗에게」나 「운광호」, 「방황」 같은 것이 작품적인 성과나 그 근대소설적인 특질에 있어서나 모두 「무정」에 비교될 수 없는 점, 넷째는 그 당시의 시간적인 조류를 「무정」이 가장 잘 반영시킨 점, 다섯째는 다른 작품이 모두 단편인 데 비하여 「무정」은 이 작자가 가장 많은 정열과 의욕을 기울인 장편이라는 점¹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주의와 공인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를 서술함에 있어 방법이나 이론을 앞세우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 서술 의의를 “국문학의 여러 면모와 두루 만나고, 깊이 대화를 나누며, 그 폭과 맥락을 절실하게 드러내서 오늘날의

14) 조연현, 앞의 책, pp. 170~171.

15) 위의 책, p. 172.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학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우선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하는 데 힘쓰고, 문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부터 일거리로 삼고자 한다.”¹⁶⁾고 밝혔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어느 한 쪽에 편파되지 않는 객관적 자세를 견지한다는 이야기이며, 평가를 유보하고 독자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도의 문학사 서술은 논문이나 저서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용직은 『한국근대사』를 서술하면서 문학사의 배경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통계적 수치를 활용하였다.

그런데도 객관성의 문제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객관성이 역사에 대한 진실한 설명을 방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판단의 불공평성과 애착의 불공평성간의 구별의 결여이며, 다른 하나는 설명의 다양성에 대한 언급이다. 이는 모든 역사 사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들 설명은 서로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 있어서도 아그네스 헬러의 견해는 타당하게 적용된다. 전달 매체인 잡지와 사조 중심, 그리고 백과사전식 열거, 통계적 수치 중심의 서술 태도는 문학사를 유연하게 서술하지 못하고 박물관적 자료의 검토와 같은 메마른 작업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 문학사 서술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사실(die objektive tatsache)이란 역사 연구의 실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역사사실이라고 부르는 바는 과거의 어떤 한 시대, 한 지역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과거에 일어났었던 바는 일정한 각도에 의한 파악을 통해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의 내적인 연관성을 지닌 사건으로서, 즉 원인과 목적, 영향의 한 종합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⁸⁾

1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1권, pp. 6~7.

17) 아그네스 헬러, 『역사의 이론』(강성호 역, 문예출판사, 1990), p. 172.

18) 위의 책, p. 79.

그리고 객관적·비당파적 서술이란 실로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무의미한 일이다. 오직 진실과 덕성을 위해 ‘분노와 열정이 없는(sine ire et studio)’ 태도로써만 연구하고 서술해야 한다는 요구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宦官적 객관성(eunuchische objektivität)’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그러므로 주관성이 배제된 인식행위란 실제에 있어서는 외면적인 현상에 대한 보고나 불확실한 견해를 제공할 뿐²⁰⁾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객관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사를 이루는 작품 하나 하나의 이해와 해석을 중심으로 독해하거나 아니면 창작 방법과 관련시켜 학습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문학사를 서술하는 태도이다. 임화는 ‘엄밀한 과학적 평가’를 견지하려 하였으며, 조연현은 ‘주관적인 독단’을 경계하였으며, 조동일은 ‘여러 면모와 두루 만나고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힘쓰고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김용직은 통계적 수치를 통하여 문학사의 배경인 사회상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객관론적 인식 태도는 판단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설명 방식을 방해하여, 연구 중심의 문제 제기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로 말미암아 문학사를 메마르게 만들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러한 객관론적 인식 태도를 극복한 주관론적 인식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주관론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 작품의 시대·사회적 역할과 그 가치를 중시하려는 경향이다. 문학사를 이루는 문학 작품 하나하나를 독해와 창작 방법과 관련된 학습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객관론적 인식 태도와 달리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사의 근간을 이루는 줄기 속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묻는 것이다.

19) 위의 책, p. 104.

20) 위의 책, p. 239.

이러한 주관론적 인식 태도에 대해 문학사적으로는 일반 역사의 문제와 다른 각도에서 설명된다.²¹⁾ 즉, 첫째, 일반 역사인식에서는 형이상학적 일면이 강하지만, 문학사의 인식에 있어서는 이 주관성이야말로 문학의 존재의 속성으로, 둘째, 일반사에서와는 달리 그 인식 대상, 즉 예술작품의 존재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성이 더욱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셋째, 문학예술작품의 존재와 구조 때문에 그 역사적 인식에 있어서 일반사의 인식에 비해 과거성보다는 현재성이 강조되며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김현은, 문학사는 역사와는 엄연히 다른 감정적 차원에서 서술해야 한다면서, 문학적 집적물인 문학사 서술에서는 반드시 감동과 향유라는 정서적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서적 차원이 배제된 문학사란 문서기록이나 고증의 차원에 떨어져 버린다고 경계하였다.²²⁾

이러한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사 연구에 있어서 가치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데올로기 특성을 갖게 만들며²³⁾, 문학사 연구자를 의미의 탐구자가 되도록 한다.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또 문학사가로 하여금 정신사적 방법의 문학사를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사적 문학사는 주관적인 체험, 즉 ‘삶의 현실’에서 개별 인간들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어떻게 체험·행동하는가 하는 내면적 문제에 더 큰 비중²⁴⁾을 두게 되기 때문이다.

문학사 인식 태도에서의 주관론은 역사 서술 방법의 이론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주체를 능동적 담지자(擔持者)로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역사가는 발견하고 설명하며 눈에 띄는 것을 모두 무차별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본질을 골라내어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학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역사가의 관심과 통

21) 임성운, 앞의 논문, p. 37.

22) 김윤식·김현, 앞의 책, p. 9.

23) 임성운, 앞의 논문, p. 147.

24) 위의 논문, pp. 130~131.

찰력에 의해 조건지어진다.²⁵⁾ 즉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주관론적 인식 태도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역사가가 자신의 관심과 현재적 가치²⁶⁾를 바탕으로 읽어내려는 것이다.

주관론적인 인식 태도는 실증주의자들에 의해서 노력이 경주되었던 객관적 행동 지침보다 더욱 진실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실존적 기준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²⁷⁾ 그리고 이에 의한 인식 태도는 두 가지를 뜻하고 있다.²⁸⁾ 그 하나는 물질적으로 조건되고 있는 존재에 대립된 주체에서의 의식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적으로 조건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주체로서 행동하는 개체의 활동이다.

크로체는 역사를, 정물을 마음에 담아 그려가는 예술가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역사는 예술의 한 분야와 같이 개체를 감각으로 느끼고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크로체의 역사학은 그 본질을 직관활동이나 예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²⁹⁾ 따라서 주관론으로서의 역사는 예술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것들을 서술해 나아가는 것이지 일반 법칙을 추구하는 것도, 진화론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귀납법을 찾는 것도 아니다. 역사는 예술과 같이 특정의 개별적인 개체가 그 관련된 영역이므로 역사는 예술의 일반적 개념³⁰⁾ 아래에 포괄되는 것이다.

역사의 주관론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실용주의 철학이 발

25) 존 A. 패스모어, 「역사의 객관성」(『역사란 무엇인가』, 이기백·차하순 편, 문학과 지성사, 1981), p. 58.

26) 이러한 현재적 가치에 대하여 키에르케골(Kierkegaard)은 “주관성은 진리이며 현실성이다.(Die Subjektivität ist die Wahrheit, Die Subjektivität ist die Wirklichkeit)”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M. 마렌그리제바하, 『문학연구의 방법론』, 장영태 옮김(기린원, 1989), p. 101에서 재인용.

27) M. 마렌그리제바하, 『문학연구의 방법론』, 장영태 옮김(기린원, 1989), p. 102.

28) 위의 책, p. 170.

29) 임의완, 앞의 책, p. 77.

30) 위의 책, p. 78.

달한 미국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상대론적 역사가들 (relativist historians)은 역사적 사실의 절대적 가치나 객관성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실의 가치도 달라진다고 보았다.³¹⁾ 따라서 주관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시대적·사회적 산물이 되는 것이다. 주관성은 오직 시대와 사회 속에서 획득하거나 확립하는 것이며, 그 인식의 근원이 인간의 사회적 모든 활동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주관론적 인식 방법에 따른 문학사 서술은 이재선에 와서 실현되었으며, 김용직의 서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재선은 『한국현대소설사』(1979)에서 “소설의 미학과 역사적인 사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 현대소설의 흐름과 특징을 (...) 작품의 내재성을 존중하며 재래의 역사적 객관주의가 지닌 식성을 배제해 보고자 한다.”³²⁾고 하여 그 동안 서술된 문학사가 안고 있는 지나친 객관주의적 편향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김용직은 역사에서 시간은 완전하게 객관적인 것일 수가 없고 동시에 자연의 그것에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우선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정서와 의지·의식·행동이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역사의 시간이 적지 않게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것임을 말해 준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역사가 일정한 보폭을 따라 움직이는 객관적 시간의 흐름이 아님을 뜻한다. 그리하여 역사의 시간개념에서는 당연히 우리 자신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주관론적 인식 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³³⁾

실제로 이재선은 그 동안 서술된 문학사의 객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현대소설사』를 서술하면서 ‘개화와 완고의 양극성’, ‘범죄와 폭력의 현실관’, ‘궁핍한 시대와 가난의 생태학’, ‘죽음에의 인력과 견제력’ 등 주제사적인 소설사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주제사는 정신사의 한 갈래로 주관론적 인식 방법에 따른 서술이 되는 것이다.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그 동안 평가 유보적 자세의 문학사 서술이나

31) 위의 책, p. 82.

32) 이재선, 앞의 책, pp. 9~11.

33) 김용직, 앞의 책, p. 31.

백과사전적 배열에 식상한 문학사 서술을 일정하게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주관론적 인식 태도에 입각한 문학사 서술은 문학사가의 주체성과 문제의식의 문제로 귀결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실증주의 사관이 사관 부재의 사관이 되었던 것처럼 주관론적 인식 태도에 있어서도 사관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단순 방법론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는 독재 시대를 지나오면서 현실과의 문제를 역사적 지혜로 풀어내려는 사관을 불온시켰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이러한 시대적 제약을 극복하고 한국 문학사와의 관련하여 하나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사관의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 과제는 한국문학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분단 극복의 문제와 통일문학사와의 관련하여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관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 작품의 시대·사회적 역할과 그 가치를 중시하려는 경향으로 문학사의 근간을 이루는 줄기 속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묻는 문제 제기적 문학사를 쓰게 한다. 이재선은 작품의 내재성을 존중하고 재래의 역사적 객관주의가 지닌 식성을 배제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주제사적 문학사를 서술하였다. 또 김용직은 우리 자신의 정서와 의지·의식·행동이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주관론적 인식 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객관론적 인식 태도의 한계는 판단의 불공평성과 다양한 설명 방식을 방해하며, 연구 중심의 문제 제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로 말미암아 문학사를 메마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관론적 인식 태도에 입각한 문학사 서술에서는 문학사가의 주체성과 문제의식의 문제로 귀결되는 사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인식 태도가 가지는 여러 한계는 독재 시대를 지나오면서 현실과의 문제를 역사적 지혜로 풀어내려는 사관을 불온시켰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원론적 인식 태도와 일원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사 서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원론과 일원론

역사 서술 방법에 있어서의 이원론적 인식 태도와 일원론적 인식 태도는 ‘무엇과 무엇’을 둘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그 ‘무엇’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설명된다. 문학사에서의 이원론적 인식 태도와 일원론적 인식 태도의 문제는 사회와 문학, 현실과 문학, 시대와 문학 등을 분리해서 인식하느냐 아니면 통일된 하나 속에서 인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사회·시대·현실을 역사에 비추어 재구성하여 인과론적으로 인식하는 역사주의(historism)적 입장을 이원론적이라고 한다면, 사회·시대·현실을 목적론적으로 인식하여 오늘의 시각으로 보는 透視主義(perspectivism)³⁴⁾적 입장을 일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우선 이원론적 인식 태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원론

34) René Wellek and Austin Warren, 『문학의 이론』(송관식·윤홍로 공역, 한신문화사, 1982), pp.42~43에 의하면, 透視主義는 “역사적 상대주의에 대응하는 것이 ‘불변의 인간성’이니, 혹은 ‘예술의 보편성’이니 하는 것에 호소하는 공론적인 절대주의는 아니다. 투시주의라고 하는 용어에 알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비교할 수 있고, 발달하고, 변화하고, 가능성에 가득 찬 하나의 詩가, 하나의 문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perspectivism을 이경수는 ‘展望主義’라고 번역하고 있다.

35) 이원론적 역사주의와 일원론적 투시주의는 하나로 통합 인식하려는 신역사주의가 발달하고 있다. 정정호, 『진환기의 문학과 대화적 상상력』(한신문화사, 1998), p.156~181에 따르면 이러한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는 “오래고 녹슨 <역사>의 개념을 다시 꺼내 갈고 닦아 조합해 보려는 작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서의 이원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을 사회·시대·현실·역사 등의 문제를 당시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인과론적으로 문학을 인식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배층에 의해서 이용되어 문단과 문학사를 양분하는 수단으로 원용되기도 하였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학과 현실을 하나로 보고 이를 실천적으로 수단화하는 데 따른 반감을 이용하여 일제 강점기와 독재 체제에서는 문학과 현실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 인식 방법과 이를 둘로 보는 이원론적 인식 방법으로 나누어 왔다.

이는 지난 1980년대 후반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이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가고 있는 20세기말의 세계사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인식 방법이다. 이는 일원론적인 세계사적 발전법칙에 대한 회의를 더욱 부추기었으며, 기성이론에 맞추어 역사를 해석³⁶⁾하려는 도식주의 경향의 위험성이 논의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의 이원론적 인식 태도에 대하여 임화는 문예 및 예술의 역사적 발전의 해명에 있어 한 시대의 문학과 그 전과 후 시대의 문학적 발전의 내적 관련성의 설명에 있어 완전히 무력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이원사관은 과거 카프의 조직적 와해를 촉진시키는 변질주의(變質主義)의 이론적 무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新傾向派 文學의 形成으로부터 李箕永의 小說 『故郷』을 生産한 노픈 水準에 이르는 十年間의 巨한 苦難에 찬 行路를 거러온 푸로文學의 全存在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成立하고, 또 發展해온 藝術上의 ×[黨] 派的 見地를 破壞할려는 데 이 二元史觀은 實로 效果的”³⁷⁾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원론적 인식 방법은 일제 강점기에 파시즘 세력이 팽창하면서 식민지 정책에 장애가 되는 일원론적 인식을 억압하여 사상적 활동의 자유 일체를 말살하면서부터 새롭게 등장했다. 이러한 억압으로 불안이 가중

36)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특강』(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p. 25.

37)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3)(『조선중앙일보』, 1935. 10. 11).

되어 새로운 인식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울, 애수, 고민 등 퇴폐적으로 흐르던 문단이 일원론적 인식의 기반을 잃으면서 이원론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물러난 광복 후에 와서도 일원론적 인식에 대한 논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즉 분단 상황에서 북쪽이 일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문학을 비롯한 역사 법칙을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북쪽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남쪽에서는 이원론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원론적으로 인식하려는 참여론적 주장과 활동은 여러 모로 수난을 당해야만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이원론은 통일성이나 단일성(einheit)을 부인하기 때문에 문학과 현실이 상호간에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원론적 인식에 의한 문학사적 사실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드러나고 있다. 조동일은, 김소월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이상을 넘으로 설정하고, 현실의 변민이 님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했다. (...) 님을 올려 놓고, 자기는 그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와했다. 님은 시인이 겪은 고독·비에·자학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벌려놓는 이원론적 사고구조를 마련했다. 이러한 사고구조가 고착화되어 시 형식이 단조로워지고, 시인의 생각이 왜소하게 움츠러들었다. 시인의 위치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길은 찾았으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스스로 봉쇄했다.”³⁸⁾고 하여 김소월은 이원론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현실대응의 자세가 소극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하정일은 김억의 「예술적 생활」의 일부를 들어 예술지상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① 예술이 현실보다 우월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② 예술 대 현실의 이분법이 나타난다, ③ 예술의 인생화가 아니라 인생의 예술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김억의 글에서의 현실은 ‘불안전한 실재’의 세계인 데 비해 예술은 완전한

3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5권, p. 67.

실재의 세계이다. 이러한 김억의 논리 밑에는 예술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김억이 생각하는 ‘인생을 위한 예술’이란 것도 삶과 현실의 요구에 맞춰 예술적 실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고정된 이상향으로서의 예술에 맞춰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이원론적 사고의 폐단을 지니고 있다.³⁹⁾

그는 또 김동인의 예술지상주의 문학론과 관련하여 이를 역사진보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소시민적 현실도피주의의 문학론상의 반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적 문학사 인식이 바탕이 된 예술지상주의적 문학관은 우리 문학사의 가장 반사회적이고 반민중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다.⁴⁰⁾

오성호는 『시문학』지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시인들에 대한 서술에서 이들은, 1920년대 초기 시의 감상주의와 카프의 편내용주의에 반발하여 이른바 순수 서정시의 길을 개척하였는데, 언어의 아름다움을 성취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언어와 삶 그리고 역사와의 의미 깊은 관련을 배제하여 당대의 현실과 유리된 유풀적인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⁴¹⁾고 이원론적 인식 방법의 실천된 예를 『시문학』지에서 찾았다.

그리고 하정일은 백철의 휴머니즘론, 최재서와 김기림의 모더니즘론, 김동리와 김환태의 순수문학론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예술지상주의적 경향을 드러내면서 소시민 작가들의 이념적 동요와 현실도피주의를 반영하는 이원론적 인식의 틀에 얽매어 있었으며, 이것들은 해방 이후 보수주의 문학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었다⁴²⁾고 이원론적 인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원론적 인식 방법에 기초하여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는 경우는 조연현의 『현대문학사』(1956)가 가장 두드러진다. 문학을 시대나 현실 문제로부터 분리시켜 문학 자체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많은

39) 김재용 외, 앞의 책, p. 425.

40) 위의 책, pp. 429~430.

41) 위의 책, p. 522.

42) 위의 책, pp. 796~797.

문학사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원론적 인식 태도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의 이원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과 사회·시대·현실·역사 등의 문제를 분리하여 문학을 문학 자체로만 인식하는 태도이다. 이 이원론적 인식 방법은 문단과 문학사를 양분하여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즉, 일제 강점기에 파시즘 세력이 팽창하면서 일원론적 인식을 억압하여 사상적 활동의 자유 일체를 말살하면서부터 등장했다. 이러한 억압으로 불안이 가중되어 우울, 애수, 고민 등 퇴폐적으로 흐르던 문단이 일원론적 인식의 기반을 잃으면서 이원론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물러난 광복 후에 와서도 일원론적 인식에 대한 논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이원론적 인식에 의한 문학사적 사실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적되고 있다. 김소월의 소극적 자세, 김억의 『예술적 생활』, 『시문학』지의 시인들을 비롯하여, 예술지상주의 문학론, 휴머니즘론, 모더니즘론, 순수문학론 등이 이원론적 인식의 틀에 얽매어 있었다. 또 이원론적 인식 태도로 일관된 문학사로는 조연현의 문학사가 대표적이며, 그 외 많은 문학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2) 일원론

한국 근대문학사에서의 일원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문학사와 사회·시대·현실·역사 등의 문제를 목적론적으로 인식하여 오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을 비롯한 시대·사회·역사 등과 문학적 이상과의 관계를 실천적 입장에서 인식하려는 입장이다.

역사 서술에 있어서 일원론적 인식 태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동일한 존재의 성격과 구조를 지녔다고 보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기술하거나 논리적 기호로 분석하여 역사적 사실들 간의 여러 관계를 일반화”⁴³⁾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학에 도입되어야

할 과학적 논리의 하나로 칼 험펠이 포괄법칙의 모델(covering-law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역사를 하나의 경험과학으로 보고, “역사의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적 방법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설명의 방식에 있어서도 양자에 공통된 단일한 논리적 방식이 있을 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⁴⁴⁾고 말하고 있다.

또 이기백은 “일원론적 역사 발전법칙이란 것이 곧 유물사관의 공식”⁴⁵⁾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원론적 관점은 일제 강점기와 독재정권 아래에서 많은 시련을 받아왔다. 이원론이 통일성이나 단일성을 부인하고 상호간에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일원론은 하나를 다른 하나로 끌어들이고 그 상대적 자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다.

임화는 “藝術과 生活의 不可分의 關聯과 生活的 現實에의 藝術의 從屬을 強烈한 口調로 絶叫하면서 낡은 文學에 挑戰”⁴⁶⁾했다고 신경향파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신경향파 문학의 그러한 태도는 사회경제적 사정의 추이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자연주의 문학과 낭만주의 문학의 퇴화는 이 신경향파 문학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므로 점차 생활로부터 유리되고 예술지상주의로 전화하는 퇴화된 자연주의와 관념적인 비관과 절망의 독백으로 始終하는 낭만파적 시가에 대하여 그들은 투쟁자의 입장에 섰는데, 이는 필연의 순리라고 일원론적 인식 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까지 제시하고 있다.⁴⁷⁾

이 일원론적 인식의 문제는 일제 강점기의 저항과 순수의 문제와 광복 후의 참여와 순수의 문제에서 저항과 참여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나 여러 방면에서 억압을 받아 왔었다. 일원론적 인식 방법은 1970년대

43) 임성운, 앞의 논문, p. 31.

44) 길현모, 「역사학과 사회과학」(『이광주·이민호 편, 『현대의 역사이론』, 한길사, 1993), p. 153.

45) 이기백, 「한국사학에 있어서의 사학의 문제」(차하순 편,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0), p. 270.

46) 임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21)(『조선중앙일보』 1935. 11. 7).

47) 위의 글, p. 360.

에 들어와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에 있어서의 발생구조론」을 바탕으로 이론화되면서 현실 참여라는 적극적 입장보다 사회 일반론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르면 골드만은 ‘상동성’(homology)의 개념을 가지고 예술과 사회의 연관성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만들려고 했다.⁴⁸⁾ 즉 한 사회 집단의 세계관과 문학 작품의 구조 사이의 상동적 ‘필연성’이라는 본질에 관하여 일원론적 인식의 논리를 확보하려고 했다.⁴⁹⁾

또 김병택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문학은 시대성과 공간성을 지니는 것으로 문학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⁵⁰⁾ 김치수는 골드만의 「문학 사회학에 있어서의 발생구조론」을 언급하면서 “소설 작품이 집단의식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소설 구조 사이에는 <동질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사회의 구조 분석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설 구조를 사회 구조에다 대조시켜 봄으로써 소설의 발생론적 의미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⁵¹⁾으로 사회 구조와 소설 구조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문학은 그것이 태어난 사회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현상을 문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예술적 장치에 의해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라면, 사회는 그러한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그 문학마저도 자신의 일부를 포용하게 되는 대단히 넓은 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대단히 많은 이견들이 있다.

48) 윌리엄 Q. 빌하우어, 「발생적 구조주의의 방법과 성격」(뤼시앙 골드만, 『문학사회학적 방법론』, 박영신 외 옮김, 현상과 인식, 1984), p. 45.

49) 위의 글, p. 49.

50) 김병택, 앞의 책, p. 252.

51) 김치수, 『문학사회학을 위하여』(문학과 지성사, 1979), p. 260.

이러한 일원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사를 서술한 경우는 안확으로 그는 1922년 『조선문학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思想史 全體를 觀察하면 四千年의 許久한 歲月에 其變遷이 多한 波瀾을 起한 듯하나 實은 二期의 變에 不外하다 第一期는 上古 一千二百年間이오 第二期는 中古 近古 近世를 統合한 바 凡三千年間을 一期로 見하니 (...) 後期는 自己 本來의 自由가 物質의 束縛을 受하기 不可함을 自覺하여야가니 藝術의 風尚이 一變한지라 然이나 아직도 幼稚하여 自然을 超過치 못하니 이는 運命主義下에 屈服함이라 故로 此三千年間의 藝術은 人生과 自然을 均衡되기에 力을 致하니 其作品은 自然界를 工巧히 模倣하여 景物을 客觀的으로 描寫함에 奔走하니라⁵²⁾

안확의 이러한 인식은 일제의 파시즘이 확산되기 이전으로 일원론적 인식이 장애적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의 서술이다. 일원론이 일제 파시즘에 의해 견제되기 시작할 무렵의 서술로는 임화를 들 수 있다. 그는 문학사의 ‘토대’를 설명하면서 “新文學은 새로운 社會經濟的 基礎 위에 形成된 精神文化의 한 形態”⁵³⁾로 간주하여, 그의 저술 전반에서 이원론을 견제하고 일원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사를 바라보았다.

이 일원론에 기초하여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는 예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임화의 『신문학사』 등을 비롯하여, 광복후의 이명선의 『조선문학사』(1948),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 이재선의 『한국현대소설사』,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김재용 외 3인이 쓴 『한국근대민족문학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원론적 인식 방법과 일원론적 인식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원론적 인식 태도가 문학과 사회·시대·현실·역사 등의 문제를 분리하여 문학을 문학 자체로만 인식하는 태도라면, 일원론적 인식 태도는 문학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문학과 사회·시대·현실·

52) 안확, 앞의 책, p. 115.

53) 임화,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2)(『동아일보』 1940. 1. 14).

역사 등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바라보는 인식하는 태도이다.

둘째, 이원론적 인식 방법은 일제 강점기에 과시즘 세력이 팽창하면서 일원론적 인식을 억압하여 사상적 활동의 자유 일체를 말살하면서부터 등장했다. 일제가 물러난 광복 후에도 분단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일원론적 인식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골드만의 「문학사 회학에 있어서의 발생구조론」을 바탕으로 이론화되면서 사회 일반론의 범위로 넓혀나가게 되었다.

셋째, 이원론적 인식에 의한 문학사적 사실들은 예술지상주의 문학론, 휴머니즘론, 모더니즘론, 순수문학론 등이다. 이에 따라 문학사를 서술한 예는 조연현이 대표적이다. 일원론적 인식 방법에 기초하여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는 경우는 김태준, 임화, 이명선, 김윤식·김현, 이재선, 조동일, 김재용 외 3인 등이 대표적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인과론적 인식 방법과 목적론적 인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인과론과 목적론

앞에서 살핀 객관론과 주관론, 이원론과 일원론 이외에 문학사 인식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살피고 넘어가야 할 문학사 인식 방법으로 인과론적 인식 방법과 목적론적 인식 방법을 들 수 있다. 작품이 생산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시간으로 소급하여 역사적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는 역사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식하면 인과론적 인식 방법이며, 미래 시간을 지향하여 투시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식하면 목적론적 인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객관론적 인식 방법과 실증주의적 문학사, 또는 영향사와 관계되며, 주로 작품 생산 배경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 반면에, 후자는 일원론적 인식 태도와 주관론적 인식 방법, 실천성, 그리고 사회학적 문학사와 관계되며, 주로 대상을 의식하는 지향성(志向性)을 중심으로 인식하게 된다.

(1) 인과론

문학사 인식 방법에 있어서의 인과론적 인식 방법은 작품이 생산된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로 소급하는 것으로 객관론적 인식 방법과 실증적 방법, 또는 작품 생산 배경이나, 상호간의 영향 관계하에 계기된 사건들과의 상호 필연성을 해명하려는 방법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무엇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서술하지 않고, 무엇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대답까지 서술하는 것을 그의 임무로 삼게 된다.

문학사 서술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인과론적 인식 방법은 실증의 차원에서 소박하게 인식하는 정도였다가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1973)에 와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김현은 문학사를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적 집적물을 부분과 부분의 상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체로 파악하는 일로 전체하고, 그 전체를 이루는 부분부분들을 관계가치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부분과 부분과의 관계를 통해 일종의 의미망이 형성된다. 그 의미망은 물론 부분과 부분에 관계가치를 부여한 자의 몫이다. 그 의미망을 통해 문학사가와 문학사와 문학적 집적물은 삼위일체를 이룩한다. 과거의 문학적 집적물은 그때 의미망을 이루려는 기호 역할을 맡는다. 그 기호를 이해하려는 문학사가는 그것에 관계가치를 부여하려는 의미인이 되며, 그 의미망이 문학사를 이루는 것이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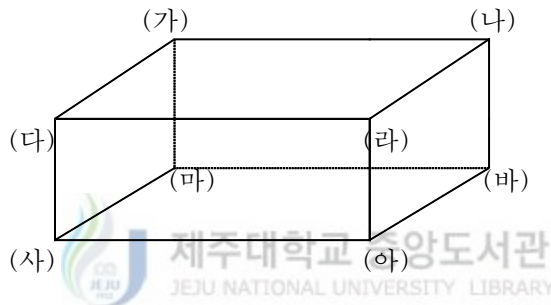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입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파편의 연속에서 탈피하여 단절이나 분리의 지나친 편리에서 벗어나 역사적 필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학작품 한 편 한 편 그 자체가 바로 역사가 아니라, 역사적 서술에 의하여 역사적 요소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인과론적 인식 방법은 조동일의 입체적 인식에서 절정을 이루고

54) 김윤식·김현, 앞의 책, p. 11.

있다. 그에 따르면 문학사는 “시간과 문학 갈래에 의한 면의 전개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문학층에 의한 면의 전개”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면 중에서 하나만 살핀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두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하는 것은 문학사를 면으로 생각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주장하고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사를 면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체로 생각해야겠다. 입체로 생각해야만 두 가지 면을 함께 포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가)(사)(마)면은 문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면으로서 수평축은 문학의 갈래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문학층을 나타낸다.

(라)(나)(아)(바)면은 오늘날의 문학을 의미하는 면으로서 역시 수평축은 문학의 갈래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문학층을 나타낸다.

(가)(나)(다)(라)면은 최상층의 문학을 의미하는 면으로서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종축은 문학의 갈래를 나타낸다.

(마)(바)(사)(아)면은 최하층의 문학을 의미하는 면으로서 역시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종축은 문학의 갈래를 나타낸다.

(다)(라)(사)(아)면은 문학의 갈래 중에서 한쪽 극단을 택해서 문학층을 의미하는 면으로서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문학층을 나타낸다.

(가)(나)(마)(바)면은 문학의 갈래 중에서 또 다른 쪽의 극단을 택해서 문학층을 의미하는 면으로서, 역시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문학층을 나타낸다.⁵⁵⁾

55)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pp. 228~229.

이를 정리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거리는 과거(시작점)와 오늘의 시간 개념, 위에서 아래로의 개념은 담당층의 양쪽 극단을 일컫는 계층 개념, 앞에서 뒤로는 문학 갈래의 양쪽 극단을 일컫는 갈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문학사는 이와 같은 입체의 전개이며, 작품이나 작가는 이와 같은 입체 속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다. 입체는 속이 텅 비어 있고, 겉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겉면은 좌표의 축과도 같은 것이고,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은 문학의 실상이다. 좌표의 축과 같은 겉면은 속에 들어 있는 문학의 실상을 측정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⁵⁶⁾고 문학사를 입체로 인식하고 어느 하나의 독립도 허락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 김용직은 “인과판단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① 인과판단의 사각지대인 인과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 ② 원인 추적에 있어 폐쇄성이 강한 문학의 테두리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경우, ③ 작품의 제작과 형성을 가능케 한 일체의 주변환경인 배경·여건까지가 수용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었다.⁵⁷⁾ 그러면서 역사의 올바른 이해·평가를 위해서 인과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까닭을 ‘사건’과 ‘사실’ 두 가지로 보고 사실과 사건들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들 사이에 유기체적 유대감이 포착될 수 있어야 함⁵⁸⁾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 때 문제되는 유대감을 효과적으로 살리는 길이 곧 인과판단을 적용시키는 일이라고 부연하였다.

이러한 인과론적 인식 방법에 대해서 스피러는 문학사가는 인간성의 기본 특징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각 시대의 기질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통제된 특징들의 어느 것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와 운동의 신호를 찾아 그것들의 근원과 용성과 쇠퇴를 추적하여 그것들을

56) 위의 책, p. 229.

57) 김용직, 앞의 책, p. 35.

58) 위의 책, p. 31.

정의하는 것이 문학사가로 하여금 직선적 연대기로서가 아니라 인과적이고 주기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다루게 된다⁵⁹⁾고 주장하였다. 또 마렌그리제바하는 주어진 것[所與]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ursache-folge-relation)는 증명 가능한 것이며, 또 증명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인과의 의의에 대하여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① 삶과 작품의 통합, ② 문학사 발전과정의 확정, ③ 작가 및 작품의 위치를 결정, ④ 작품과 독자, 작품과 비평 사이의 관계 등이다. 그는 이것들을 통해서 인과율은 검토될 만한 충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⁶⁰⁾고 인과 판단의 의미를 제시했다.

이러한 인과론적 방법의 전개는, 생트-뷔브에서부터 시작되고, 테느(H. A. Taine)에 와서 확립되어 유럽의 여러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방법으로는 작가의 전기, 역사적 환경 그리고 문학적 원전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실증적 방법을 강조하는 랑케적 방법인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은 상호간에 접촉하고 영향을 주며 앞서 가는 것은 뒤에 오는 것을 결정한다.”⁶¹⁾는 ‘원인과 결과와의 연결’에 의존하여 인식하여 왔었다.

이러한 인과론적 인식 방법을 문학사에 실천하고 있는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문학사에서 적용되고 있다. 문학사 서술에서 하나 하나의 작품을 독립된 것으로 보면 문학사 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문학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1기 문학사에서는 앞서 살핀 김용직이 제시하는 세 가지 종류로 볼 때 세 번째에 해당하며, 제2기부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인과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과론적 인식 방법을 정리하면, 이 방법은 과거로 소급하는 방법, 객관론적 인식 방법과 실증적 방법, 또는 작품 생산 배경이나, 상호간의 영향 관계하에 계기된 사건들과의 상호 필연성을 해명

59) 로버트 E. 스피러, 『문학사』(『문학의 해석』, 김인환 역, 홍성사, 1978), p. 115.

60) M. 마렌그리제바하, 앞의 책, pp. 24~25.

61) 차하순 편, 『사관이란 무엇인가』(청람, 1993), p. 51.

하려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 김현은 문학적 집적물을 부분과 부분의 상호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체로 파악했으며, 조동일은 시간, 계층, 갈래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김용직은 ① 인과판단의 사각지대인 경우, ② 원인 추적에 있어 폐쇄성이 강한 경우, ③ 일체의 주변환경인 배경·여건까지가 수용되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에는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인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목적론

문학사 인식 방법에 있어서의 목적론적 인식 방법은 작품이 생산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 시간을 지향하여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는 주관론적 인식 방법, 사회학적 문학사, 정신사적 문학사, 발전사관, 진보의 법칙 등과 관계된다. 주로 대상을 의식하는 지향성(志向性)이나 작가의 표현의도 등을 중심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의 가치관이나 철학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목적론적 방법에 의해서 한국 근대문학사를 인식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이 나타난다. 목적론적 인식은 효용론으로 발전하여 서술되었는데, 효용론은 심미적 효용론을 비롯하여, 이데올로기적 효용론, 민족주의적 효용론, 계급주의적 효용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⁶²⁾ 이 효용론의 갈래로 보면, 문학사를 인식함에 있어 목적론적 인식 방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목적론적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첫째, 개화기로 일컬어지는 시기의 문학사에 대해서는 민족의 자주적 역량이나 계몽의식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문학사 서술에 반영되고 있다. 둘째, 개개인의 문학 활동을 여럿이 활동하는 ‘운동’, 또는 ‘파(派)’ 등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인식하여 어떤 일정한 목적과 지향성을 가지고

62) 김병택, 『한국근대시론연구』(민지사, 1988), pp. 61~83.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신경향파와 카프의 문학을 중심으로 계급 의식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다. 넷째,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민족의 지도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조운제의 성장 단계에 의한 시기구분 방법과 같은 발전사관에 의해서 인식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시대·역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다. 일곱째, 심미적 목적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론적 인식은 특히 근대문학의 경우에 두드러지며, 이는 지도 이념이나 지도 원리와 관련시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사에서의 목적론적 인식은 세 가지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식의 주체자인 서술자가 하나의 목적론적인 관점으로만 강제하려는 경향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신경향파나 카프의 목적 의식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점, 또 다른 하나는 도식주의적 독단에 빠져있다는 점 등이다.

일반사에서는 목적론적 사관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의 방향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 역사의 의미는 어떤 보편적인 구조 속에 숨겨져 있지도 않으며, 결정론적이거나 목적론적일 수 없다.⁶³⁾ 둘째로 경험적 관찰이나 역사 사실에 의한 입증과는 거리가 있다.⁶⁴⁾ 셋째로 대체로 역사를 추상적으로 개념화하는 데 편향되어 있어서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경험적 사실의 결여를 낳는 경향이 있다.⁶⁵⁾ 넷째로 설사 논리적 타당성을 위해 사실 입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세부에 들어서는 극히 조잡하거나 사실을 단순화 내지 왜곡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비판들에서 내세우는 예는 스스로 과학적 법칙이라고 자랑하는 유물사관의 경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과론적 인식 방법과 목적론적 인식 방법은 다음과

63) 한스 마이어호프, 『역사와 철학』(『역사란 무엇인가』, 이기백·차하순 편, 문학과 지성사, 1981), p. 122.

64) 차하순 편, 앞의 책, p. 27.

65) 임성운, 앞의 논문, p. 104~105.

66) 차하순 편, 앞의 책, p. 16.

같이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자는 과거로 소급하는 방법, 객관론적 인식 방법과 실증적 방법, 또는 작품 생산 배경이나, 상호간의 영향 관계하에 계기된 사건들과의 상호 필연성을 해명하려는 방법이며, 후자는 미래 시간을 지향하여 인식하는 방법, 주관론적 인식 방법, 사회학적 문학사, 정신사적 문학사, 발전사관, 진보의 법칙 등을 통하여 문학의 존재 가치를 해명하는 방법이다.

둘째, 전자에 대하여 김현은 문학적 집적물의 상호 관계로, 조동일은 시간·계층·갈래 등의 입체로, 김용직은 ① 인과판단의 사각지대, ② 폐쇄성이 강한 경우, ③ 작품 제작과 형성의 배경 등을 제시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효용론으로 발전하여 심미적 효용론, 이데올로기적 효용론, 민족주의적 효용론, 계급주의적 효용론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셋째, 전자의 방법에 의해 문학사가 서술된 예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문학사에서 적용되었다. 후자의 방법에 의해 문학사가 서술되고 있는 경우는, 개화기 문학사에서 계몽의식, ‘운동’, ‘파(派)’ 등 행동주의적 관점, 계급의식, 지도적 역량, 발전사관, 사회·시대·역사에 미치는 영향, 심미적 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서술이다.

4.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실제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살핀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특징과 그 이론들이 구체적으로 시대구분과 문학사 인식 방법에 따라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구분에 따른 서술에서는 시대구분의 방법, 기준, 시대명명 방법, 문제점과 극복 방안, 시대구분의 실제 등을 살피고, 문학사 인식 태도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는 실증적 방법, 정신사적 방법, 사회학적 방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시대 구분에 따른 서술

문학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구분이다. 이는 문학사 전체를 관류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며, 모든 역사 서술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문학사의 실체가 아니라 문학사가들의 세계관과 사관의 반영물들로서 문학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체계와 논리를 부여하는 방법론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학사 시대구분의 일차적 과제는 문학사 흐름의 원리에 대한 체계와 논리가 된다.

문학사의 시대구분은 역사 사고와 해석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개념화(conceptualization)가 없는 학문이 없는 것과 같이 일반화(generalization)가 없는 역사 기술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¹⁾이라는 주장은, 시대구분이 문학사를 비롯한 역사를 개괄하고 체계와 논리를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인식하는 것은 역사를 시대구분하는 것”이라는 크로체의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편의적인 필요나 기술상의 요구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²⁾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서술에 있어서 시대구분은 반드시

1) 차하순, 『역사의 의미』(홍성사, 1981), p. 168.

필요한 작업인 동시에 방법론적인 무기가 된다.

이러한 시대구분에 대하여 그 방법과 기준, 시대명명 방법, 한계와 극복 방안, 시대구분의 실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대구분의 방법

시대구분의 종류로는 통시적 시대구분, 공시적 시대구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연대적 시대구분, 발전론적 시대구분, 순환론적 시대구분 등으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한다. 통시적 시대구분은 연대적 시대구분과 마찬가지로 세기들의 전개, 왕조의 교체, 거대한 역사적 사건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며, 공시적 시대구분은 순서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통시적 방법의 보완책으로 본질개념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발전론적 시대구분은 역사의 흐름을 발전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생물학에서의 진화론과 같은 것으로 보는 방법이며, 순환론적 시대구분은 역사는 계절의 순환과 같이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나선형적 순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통시적 시대구분과 공시적 시대구분, 연대기적 시대구분은 외면적인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하여 일반사적 방법에 의존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발전론적 시대구분과 순환론적 시대구분은 내면적 발전 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자연과학의 해석 방법과 역사 해석의 방법을 동일시하려는 실증적 방법이기도 하다.

시대구분의 방법은 역사의 생성과 변화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으로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시대구분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역사의 연속적인 흐름을 연속과 불연속의 반복으로 보는 역사 원리에 대한 일반론적 인식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 서술 방법에 있어서 앞 시대와의 관계를 연속성에 근간을 두고 인식하느냐 불연속성에 근간을 두고 인식하느냐의 문제로 한국 근대문학사인 경우에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2)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p. 45.

아그네스 헬러는 “역사의 불연속적인 흐름을 수많은 연결고리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자”³⁾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연쇄를 이루고 있는 고리 하나하나를 불연속적 범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역사가는 자신의 세계관이나 이론에 따라 어떤 고리를 확대하여 다른 고리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이러한 시대구분은 역사의 흐름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분리와 통합’, ‘미분화와 분화’, ‘생성과 소멸’, ‘확대와 축소’, ‘상승과 침체’, ‘전환과 변화’ 등으로 인식하고 이를 찾아냄으로써 비로소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가 구성되기 때문에 역사인식이나 역사 서술방법은 시대구분을 통하여 보편성을 획득하고 역사의 실상을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떤 시대구분 방법을 구사하든 문학사의 시대구분은 유기적이어야 한다.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된 시대들이 상호간에 연쇄를 이루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구분과 확대는 보통 이항대립 개념인 ‘탄생/죽음’, ‘번영/쇠퇴’, ‘강하다/약하다’, ‘넓다/좁다’, ‘크다/작다’ 등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유기적으로 구분된 시대들은 일정한 리듬을 갖고 그 자체가 어떤 경향을 환기시키게 되며, 그렇게 될 때 구분된 부분들이 하나의 역사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또 시대구분 방법에 있어서 문학사를 일반사와 관련하여 독자적이나 반독자적(半獨立的)(또는 반의존적(半依存的))이나, 아니면 의존적이나 의존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조동일은 일원론과 다원론으로 나누었다. 즉 역사의 시대구분에는 어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서, 이것으로 어느 국면, 어느 현상이라도 두루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원론이며, 역사의 여러 국면은 각기 그것대로 독자적인 시대구분의 기준을 지니고 있어서 경제사·사상사·문학사·언어사 등에 각기 타당한 시대구분이 있을 뿐이지 역사 일반의 시대구분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반론

3) Agnes Heller, 『A Theory of History』(강성호 역, 『역사의 이론』, 문예출판사, 1988), p. 197.

은 다원론으로 보았다.⁴⁾

문학사 시대구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홍규는 여덟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것은 ① 현재를 입각점으로 하여 시간적 원근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 ② 세기별로 구분하는 방법, ③ 왕조·정권의 교체 등과 정치사적 변화를 그대로 채용하여 문학사의 구분 기준으로 삼는 방법, ④ 사회·경제적 발전의 흐름이 지닌 변모의 양상과 결부시켜서 문학사의 이행 과정을 분할, 이해하는 방법, ⑤ 서로 유별되는 이념, 감수성, 문학적 특질 등을 가진 일련의 특징적 모형을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속되는 시대 단위들을 끊어 설정하는 사조사적 방법, ⑥ 표현·전달 매체의 변화와 문체의 변모 등 언어적 측면을 중시하는 방법, ⑦ 주요 문학 양식(예 : 서사시, 소네트, 소설 등)의 발생·융성·소멸 등의 양식적 전개과정을 중시하여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 ⑧ ‘민족 정신’, ‘자유 정신’ 등과 같은 어떤 추상적 실체를 설정하고 그 변화, 발전이라는 기준에서 문학사의 시대를 나누는 방법⁵⁾ 등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①과 ②는 통시적 방법이며, ③은 통시적 방법이면서 정치사적 방법, ④와 ⑥은 사회사적 방법, ⑤는 사조사적 방법, ⑦은 장르사적 방법, ⑧은 정신사적 방법에 해당된다.

시대구분 방법들에서 유의할 점으로 김홍규는 “문학사라는 것이 복합적 요인들의 작용에 따른 문학적 변천의 역사인 만큼 여러 기준의 효용도를 고려하여 폭 넓게 채용하는 것”⁶⁾이 필요한 일로 방법론적 포용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만이 문학사의 시대구분에 유일하게 타당한 배타적 원칙일 수는 없지만 애매한 절충주의나 무질서한 종합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1권, p. 33.

5) 김홍규, 「동서양 문학사 시대구분론 비교」(『비교문학총서1』, 동서문화연구소 편,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9), p. 126.

6) 위의 책, p. 129.

7) 위와 같음.

(2) 시대구분의 기준

이러한 시대구분의 여러 가지 방법은 서술자의 사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어느 방법이 옳고 그름을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대구분의 기준만큼은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문학사의 연속성으로부터 불연속성을 구별해 내고, 불연속성으로부터 연속성을 찾아내어 어떤 연결고리를 확대하는 일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결고리의 확대가 곧 역사가의 사관이 반영되므로 역사가의 세계관이나 이론의 범주에 기초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대구분의 기준은 역사가의 세계관이나 이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서로 다른 사관은 다른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그러나 그 기준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민족주의 역사학에서는 시대구분의 기준을 각 시대에 고유한 사회문화적 개념을 바탕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예컨대 한 민족사의 흐름을 민족정신이나 민족문화의 개념으로, 또는 민족의 성장단계를 기준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정치지배세력의 성격변화 등을 근거로 시대구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대구분들은 그 기준을 민족적, 정치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고유한 양상에서 구하여 일단 역사를 거시적 안목에서 보고자 했다.⁸⁾

또 사적유물론에서는 시대구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의 범주를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에 두고 있다. 사회구성체론에서의 시대구분은 발전단계론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원리를 밝히고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시대구분의 과제 해명의 논점을 마련하였다.⁹⁾

차하순은 시대구분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⁰⁾ 즉, 첫째로는 어떤 부류를 따르는 역사 구분은 입증된 모든 역사 사실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로 커다란 세 개의 구분(삼분법)보다는

8)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p. 56.

9) 위의 책, p. 47.

10) 차하순, 앞의 책, pp. 171~173.

좀더 작은 여러 시기로 나누어 미세한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특징이 적절히 표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로 구분이 반드시 시간적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끝으로 시대구분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문학사 자체의 전이와 변화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 된다.

(3) 시대명명 방법

시대구분의 문제는 시대명명에 의해서 그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며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명명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문학사의 서술은 시대명명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인 문학사의 像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유형학(typology)으로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분된 시대의 이름은 시대의 순서와 시대의 본질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순서 개념(ordnungsbegriff)이면서 동시에 본질 개념(wesensbegriff)이어야 한다. 구분된 시대 이름이 이 두 개념을 동시에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문학이란 역사와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한편 문학 자체의 특수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때 시대구분의 궁극적인 과제를 해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사 발전의 객관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단계적 성격을 해명하고 변화논리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대의 명명은 문학사 시대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실천적 인식을 통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학사 시대 명명은 상위구분에만 치우쳐 있거나 구분된 시대간의 유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웰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대의 이름들은 종교사, 학문사, 예술사, 정치사 등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차용했다고 지적했다.¹¹⁾ 그만큼 문학사가

11) R.Wellek and A.Warren, 『A Theory of Literature』(백철·김병철 공역, 『문학의 이론』, 신구문화사, 1959), p. 367.

다른 역사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시대명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산물은 아니라는 뜻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의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사관이 분명하게 반영되고 그 기준 또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4) 문제점과 극복 방안

시대구분은 각각 나름대로의 체계와 논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재선은 『한국현대소설사』를 집필하면서, 지난날에 있어서의 우리 문학사 또는 소설사의 기술은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단위들이 작품의 내외적 현실성의 역사라기보다는 작품 외현적인 것으로서의 발생의 배경이나 문학의 사실성(史實性)에 대한 해명 그리고 연대기적 질서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었다¹²⁾고 시대구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했다. 그는 “각 시대마다의 작품이 함유하고 있는 내재적이고 심미적인 가치나 체계를 외면한 나머지 문학사나 소설사를 사실 위주의 무미건조한 일반문화사의 일부로 바꾸어 버릴 뿐만 아니라 문학이 그 고유기능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굴절이라든가 초시간성(überzeitlichkeit)을 배제시켜 버릴 공산은 그만큼 커지게 되”¹³⁾었다면서 “시대구분론이나 역사의 전개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법으로서의 변화에 규범화 내지 생물적인 진화론(evolution)이라든가 발표 매체에 초점을 두는 잡지사적 또는 자료사적 편법주의의 방법 등을 되도록 지양 극복”¹⁴⁾하고자 했다.

시대 구분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역사 서술에 대한 회의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몰가치적, 문화가치적, 법칙부정의 다원적 역사 인식이 주창되는 가운데 시대구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시대구분 자체가 기피”¹⁵⁾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회의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

12) 이재선, 앞의 책, p. 8.

13) 위와 같음.

14) 위의 책, pp. 9~11.

이유는 역사 서술의 다원화 현상으로 말미암은 방법론적 혼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 서술에 대한 회의주의적 입장은 역사 서술 대상의 특수성을 충분히 찾아내지 못하고 지나친 보편화와 일반화에 치우친 그동안의 역사 서술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구분이 문학사의 특수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역사 서술의 다원화를 인정하면서 다음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시대를 구분하면 역사 서술 대상에 대한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문학사의 배경이 되는 한 시대와 사회의 역사의식인 집단적 기억(mémoire collective)을 문제 삼고, 둘째, 사회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의 추구 및 그것의 지속과 변화의 상호연관을 문제 삼고, 셋째, 문학사의 단기지속적인 구조와 주기보다는 문학사를 종합적·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기지속적인 구조와 그 주기를 문제 삼고, 넷째, 역사적 세계를 중층적(重層的)·다원적(多元的) 구조로서의 전체로 이해할 수 있는 심층 역사학(l'histoire des profondeurs)적 측면을 문제 삼고, 다섯째, 통시적·공시적 개념에서 벗어나 본질 개념을 문제 삼아 이들을 고려하면서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수성을 보여 줄 수 있을 때, 시대구분이나 역사 서술에 대한 회의주의는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실제로 시대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시대구분의 실제

시대명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크게 상위구분에 의한 명명과 하위구분에 의한 명명으로 나누고, 다시 통사체제의 문학사, 근대 시기의 문학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통사체제에서 근대 부분을 시대구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p. 47.

- ① 갑오경장 / 신학(新學)과 신소설 / 신구대립의 문예 / 문화운동과 난상(亂想) / 자각론 — 안확의 『조선문학사』(1922)의 ‘최근문학’
- ② 영정시대의 문학 / 고전문학의 쇠잔기 / 신문예운동 발아시대 — 김사엽의 『조선문학사』(1948)의 ‘근세문학사’ 4장부터
- ③ 신문학 태동 발흥기 / 기성문학과 신흥문단 대립기 — 우리어문학회 『국문학사』(1948)의 ‘현대문학’인 경우
- ④ 개화기 문학 / 근대소설 / 근대시 / 근대비평 / 암흑기 문학 — 장덕순의 『한국문학사』(1975)의 ‘근대문학’
- ⑤ 근대문학의 방향과 시련 / 근대시의 형성과 기본 과제 / 근대소설이 나아가는 길 / 시에서의 방향과 모색 / 희곡 창작을 위한 진통 / 비평과 논쟁의 시대 / 민요시운동과 시조부흥운동 / 역사소설, 농촌소설, 통속소설 / 희곡 창작의 다양한 노선 / 내면의식을 추구한 시 / 어두운 시대의 상황과 소설 / 역사와 만나는 시의 변민 / 근대문학의 주변영역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982)의 ‘근대문학 제1기’
- ⑥ 산문 / 시가(‘1900~1919년의 문학’), 프로레타리아문학 / 프로레타리아문학 이외의 이 시기 친보적 문학(‘1919~1930년의 문학’), 김일성 원수 항일투쟁과정에서의 항일문학 / 온갖 부르조아 반동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프로레타리아문학평론의 역할 및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승리(‘1930~1945년의 문학’의 경우)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통사』(1959)의 근대 시기

이들 통사체제에서 근대 부분에 대한 시대구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시성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그 공시성을 드러내는 차원이 하나의 문학사의 역사상을 드러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여 주는 데 머물고 있다.

그리고 ④의 ‘근대소설’, ‘근대시’, ‘근대비평’은 목차로서의 구실만 하고 있을 뿐 시대구분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근대 부분의 하위구분은 통사체제의 상위구분을 뒷받침하여 역사상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에도 그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⑤는 문학사상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상위구분에서 이들을 포괄하는 시대명명을 회피하여 ‘근대문학 제1기’라고 명명함으로써 한국문

학사의 특수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⑥은 대부분의 시기에서 ‘산문 / 가사’, 또는 ‘산문 / 시문학 / 평론’ 등으로 나누어 시대구분이라기보다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한 장르구분에 머물고 있다. 강조해야 할 ‘1930~1945년의 문학’의 부분에 와서는 하나의 문학사의 역사상을 중심으로 명명되고 있다.

근대문학사인 경우 그 시대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근대사조와 신소설 / 개화사조와 신소설 / 민족주의와 신문학의 초창기 / 문예사조의 혼류와 순문학운동 / 퇴폐적으로 문학이 병든 시대 / 魯漫주의 「화려한 시절」 / 신문학의 수준과 자연주의의 위치 / 주조(主潮)밖에 선 제경향의 문학 / 신경향파 뒤 10년간 / 정세의 변천과 예술파의 신흥 / 암흑기와 문학지상의 시대 :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1947~1949)
- ② 근대문학의 태동 / 근대문학의 탄생 /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 근대문학의 전개 / 1920년대의 주요 작가들 / 1930년대의 개관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1956)
- ③ 근대의식의 성장 / 계몽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 / 개인과 민족의 발견 / 민족의 재편성과 국가의 발견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1973)
- ④ 현대화의 지각변동과 개화기 소설 / 현실에의 지각과 이데올로기적 세계관 / 관심의 수평·수직적 확산 / 진통의 시공과 해방의 수평 : 이재선 『한국 현대소설사』(1979)
- ⑤ 개화기 시가 / 본격 근대시의 등장과 전개 / 근대시의 제2국면, 「백조」시대 / 시전문집단, 금성파의 등장 / 민요조 서정시의 형성과 전개 / 현실의 새 발견과 형이상의 차원 / 해외시 수용의 본문화와 그 양상 : 김용직 『한국근대시사』(새문사, 1983)
- ⑥ 민족어의 형성과 근대문학의 성립 / 계몽주의 문학의 성장과 굴절 /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 / 프로문학의 시대 / 파시즘의 강화와 민족문학의 위기 : 김재용 외 3인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1993)

통사체제 문학사의 시대구분에서 근대부분에 대한 하위구분에 비해 근대문학사 서술에서는 대체로 문학사의 역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①은 사조 중심의 문학사상을, ②는 태동, 탄생, 전개 등 생물학적 성장 발전

위주의 문학사상을, ③은 외재적 관점의 공시성을 중심으로 ‘근대의식’의 성장 발전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역사상을, ④는 외재적 관점의 현실 중심의 공시성을, ⑤는 내재적 관점의 과정 중심의 문학사상을, ⑥은 ‘민족문학’의 성립, 굴절, 위기를 중심으로 ‘민족’에 초점을 맞춘 역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①의 경우 한국 근대문학의 대표적 사조의 모습을 중심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서구적 사조를 한국 근대문학사에 강제하면서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는 앞에서 살핀 조운제의 『한국문학사』(1948)의 시대명명 방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 독자적인 방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⑤인 경우 하위 구분에 의하면 영향사와 잡지중심으로 환원되었다. ③④⑥에 와서부터 제1기 문학사의 시대구분 방법을 일정한 정도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의 문제는 상위 구분과 하위 구분으로 나누어 살펴야 되는데 상위구분에 국한시켜 논의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상위구분과 하위구분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구분은 시대구분이 되어 시대명명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통사체제의 하위구분에서는 시대구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서술의 범위와 성격을 반영하는 목차로서의 구실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근대문학사에서는 통시성보다 공시성을 앞세운 시대명명으로 서술의 범위와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나 하나의 큰 역사상 밑에 유기적으로 엮어내지 못하고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서술의 성격은 주제사적이거나 사회사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서술의 범위는 시기와 장르로 국한시키고 있다. 근대문학사의 경우 근대기점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고 시대구분에 대해서는 서술자의 구분에 내맡겨진 상태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 한 가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상위 구분과 하위구분으로 나눌 때 각 구분에 적용되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으로 일관성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상위구분과 하위구분의 관계에 유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대명명자인 문학사가의 역량인 셈이다. 그리

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큰 역사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명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하나의 큰 역사상은 문학사가의 분명한 사관에 해당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구분의 방법에서는 그 종류인 통시적 시대구분 / 공시적 시대구분, 연대적 시대구분 / 발전론적 시대구분 / 순환론적 시대구분 등과 그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방법은 역사의 생성과 변화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으로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방법에서는 앞 시대와의 관계를 연속성에 근간을 두고 인식하느냐 불연속성에 근간을 두고 인식하느냐의 문제인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시대구분의 기준은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문학사의 연속성으로부터 불연속성을 구별해 내고, 불연속성으로부터 연속성을 찾아내어 어떤 연결고리를 확대하는 일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구분의 기준은 역사가의 세계관이나 이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시대명명 방법에서는, 시대구분은 시대명명에 의해서 그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며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문학사의 서술은 시대명명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인 문학사의 상(像)을 얻게 된다.

넷째, 시대구분의 문제점으로는 작품의 내외적 현실성의 역사라기보다는 작품 외현적인 것으로서 발생의 배경이나 문학의 사실성(史實性)에 대한 해명 그리고 연대기적 질서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사의 특수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시대구분의 실제에서는 상위구분과 하위구분, 그리고 통사체제의 문학사와 근대 시기의 문학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통사체제에서 근대 부분을 시대구분한 내용은 대부분 공시성에 치우쳐 목차 구실만 하고 있을 뿐 시대구분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하위구분의 역할은 상위구분을 뒷받침하여 역사상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근대문학사인 경우, 통사체제 문학사 시대구분의 근대부분에 대한 하위구분에 비해 근대문학사 서술에서는 대체로 문학사의 역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 시대구분의 문제는 상위 구분과 하위 구분으로 나누어 살펴야 되는데 상위구분에 국한시켜 논의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상위구분과 하위구분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 한 가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나의 큰 역사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명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구분이 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학사관에 따른 서술

사관(geschichtsauffassung)이란 역사 서술자의 역사인식 방법, 역사 해석 태도, 가치관, 역사철학을 뜻한다. 이는 문학사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사관은 역사 서술자 개인의 관점과 태도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시대와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을 일컫기도 한다. 이 사관은 “역사에 대한 견해, 해석, 관념, 사상”¹⁶⁾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 “과거 사실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거쳐 귀납적으로 수립된 이론체계가 아니라,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선형적이고 당위적인 사유 형식으로 구성”¹⁷⁾되는 것, 또는 “서술주체의 의도, 관점, 입장 등을 총칭”¹⁸⁾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문학사에 대한 사관인 문학사관 역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학사 속에서 문학사의 의미, 목표, 가치 등을 관념화시켜 문학사 법칙

16) 차하순 편, 앞의 책, p. 9.

17)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p. 3.

18) 조남현, 「한국문학사의 주제사 문제」(김열규 외,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p. 182.

의 체계를 찾거나, 문학사 자체를 객관화시켜 문학사 이론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문학사관은 문학사의 의미·목표·가치 등을 사변적으로 논하는 역사철학, 문학사의 변화·발전이 일정한 패턴이나 단계를 거치는 법칙성을 설명하려는 체계적인 논리, 문학사 지식의 객관성과 주관성, 역사 방법론 혹은 문학사 설명의 본질을 분석하는 철학적 사고¹⁹⁾ 등의 의미가 내포된다.

이러한 문학사관을 바탕으로 문학은 실제 사물과 같은 발생·기원을 갖는다고 보는 실증주의적 문학사, 문학을 인간 의식의 산물로 보는 정신사적 문학사, 문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학적 문학사로 나눌 수 있다. 한국 근대문학사에서는 대부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실증적 서술과 정신사적 서술, 사회학적 서술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실증적 서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증적 서술

역사의 발전 과정과 자연의 진화 과정을 동일하게 보고 자연과학의 방법을 역사 해석에 적용하려는 실증주의(positivism)는 사료의 객관적 취급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과거를 위에도 놓고 현재를 이해하려는 태도로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거쳐 경험론적·귀납적으로 역사운동의 보편성과 일반성”²⁰⁾을 찾는 역사학의 한 부류이다.

이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은 랑케(Leopold von Ranke : 1795~1886)이며, 이들은 역사연구의 초점을 역사적 사실의 탐구에 두고 가급적 역사가의 주관적인 입장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관찰, 실험, 일반법칙의 적용과 같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역사적 설명의 방법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역사적 비교 방법, 인과적 설명, 수치·통계

19) 임성운, 앞의 논문, p. 115.

20)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p. 3.

적 방법, 사회심리적 방법, 박물관지적 문헌고증, 민속학적 방법, 발생학적·생물진화론적 방법, 유물사관적 방법 등을 문학사 서술에 적용하였다.

실증주의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어문학과의 신진학자들에 의해서 1930년대에 보급되었다. 이들은 사실 진위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들은 1930년 ‘朝鮮語文學會’를 창립하면서 실증주의 학풍을 국문학 연구의 방법으로 활용했다. 그 후 1934년 조선학의 종합적인 연구단체인 ‘진단학회’가 결성되었으며, 국문학 연구분야에 김태준·김재철·조운제가 참여하여 소설사·연극사·시가사 등 3대 장르에 걸친 문학사를 서술하였다.²¹⁾

이 실증주의는 대체로 사회적 실증주의, 진화적 실증주의, 비판적 실증주의로 구분된다. 랑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실증주의는 실천적 정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와 역사에 대하여 고찰하는 반면, 우리 나라의 역사 서술에서는 비판적 실증주의와 진화적 실증주의를 중심으로 비교학적 방법과 발생론적·생물진화론적 방법에 편중되어 고찰하였다.

조연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는 “한국의 최초의 근대문학 운동이었던 전기 신문학운동을 우리와 인접된 일본과 중국의 신문학 운동과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로서는 필요한 일”²²⁾이라고 하였다. “이 땅의 신문학운동이 한국의 독특한 일(一) 근대문학운동이었던 것이 아니라 후진한 동양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동양 근대문학 발생의 일(一) 한국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²³⁾이라 하고, “구라파에 있어서의 중세문학과 구별되는 근대문학의 특질이 철학적으로는 자아의 각성이었으며 형식적으로는 문장의 산문성과 취재의 현실성이었으며 방법론으로는 심리묘사와 성격 창조였음”²⁴⁾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는 임화의 일본과의

21)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32), 김재철의 『조선연극사』(1933), 조운제의 『조선시가사강』(1937)이 그것이다.

22) 조연현, 앞의 책, p. 141.

23) 위의 책, pp. 143~144.

24) 위의 책, p. 177.

비교 방법에서 벗어나 동양 각국으로 확대하고 있을 뿐 비교 실증의 방법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교 대상인 일본 문학이나 서구 문학을 선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 문학을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한 실증으로 한국 근대문학을 폄하한 경우는 모든 제1기 문학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한계라 할 수 있다.

제1기 이후의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서도 실증주의적 방법은 다른 방법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얼마간 적용되었다. 이들은 제1기 문학사에서 타율적이고 불연속적으로 인식하여 한국 근대문학사의 역동성을 찾아내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즉 김윤식·김현이나, 이재선, 김용직, 조동일, 김재용 외 3인의 문학사에서도 실증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통계적 방법과 사회심리적 방법 등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앞서의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는데, 한국 문학이 처해 있는 문학사의 배경과 문학 담당층의 여건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실증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실증적 방법은 사실 어느 문학사든지 자유로울 수 없다. 근본적으로 발전사관에 의한 문학사 인식이나 사회학적 방법도 실증적 방법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증적 방법의 문제는 한국 문학사를 실증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극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향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제2기 문학사에서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치를 중심으로 하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김현, 김용직, 조동일, 그리고 사회적 여건을 밝히기 위한 실증의 방법으로 이재선, 조동일, 김재용 등의 서술에서 볼 수 있다. 김현은 ‘제4장 개인과 민족의 발견’의 ‘식민지 치하의 한국 궁핍화 현상’에서 ‘행정비, 교육비, 경무비의 지출 현황’ 등을 <표>로 제시함은 물론 ‘동척의 토지 현황’, ‘자작농 감소와 소작농 증가 현황’, ‘1925년도의 이농자 현황’, ‘소작농 쟁의 현황’ 등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고 많은 지면을 근대문학사 배경의 현황과 관련하여 서술하였다.²⁵⁾ 또

김용직은 한국근대사의 역사에서 중요 원천으로 생각되는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많은 지면을 문학사의 배경이 되는 ① 정치·경제적 여건, ② 보도매체의 발달, ③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3·1독립운동 당시의 투옥자, 부상자 등의 수치를 비롯하여 ‘토지소유 현황’, 1911~1933까지의 <주요 곡물 일인당 소비량의 변화>를 ‘표’로 보여주고 또 ‘연 평균 쌀생산량’ 등 통계적 수치를 활용하는 통계학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실증적 방법에 대하여 이재선은 “우리의 현대문학사 또는 소설사를 재구하기 위해서 현재에도 강한 실증주의적인 문헌자료의 검토의 노력이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²⁷⁾고 주장하였다. 그는 “방법론의 수용과 모색이 바람직한 그 정도만큼 우리는 우리 문학사의 가장 구체적인 단위인 자료를 발굴하고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²⁸⁾이라고 실증적 방법을 옹호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실증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실증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과 감정적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학을 메마르게 만드는 식민지학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는 방법적 문제 때문에 학문적 방법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실증주의적 방법에 대하여 “30년대 국문학자들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대적 제약성”²⁹⁾이라거나, “지금까지 통사 체계를 갖추어 기술된 한국문학사가 20여 종이나 되지만 거의가 다 그 문제 투성이인 실증적 방법의 의해 기술”³⁰⁾되었다는 지적은 오히려 문학사 서술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오히려 실증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한국근대문학의 자율성과 연속성과 실천성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해서

25) 김윤식·김현, 앞의 책, pp. 136~138.

26) 김용직, 앞의 책, pp. 45~47.

27) 이재선, 앞의 책, p. 11.

28) 위와 같음.

29) 송희복, 『한국문학사론 연구』(문예출판사, 1995), p. 75~76.

30) 임성운, 앞의 논문, p. 180.

다른 방법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문학사 서술이 학문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다소의 객관성과 실증의 방법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사학에서의 실증주의는 식민사관의 극복에 미흡하고 식민지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연구 결과가 당파적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이 컸으며, 지배집단에 의하여 정책적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 직면하고 있는 민족문제와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외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되어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며, 문학사 서술 방법의 발전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실증주의적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적 방법은 역사의 발전 과정과 자연의 진화 과정을 동일하게 보고 자연과학의 방법을 역사 해석에 적용하려는 방법이다. 실제로 역사적 비교 방법, 인과적 설명, 수치·통계적 방법, 사회심리적 방법, 박물관적 문헌고증, 발생학적·생물진화론적 방법 등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둘째,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서는, 임화, 백철, 조연현 등이 한국문학의 수준이 일본문학이나 서구문학의 수준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조운제는 문학의 발생·성장하는 것을 생물체의 탄생·성장·소멸의 단계로 설명하려 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 실증의 방법으로 이는 비교 대상인 일본문학이나 서구문학을 선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한 실증으로 한국 근대문학을 서술한 경우는 모든 제1기 문학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한계라 할 수 있다.

셋째, 제1기 이후의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서도 실증적 방법은 다른 방법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김윤식·김현이나, 이재선, 김용직, 조동일, 김재용 등의 문학사에서도 통계적 방법과 사회심리적 방법 등의 실증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넷째, 실증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관점도 많은데 이는 실증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감정적 차원의 문제로 오히려 문학사 서술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오히려 식민사관의 극복은 실증적 방법을 바탕으로 다른 방법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나친 객관주의로 인한 메마른 서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실증주의의 지나친 객관적 입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사적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신사적 서술

정신사(history of mentalities)적 방법은 계량화할 수 없는 인간의 잠재적 심층의 정신과 심리를 밝혀 그것이 역사적으로 물질적인 환경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란 불어 ‘mentalités’이란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역어가 없기 때문에 ‘정신’이라 번역하고 있다. 그 속에는 의식(consciousness), 무의식(sub-consciousness), 심리상태(psychology), 사상(idea), 지성(intellect)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근대문학사에서 정신과의 관련하여 문학사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는 “문학사라는 것은 문학의 기원·변천을 질서적으로 기재한 것이라. 즉 一國民의 심적 현상의 변천·발달을 추구하는 것”³¹⁾이라는 안확의 소박한 정의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임화는 “精神은 批評에 있어서와 가치 文學史의 最後의 目的이고 到達點”³²⁾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정신사적 방법은 문학에서의 주제사를 승화시킨 것, 또는 철학사상사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 이념이나 세계관의 역사³³⁾로 대치되기도 하고,

31) 안확, 앞의 책, p. 2.

32) 임화,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5)(『동아일보』, 1940. 1. 20).

33) 한점돌, 『한국 1910년대 소설의 정신사적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p. 33.

시대정신의 변천과정, 특정 집단의 세계관이 어떻게 보편적 시대정신을 형성하고 그것이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에 어떻게 결부되어 있으며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것³⁴⁾ 등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 정신사적 방법의 특징은 역사가의 주관주의적 태도로 말미암아 관념론적 성향을 띠기도 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는 목적론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 정신사적 문학사 서술방법은 반역사적·반실증적 입장에서 자신의 방법을 정초하며, 철학사, 사상사, 지성사, 문제사, 주제사 등과 그 범위의 넘나들이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한때 정신사적 방법이 민족주의 사관의 일환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바로 정인보의 ‘일의 사관’, 안재홍의 ‘민족정기’, 문일평의 ‘조선심’ 등 조선정신과 민족정기 회복을 염두에 둔 것들이 그것이다. 문일평은 민중이 역사의 동력임을 주목하고 민중의 투쟁이 역사발전의 주요한 계기임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서 민족사의 대중화 작업을 추구한 바 있었다.

문학사 서술에 정신사적 방법을 직접 반영한 것은 조운제, 이재선 등의 문학사에서 볼 수 있다. 조운제는 정신사적 관점에서 신민족사관을 표방하고 나섰으며, 이재선은 주제사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조운제의 신민족사관의 표방은 비교론적 실증주의에 대한 회의, 현실인식의 한계성, 사관부재의 불가치론 등에 기인한 돌파구의 하나였다. 이 돌파구를 통해서 현실적 효용성을 획득하고, 이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식하여 관념화된 정신사적 방법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는 시대정신에 의해서 시대를 구분하고 정신사의 변화가 문학 내적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과 관련시키고 있다. 즉 서술자의 잠재적 태도에서 ‘민족정신’의 문제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과, 사회학적 방법에 의한 서술에서 ‘시대정신’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임화는 “朝鮮文學 研究의 一課題”(

34) 조남현, 「한국문학사의 주제사 문제」(김열규 외,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p. 192.

1940)에서 여섯 개 항목을 설정하여 설명하면서 “정신”의 문제를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文學史 가운데 具體的으로는 樣式的 歷史 가운데 나타나는 몇 가지 精神史는 其實은 여러 가지 時代의 精神의 歷史”라고 하면서 “文學史는 무엇보다 이 모든 文學的 樣式的 運動과 變遷의 根源이 된 精神의 歷史를 一貫性에서 理解”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時代를 따라 感受性的의 樣式이나, 思考의 方式 乃至는 體系의 構造가 다른가. 또한 그렇게 서로 다른 構造를 가진 精神이 어떠한 動因으로 變遷하였는가를 究明”³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文學은 歷史的으로 改革된 階段과 一新된 社會를 背景으로 하여서만 誕生하는 것”이며, “人間의 精神文化史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自覺의 產物”³⁶⁾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1기 문학사 서술 방법을 극복하면서 사회학적 방법을 천명하고 있는 김현도 문학은 “감정적 차원에서 서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제1기 문학사 서술에서 보여준 지나친 객관적 태도를 염두에 둔 표현이면서 동시에 “감동과 향유라는 정서적 반응을 요구”하는 민족문제를 염두에 둔 서술 태도를 표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민의 정신적 궤적을 이해함으로써만, 한국문화의 주변성은 극복의 계기를 얻을 수 있다.”³⁸⁾면서 한국문학은 “그 나름의 신성한 것”을 찾아내야 하고, 또 “그 문화를 지탱해 주는 성스러운 것”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였다.³⁹⁾ 조동일은 문학사 서술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창작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면서, 문학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현재의 창조에 깊이 참여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⁴⁰⁾고 하여 문학사 서술을 창작 문제와 관련시켜 서술자의 문학정신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하다.

35) 임화, 앞의 글.

36) 임화, 「개설 신문학사」(4)(『조선일보』, 1939. 9. 8).

37) 김윤식·김현, 앞의 책, p. 9.

38) 위의 책, p. 15.

39) 위의 책, p. 18.

40) 조동일, 「문학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앞의 책, 『문학 연구 방법』), p. 258.

정신의 문제를 이렇게 확대 해석할 때, 그 방법적인 문제 또한 다양하게 계발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정신사적 문학사 서술방법은 제1기 문학사에서 보여준 지나친 객관성과 비교를 통한 실증주의적 방법을 그 극복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특징을 보여주었지만 이 주관성이 동시에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즉 지나친 주관성이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사회학적 방법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신사적 방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량화할 수 없는 인간의 잠재적 심층의 정신과 심리를 밝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는 문학에서의 주제사를 승화시킨 것, 또는 철학사상사를 부드럽게 표현한 것, 이념이나 세계관의 역사, 시대정신의 변천과정 등 특정 집단의 세계관이 어떻게 보편적 시대정신을 형성하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둘째, 정인보의 ‘얼의 사관’, 안재홍의 ‘민족정기’, 문일평의 ‘조선심’ 등 조선정신과 민족정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적용한 바 있다. 문학사 서술에서는 조운제, 이재선 등의 문학사에서 신민족사관과 주제사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었다.

셋째, 그 밖의 문학사 서술에서도 서술자의 잠재적 태도에서 ‘민족정신’이나, 사회학적 방법에 의한 서술에서 ‘시대정신’ 등을 ‘정신’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넷째, 정신사적 방법은 ‘정신’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면, 그 방법적인 문제 또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지나친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정신사적 방법의 지나친 주관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사회학적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3) 사회학적 서술

사회학적 서술 방법은 ‘역사사회학’의 개념중심 또는 문제중심보다 시

대중심 또는 국가 중심의 ‘사회학적 역사’에 가깝다. 문학사를 이루는 문학 작품은 사회구성원인 작가에 의해서 사회문제를 다루고 사회적 전달 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인 독자와 만나면서 완성된다는 사회적 산물로 보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학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보고, 사회를 위한 가치를 중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문학은 정치학과 같이 사회적 제도”의 하나로 보고, 그 안에서 문학은 인간의 욕망과 결합되며 창조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⁴¹⁾ 이러한 사회학적 방법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유물론적 역사주의 원칙, 생산양식론, 사회경제적 결정론 등과 관련시켜 발전되기도 했다.

우리 나라의 근대문학에서는 근대전환기의 경우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기능에 치우쳐 인식하다가, 프로문학이 대두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에 근거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광복후에는 사회학적 방법을 단독으로 다루지 못하고 문화나 윤리와 함께 사회·문화적 방법 또는 사회·윤리적 방법으로 논의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학적 방법이 일제 강점기의 프로문학처럼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유물사관을 불온시했던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된다. 마르크스와 레닌에 대한 논의가 다소 자유로워진 시점에 와서는 반대급부로 말미암아 일반 사회학보다 마르크스주의에 경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사회학적 방법은 루시앙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회학적 방법으로 근대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경우는 제2기 문학사에 있는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부터였다. 그후 이명선, 김용직, 조동일, 김재용 외 3인의 문학사로 이어졌다. 일제 강점기의 김태준이나 임화는 사회학적 방법이라는 인식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유물사관의 이론적 교조주의에 의한 서술이었다고 본다면, 이명선의 『조선문학사』에 와서 사회학적인 문학사의 시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명선의 『조선문학사』는 “작품생산의 역사성, 작품들의 史的인 인과

41) Grebstein, 「사회·문화적 비평」(박철휘·김시대 엮음, 『문예비평론』 문학과 비평사, 1988), p. 271.

관계, 작가의 문을 통한 그 사회, 그 세계, 한 말로 말하면 그 사회와의 유기성”⁴²⁾을 보여준다. 이명선은 중세적인 봉건문학관을 탈피하고 자본주의적 근대문학관을 수립하면서 문학예술에 의한 사회변혁운동의 긍정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문학사회학적인 방법론을 그 근간으로 세계문학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서 저술했다.⁴³⁾

제1기 문학사를 극복하려는 의욕에서 출발한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에서는 근대문학의 시작을 영정조 시대로 설정하면서 ① 신분제도의 혼란 시작, ② 경영형 부농의 등장, ③ 상인계급의 대두, ④ 화폐유통, ⑤ 실사구시의 성립, ⑥ 독자적인 수공업의 대두, ⑦ 인간평등 자각⁴⁴⁾ 등 사회와의 관련하여서 근대성을 제시하였다. 당시의 경제지표까지 제시하면서 사회·경제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박은식과 단재 사학, 현실적 저항성 등을 강조하여 문학의 예술성을 강조하던 방법이 아닌 사회성을 드러내는 방법에 의해 저술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와 사회 속에서 문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 속에서 시대와 사회를 보는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⁴⁵⁾는 박철휘의 지적은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다. 또 이재선은 “진화론적이기보다는 역사적 맥락주의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이들의 견해는 외현적 요인으로서 사회적·경제적인 상황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⁴⁶⁾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선은 『한국현대소설사』에서 그 동안 저술된 문학사에 대하여 “소설사를 사회사나 문화사 등의 역사에 완전히 예측시켜 버리려는 기존의 비문학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문학 특유의 한 특수사로서 보고 이 양자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한 것”⁴⁷⁾이라고 그 저술의 포부를 밝혔다. 그

42) 조남령, 「이명선 저 조선문학사 평」(국제신문, 서울판, 1946. 1. 25).

43) 임현영, 「이 책을 읽는 분에게」, 이명선, 『조선문학사』(1948 : 범우사, 1990 재발행), p. 7

44) 김윤식·김현, 앞의 책, pp. 20~21.

45) 박철휘, 앞의 글, p. 78.

46) 이재선, 앞의 글, p. 108.

47) 이재선, 앞의 책, pp. 9~11.

는 근대적 사실주의를 ‘객관묘사, 중층묘사(重層描寫), 서술시점 등 내부 현실의 탐구’라는 내재적 특질 외에 ① 독서 대중인 시민계급의 확대, ② 영세한 방각체를 탈피하고 근대적인 인쇄술의 형성 발달, ③ 신문 잡지의 발간, ④ 작가의 전문화 현상과 상업적인 책방의 속출 등 문학사회학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⁴⁸⁾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문학 갈래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문학의 전개를 살폈는데, 특히 소설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소설의 등장을 다섯째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징표로 보고 중세적 지배체제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른 민중의 각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다섯째 시대를 둘로 나누면서 그 기점을 1860년경부터로 정하고 이 시기에 씌어진 최제우의 「용담유사」를 예로 들어 민중의 각성이나 시민의 성장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민족을 수호하려는 근대 민족의식이 형성되었다⁴⁹⁾고 서술했다.

김용직은 『한국근대시사』에서 한국근대시의 역사에서 중요 원천으로 생각되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① 정치·경제적 여건, ② 보도매체의 발달, ③ 종교가 그것이다. 여기서 정치·경제적 여건에는 교육 문화적 배경까지 문학의 원천으로 제시⁵⁰⁾하고 있으며, 문학사의 원천인 사회적 배경을 실증하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의 여러 현황을 통계적 수치로 나타내 보여주었다. 또 김재용 외 3인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사회학적 방법의 일반적 방법에서 벗어나 프로문학의 계통과 『조선문학통사』 등의 방법에 경도되어 이론적 교조주의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회학적 방법은 제2기 문학사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으나 그 방법의 다양성을 계발하는 데 소홀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역사의 보편적인 법칙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역사와 문학, 사회와 문학, 그리고 내용과 형식간의 변증법적 관계가 기계적·단일적으로 해석되는 이른바 “통속적 사회학적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리고 문학의 현상과

48) 위의 책, pp. 49~50.

4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2판』1권, pp. 42~44.

50) 김용직, 앞의 책, pp. 45~51.

발전과정을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속류 방법론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때로는 현실 정치와 너무 밀착되어 전개되기 때문에 획일화·도그마화할 가능성과 정치적 현실에 밀착함으로써 독단론과 공식이론에 빠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⁵¹⁾

사회학적 문학 연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에 대하여 예술로서의 문학의 정서, 문학의 기능과 내용을 편협되게 규정하는 견해로 보고 있다. 즉 문학을 삶의 반영이라고 고집하고, 문학 비평이 또 다른 어떤 것인 사회학 또는 정치학이 되려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시녀”⁵²⁾라고 비판한다.

사실 사회학적 문학 연구가 작품의 미학 구조나 창조적 역량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술사회학의 가장 두드러진 단점 가운데 하나가 복잡한 속성을 가진 대상을 단순한 요소들로 분석하려는 데 있다고 하우저가 밝히고 있듯이⁵³⁾ 사회학적 비평은 문학작품의 복잡성을 충분히 분석하거나 해명하는 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의 시작은, 19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방법⁵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학적 서술 방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사를 이루는 문학 작품을 사회적 산물로 보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학이 진정한 문학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유물론적 역사주의 원칙, 생산양식론, 사회경제적 결정론 등과 관련시켜 전개되기도 했으며, 루시앙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을 바탕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51) 반성완, 「문학사」(동서문화연구소 편, 『비교문학총서1』,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p. 138.

52) Grebstein, 「사회·문화적 비평」(박철휘·김시태 엮음, 『문예비평론』(문학과 비평사, 1988), p. 274.

53) A. 하우저 저·이경수 역, 「예술 사회학의 영역과 한계」, 유종호 편, 『문학예술과 사회상황』(민음사, 1979), pp. 130~140 참조.

54) M. 마렌 그리제바하, 『문학연구의 방법론』(장영태 옮김, 기린원, 1989), p. 151.

둘째, 이 방법으로 근대문학사를 서술한 예는 제2기 문학사에 있는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부터였으며, 이재선, 김용직, 조동일, 김재용 등의 문학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방법의 다양성을 계발하는 데 소홀하여 역사와 문학, 사회와 문학, 그리고 내용과 형식간의 변증법적 관계가 기계적·단일적으로 해석하여 역사의 보편적인 법칙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반대론자들로부터 이데올로기의 시녀라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셋째, 이 방법은 19세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중인 방법이며, 문학작품의 복잡성을 충분히 분석하거나 해명하지 못하고 복잡한 속성을 가진 대상을 단순한 요소들로 분석하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인 점 등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증적 서술과 정신사적 서술, 사회학적 서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증적 서술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역사 해석에 적용하려는 방법이며, 정신사적 서술은 계량화할 수 없는 인간의 정신과 심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회학적 서술은 문학사를 이루는 문학 작품을 사회적 산물로 보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학이 진정한 문학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방법이다.

둘째, 실증적 서술은 역사적 사실의 비교, 인과적 설명, 수치·통계적 방법, 사회심리적 방법, 박물관적 문헌고증, 발생학적·생물 진화론적 방법 등의 방법으로, 정신사적 서술은 주제사, 철학사상사, 이념이나 세계관의 역사, 시대정신의 변천과정 등 특정 집단의 세계관이 어떻게 보편적 시대정신을 형성하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방법으로, 사회학적 서술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유물론적 역사주의 원칙, 생산양식론, 사회경제적 결정론, 루시앙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적 방법론이 문학사 서술에 실현되었다.

셋째, 실증적 서술은 임화, 백철, 조연현 등의 제1기 문학사에 의해서, 정신사적 서술은 조운제, 이재선 등에 의해서, 사회학적 서술은 김현·김윤식, 이재선, 김용직, 조동일, 김재용 외 3인 등에 의해서 문학사에 반영되었다.

넷째, 실증적 서술은 식민사관에 의해서 한국문학을 비교 실증하면서 왜곡·편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정신사적 서술은 실증적 방법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신민족주의를 표방하기도 했으나 지나치게 관념화시켜버렸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학적 서술은 이데올로기의 시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실증적 서술은 지나친 객관주의라는 한계가, 정신사적 서술은 지나친 주관주의라는 한계가, 사회학적 서술은 지나친 보편화라는 한계가 있다.



Ⅲ.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1.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문제점

지금까지 서술된 한국 근대문학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문학사 서술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문학에만 매달려 문학사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 동안 서술된 문학사는 수십 종에 이르고 있으나 문학사 서술 방법론에 대한 개론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체계적인 논문조차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문학사와 관련된 제목의 수많은 저서들이 있으나 이들은 간간히 써 놓은 여러 편의 논문이나 평론들을 모아 놓고 이들을 포괄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문학사 방법론 일반에 대한 안내서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제 강점기와 독재 체제를 지나는 동안에 방법론적 활성을 잃고 한국 근대문학사상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여 빈약하고 왜소하게 만 들었다. 일제 강점기와 독재치하에서는 과거 사실을 비교·실증적으로 접근하는 실증주의에 함몰되었다. 이 실증적 방법에서도 지나친 객관성을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방법론적 활성을 잃고 역사를 메마른 박물관 정도로 밀어내 버렸다. 이로써 한국 근대문학사의 얼굴은 빈약하고 왜소하게 그려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역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 자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약하거나 불온시했던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 방법론적 활성이 쇠잔해버린 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국사’ 교과서의 경우는 국정교과서 등을 통하여 당국이 독점하고 있음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친일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회피·배제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저항문학의 위상까지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우리 나

라의 근대사 서술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친일 잔재세력에 대한 문제이다. 광복 후 친일 잔재세력의 활보로 말미암아 친일문학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40년대 전반기 문학사를 암흑기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몇몇 재야 사학사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재야 사학자들은 친일문학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친일 잔재세력의 득세로 말미암아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사회불평분자처럼 소외시켜 왔다. 친일문학에 대한 논의의 제약은 저항문학에 대한 논의조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한 예가 근대문학사라 하면 당연히 현대적 장르의 형식에 준하는 작품으로 한정하여 서술함을 당연시했던 것이 그것이다.

넷째, 한국 근대문학사의 배경과 문학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한국 근대문학사를 서술하면서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그 관점이 분리되거나 복합되어 문학사를 인식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 이외의 관점에 대해서는 계발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복합적인 관점인 경우 단순 결합의 차원에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관점의 단조로움을 드러내어 문학사의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분리에는 익숙해 있으나 통합에는 그 원리를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섯째, 근대기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근대성을 인식하는 방법 면에서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구분 문제는 통사체제에서만 논의되고 근대문학사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국문학사 서술 방법상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은 근대기점의 문제와 시대구분 문제가 주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미시적 관점에 머물고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 있는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범위에서 배제의 논리에 치우쳐 수용에 대한 방법론 계발이 안 되고 있다. 근대문학사 서술 방법에서는 그 범위의 제한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닫혀있는 문학사가 되고 있다. 한국 근

대문학의 범위를 장르, 문자, 공간, 작가와 친일적이지 않은 작품 등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문학사를 서술해 왔다. 그러나 이는 문학사가가 그 기준에 얽매어 더 넓게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일곱째,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문학적 현상에 치우쳐 탐구적(untersuchende), 논의적(diskussive) 서술보다는 설명적(erzählende), 교육적(didaktische) 서술에 그쳐 심층의 역사와 장기지속의 역사(l'histoire du longue durée) 서술에는 관심조차 둘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학습용 서술의 차원을 넘어 연구를 위한 서술의 차원으로 그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

여덟째, 지금까지의 문학사 서술은 중앙 문단을 중심으로 한 문학사와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한국 문학사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문학사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그 서술에 대한 회의주의가 짙고 있다.

아홉째, 최근의 문학사 서술 실태를 보면, 현대문학인 광복 후 문학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근대문학에서의 분단극복이 아직 미완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너무 선부른 감이 없지 않다. 앞에서 살폈듯이 설명적 교육적 서술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

첫 번째의 문제로, 문학사 서술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부족으로 문학사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사 서술 방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론서를 비롯한 한국문학사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서술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체계를 갖춘 저서들이 많이 저술되어야 한다. 방법론적 활성화를 통하여 과거에 얽매인 정체(停滯)에서 벗어나 한국문학사를 미래와의 관련하에 전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두 번째의 문제로, 방법론적 활성을 잃고 한국 근대문학사상을 빈약하고 왜소하게 만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학사 서술 방법론의 다원화를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정과 배제의 자세에서 한 걸음 물러나 긍정과 수용의 관점으로 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문학사의 종류에 못지 않게 방법론에 대한 종류도 확산되어 그 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근대문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의 문제로, 친일문학에 대한 논의와 저항문학의 위상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일문학의 실태를 파헤치는 차원을 넘어서 근대문학사의 울타리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저항문학인 경우 기존 방법에서 탈피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의 저항문학사’라고 하면 장르의 범위를 뛰어 넘을 수 있다. 망명지 문학이나 유민문학, 또는 해외동포의 일제 강점기 문학을 포용하여 민족의 수난사와 더불어 민족의 정체성을 한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문학사적 자료가 풍부해질 것이다. 이러한 저항문학의 자료에 대한 인식은 근대문학의 수난사를 비롯한 ‘문학 박해의 역사’이거나 ‘검열로서의 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¹⁾ 이러한 문학사가 서술될 때 ‘문학과 권력’의 문제, 또는 ‘문학사 서술과 권력’의 문제도 다소 규명되어 다음 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역사 서술의 의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의 문제로, 한국 근대문학사의 배경과 문학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을 통합하는 방법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사의 패러다임을 이루는 복잡계가 어떻게 짜여지는가를 밝혀내야 한다. 문학 작품이 생산되는 기반과 그 생산 에너지의 정체와 변화 추이, 그리고 복잡계 변화의 추이 등을 섬세하게 추적하면서 문학사를 서술해야 할 것이다. 평론가의 여가적 서술 태도로는 전문화 시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전근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문학

1) 이 경우 일제 강점기 문학, 독재시대 문학, 북한의 문학을 수난·박해의 역사와 권력 속의 문학사로 하나의 관점에서 서술이 가능하게 된다.

사가에 대한 직업의식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평론가나 국문학자라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문학사가를 인식하지 말고 평론가, 소설가, 시인 이외에 문학사가가 따로 일컬어질 정도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사 서술 방법이나 관점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다섯 번째의 문제로, 근대성을 인식하는 방법면에서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근대문학사에서의 시대구분 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문학사의 배경과 근대문학사의 담당자라는 논리로 이들을 문학사의 중핵적 요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학 작품은 중핵적 요소가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위성적 요소 정도로 분리하는 관점은 기존의 문학사에서 이미 서술된 방법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를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 시대구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근대문학 분야에 국한한 논의가 다소 있어야 근대문학을 이해하는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여섯 번째의 문제로,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범위에서 배제의 논리에 치우치는 한계는 우리 문학사를 극히 제한적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제 논리의 근간에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 서술 방법의 하나인 근거와 실증주의적 방법의 지속에 따른 완고의 틀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범위와 기준을 개방하고 배제의 논리에서 벗어나 수용과 포괄의 논리를 계발하는 방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의 문제로, 설명적(erschließende), 교육적(didaktische) 서술로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문학적 현상에 치우쳐 있는 문제는 탐구적(untersuchende), 논의적(diskussive) 서술을 위한 방법론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의 심층(history in depth)과 장기지속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근원적 역사(die ursprüngliche geschichte) 서술을 위한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삶과 죽음의 문학사, 유랑과 정착의 문학사, 사랑과 이별의 문학사, 전망과 회고의 문학사, 한과 복수의 문학사, 자유와 독재의 문학사, 저항과 박해의 문학사, 율격과 놀이의 문학사, 자연과 한정의 문학사, 통과 의례와 각종 의례의 문학사 등

우리 민족의 심층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문제 중심의 역사(histoire problème) 서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여덟 번째의 문제로, 중앙 문단과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 서술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다. 중앙 문단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 대한 극복은 여러 지역문학사 서술을 통하여 각 지역의 정서를 비롯한 문학사의 장기지속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²⁾ 또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 서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학사나 통속문학사 등을 서술하여 문학사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지역 문학사상과 대중문학사상이 확립되고, 이러한 지역 문학사와 대중문학사, 통속문학사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사상을 정립한다면 중앙 문단중심의 문학사와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학사상의 정립은 문학사 서술에 대한 회의주의를 극복하고 문학사 서술의 새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아홉 번째의 문제로, 최근의 현대문학사 서술의 문제다. 이는 자칫 문학사 서술을 획일화하려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근대문학사에 대한 방법론적인 반성이 없이 현대문학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우선 분단문학사를 극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근대문학사 서술 방법론을 극복하지 못하는 서술로 말미암아 문학사 서술에 대한 회의주의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분단문학의 극복 문제는 북한의 문학을 문학사 서술에 반영하거나 분단문학을 반성하고 분단극복 문학을 주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단극복의 본질적인 해법은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의 문학사에서 동질성을 이끌어 내는 데에 있다. 이러한 동질성에 의하여 남북 문학의 심층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찾아내어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분단극복 문학사의 실마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2)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pp. 9~14에서는 제주문학의 특성을 ‘언어’, ‘정서’, ‘이야기’, ‘소재’ 등에서 찾고자 했으며, 소재에서는 ‘설화’, ‘역사’, ‘자연이나 역사적 유적’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다.

수 있다. 분단극복 문학사의 종착점은 통일문학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극복 문학사의 실마리를 통하여 통일을 열망하는 문학사가 형성되어야 통일문학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상의 문제점인 ① 문학사 서술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부족, ② 방법론적 활성을 잃고 한국 근대문학사상을 빈약하고 왜소하게 만든 문제, ③ 친일문학에 대한 논의와 저항문학의 위상에 대한 문제, ④ 한국 근대문학사의 배경과 문학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의 부족, ⑤ 근대성을 인식하는 방법면에서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⑥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범위에서 배제의 논리에 치우치는 한계, ⑦ 설명적, 교육적 서술로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문학적 현상에 치우쳐 있는 문제, ⑧ 중앙 문단과 엘리트 중심 문학사 서술에 치우쳐 있는 문제, ⑨ 최근의 현대문학사 서술은 선부론 감이 있다는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들을 종합하여 한 마디로 하면, 그 동안의 방법론적 논리를 전환시켜 새로운 방법론을 계발하고 이에 의하여 문학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루어 놓은 방법적인 것들을 해체하고, 사실과 고증 중심의 오류와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가설 중심의 문학사’이거나 ‘문제 제기적 문학사’를 서술해야 한다. 이러한 문학사 서술이 없이는 문학사 서술 방법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국 문학사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학사 서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서술이었다. 이제 그 서술 방법을 현재의 가치와 기준으로 과거로 소급해 올라가는 소급적 방법(regressive méthode)을 통해서 반성해 볼 시점에 와 있다. 즉, ‘문제 중심의 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문제 중심의 문학사’는 있는 그대로의 문학사 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생동하는 문제’(living problem)를 골간으로 한국 문학사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 문제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으므로 하여 비로소 통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와 별도로 문학사의 내부인 문학사의 보다 깊은 곳, 즉 심층에서 작용하는 힘(forces profondes)에 주목하는 장기지속의 역사(l'histoire du longue durée)를 서술하는 것도 그 동안의 방법론을 전환하는 것이 된다. 한국문학사의 표면이 아닌 거의 부동의 상태에서 지속하는 것들은 그 동안의 문학사 서술 방법론을 전복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또 '지역 문학사'와 '대중문학사', '통속문학사' 등을 서술하여 한국 문학사의 다양화를 위한 방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V. 결 론

1922년 안확이 서술한 『조선문학사』 이후 일제 강점기를 지나 광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학사서가 서술되었다. 그러나 한국문학사 서술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천한 상태이다. 그 동안 문학사 서술 방법론은 다양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와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고 억압하였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 사학은 실증주의적 방법의 문헌 고증을 위주로 역사를 인식하면서 일제 식민사학의 논리에 함몰되었다.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편파·왜곡·축소되는 기형성을 면할 수 없었다. 방법론에 대한 학문적 기반도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여 산발적인 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방법론적 활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약에 얽매인 인식의 완고한 틀을 전환시켜 자유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한국 근대문학사상은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방법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과 근대기점’,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특징’,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이론’,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실제’,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결론삼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990년대에 들어 통일 문학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① 1988년 월북 및 작고한 북쪽 문인에 대한 해금, ② 1990년대 초 북쪽에서의 일제강점기의 문인들에 대한 부분적인 해금, ③ 북한 문학에 대한 부분적 개방, ④ 중국, 러시아 등 옛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여러 나라와의 외교 정상화 등에 따라 프로문학, 북한 문학, 재외 동포문학 등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근대문학사 범위가 넓어져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상(歷史像 ; geschichtsbild)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방법에 관한 논의는 ① 원론적 접근과 서술 방법론, ② 근대성과 근대기점론, ③ 시대구분론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근대기점론’과 ‘시대구분론’, 사관 중심의 방법적 측면에 치우친 사건이거나 단편적이어서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저서가 없는 실정이다.

(3) 이 연구에서는 한국 문학사 서술 단계를 ‘제1기를 안학의 『조선문학사』부터 1972년까지, 제2기를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부터 1981년까지, 제3기를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부터 1987년까지, 제4기를 1988년 북쪽 문인에 대한 부분 해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네 시기로 나누었다.

(4) 근대성에 대한 인식 : 자주적 민족의식을 성장 발전시켜온 주체인 민족이 근대문학사의 담당자이며, 민족의식을 성장시켜온 대내외적 여건이 근대문학사의 배경이라는 확대 해석의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과, 민족 의식을 이루는 패러다임의 교체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5) 근대기점 : 1971년 소위 영정조 소급론이 대두되기 이전의 논의들은 체계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식이라기보다는 소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정조 소급론 이후 여러 기점론이 등장하였지만 영정조 소급론의 논리적 차원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6) 근대기점의 문제점 : 갑오경장 기점은 한국 근대문학사를 불연속적·타율적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영정조 소급론은 패러다임의 교체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동학창건 기점과 개항기 기점인 경우에는 영정조 소급론의 논리에 대한 극복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3·1독립운동 기점인 경우는 이행기라는 용어의 문제점과 민족 정체성이 크게 훼손된 시점이라는 한계를 각각 지니고 있다.

(7) 새로운 근대기점 인식 방법에서는 ‘국가 개념’과 ‘본질 개념’을 도입하여 대한제국 원년부터 을유 광복까지를 근대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의 시작점에는 언론·출판 활동, 학회 활동, 교육 활동, 국어·국문

활동 등 근대적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근대문학사의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문학적 사실로는 역사소설·전기소설·토론체 소설 등의 서사문학과 애국독립가·개화가사·창가 등의 시가문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사회가 근대적 모습을 이루어 페리다임의 교체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8)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 : 이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역사상과 깊이 관련되며, 서술 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또 주체성과 결부되어 동일체 의식, 자주성, 자립성,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했다. 제1기 문학사에서는 타율적으로 인식하다가 제2기 문학사에서부터 이를 극복하여 자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방법에 있어서 문학사의 역사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9)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문제 : 이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형성과정이 앞 시대 문학적 전통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불연속성과 앞 시대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근대문학을 형성했다는 연속성의 문제이다. 전자에 의한 문학사 서술은 제1기 문학사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제2기 문학사에 와서 불연속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 와서 후자에 의한 문학사 서술이 실천되었다.

(10) 관념성과 실천성의 문제 : 이 문제는 정신이나 심리적인 것을 우선하여 한국 문학사를 규정하는 관념성과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동이 문학사를 형성한다는 실천성의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분리되지 않고 공리적 효용성인 실천성에 의해 인식하다가, 3·1독립운동 이후 이념의 공백 상태에서 관념적 인식이 발달하게 되어 분리 인식하게 되었다. 김태준, 임화 등은 유물론에 바탕을 둔 공리적 효용성에 바탕을 두고 문학사를 서술하였으며, 백철, 박영희 등은 프로문학 중심의 실천성에 바탕을 두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제1기의 문학사 대부분은 순수문학을 표방하고 실천성을 경계하는 관념성에 바탕을 두고 서술되었다. 그러다가 제2기와 제3기의 사회학적인 방법을 반영한 김윤식·김현, 조동일을 거쳐 제4기의 김재용 등에 의해 실천성

의 문제가 자유롭게 반영되었다.

(11) 객관론과 주관론에 대한 문제 : 객관론적 인식 태도에 의해 문학사 서술은 임화, 조연현, 조동일 등에게서 이루어졌다. 주관론적 인식 방법을 문학사 서술에 실천한 경우는 이재선, 김용직 등이다. 객관론적 인식 태도에서는 판단의 불공평성과 다양한 설명 방식을 방해하고 연구 중심의 문제 제기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주관론적 인식 태도에 입각한 문학사 서술에서는 문학사가의 주체성과 문제의식의 문제로 귀결되는 사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12) 이원론과 일원론에 대한 문제 : 이원론적 인식 방법은 일제 강점기에 과시즘 세력이 팽창하면서 일원론적 인식을 억압하여 사상적 활동의 자유 일체를 말살하면서부터 등장했다. 이원론적 인식에 의한 문학사적 사실들은 예술지상주의 문학론, 휴머니즘론, 모더니즘론, 순수문학론 등이고, 이에 의해 문학사를 서술한 경우는 조연현이 대표적이다. 일원론적 인식 방법에 기초하여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는 경우는 김태준, 임화, 이명선, 김윤식·김현, 이재선, 조동일, 김재용 외 3인 등의 문학사였다.

(13) 인과론과 목적론에 대한 문제 : 인과론적 인식의 경우, 김현은 문학적 집적물의 상호 관계로, 조동일은 시간·계층·갈래 등의 입체로, 김용직은 ① 인과판단의 사각지대, ② 폐쇄성이 강한 경우, ③ 작품 제작과 형성의 배경 등으로 제시되었다. 목적론적 인식의 경우, 효용론으로 발전하여 심미적 효용론, 이데올로기적 효용론, 민족주의적 효용론, 계급주의적 효용론 등과 행동주의적 관점, 계급의식, 지도적 역량, 발전사관, 사회·시대·역사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제시되었다.

(14) 시대구분에 따른 방법 : 시대구분 방법에 있어서 그 기준은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연속성으로부터 연속성을 찾아내어 어떤 연결고리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시대명명 방법에서는 구체적인 문학사의像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유기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문학사의 배경이 되는 집단적 기억, 사회변동과 지속과 변화의 상호연관, 문학사의 장기지속적인 구조와 그 주기, 심층 역사학

적 측면, 본질개념, 상위구분과 하위구분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등을 문제 삼아 문학사의 특수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함을 제시했다.

(15) 사관에 따른 방법 : ①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에서는, 실증적 서술은 임화, 백철, 조연현 등의 제1기 문학사에 의해서, 정신사적 서술은 조윤제, 이재선 등에 의해서, 사회학적 서술은 김현·김윤식, 이재선, 김용직, 조동일, 김재용 외 3인 등에 의해서 문학사에 반영되었다. ② 실증적 서술은 식민사관에 의해서 한국문학을 비교 실증하면서 왜곡·편협시키는 데 활용되었고, 정신사적 방법은 실증적 방법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신민족주의를 표방하기도 했으나 지나치게 관념화시켜버렸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학적 방법은 이데올로기의 시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③ 실증적 방법은 지나친 객관주의라는 한계가, 정신사적 방법은 지나친 주관주의라는 한계가, 사회학적 방법은 지나친 보편화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16)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문제점으로 ① 문학사 서술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부족, ② 방법론적 활성을 잃고 한국 근대문학사상을 빈약하고 왜소하게 만든 문제, ③ 친일문학에 대한 논의와 저항문학의 위상에 대한 문제, ④ 한국 근대문학사의 배경과 문학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의 부족, ⑤ 근대성을 인식하는 방법면에서 한국 근대문학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⑥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범위에서 배제의 논리에 치우치는 한계, ⑦ 설명적, 교육적 서술로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문학적 현상에 치우쳐 있는 문제, ⑧ 중앙 문단과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 치우쳐 있는 문제, ⑨ 최근의 현대문학사 서술은 선부른 감이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의 극복 방법으로는 그 동안 이루어 놓은 방법적인 것들을 해체하고, 사실과 고증 중심의 오류와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가설 중심의 문학사’이거나 ‘문제 제기적 문학사’인 연구 중심의 문학사 서술이 이뤄져야 하며, 중앙 문단과 엘리트 중심 문학사에서 벗어나 ‘지역 문학사’, ‘대중문학사’ 등을 서술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방법

은 이제 방법론에 대한 활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그 동안 당면하고 있는 민족문제를 외면하여 왔기 때문에 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방법론을 해체·전환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근대문학사의 자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또 학습적·설명적 서술에서 탈피하여 문제 제기적 문학사, 가설 중심의 문학사, 장기지속적인 문학사 등 탐구적인 문학사가 서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계발할 필요가 절실히 된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즉 출간되어 있는 모든 문학사를 그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대상으로 삼은 각 문학사의 문제점을 충분히 도출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또 북한 문학사를 함께 다루지 못한 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 편의 논문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 김태준. 『조선소설사』(1932). 도서출판 예문에서 1989년 재출판.
- 임화.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9. 2 ~10. 31.
- _____.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9. 2 ~10. 31.
- _____. 「속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12. 5 ~12. 27.
- _____. 「개설 신문학사」. 『인문평론』 1940. 11 ~1941. 4.
- 김사엽. 『조선문학사』. 정음사, 1948.
- 우리어문학회 편. 『국문학사』. 수로사, 1948.
- 이명선. 『조선문학사』(1948). 범우사, 1990 재발행.
- 조윤제. 『국문학사』. 동방문화사, 1949.
-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1』. 일조각, 1949.
- 김성식. 『문학사』. 금룡도서, 1950.
- 백철.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53.
- 유창순. 『국문학사 요해』. 명세당, 1953.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제1부). 현대문학사, 1956.
-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사상계』6~15). 1958~59.
- 양주동. 『국문학사』. 대일인쇄소, 1959.
- 박노순. 『<자료>한국문학사』. 새글사, 1962.
- 박병채. 『한국문학 발달사』. 한국문화사대계, 1967. 5.
- 구중서. 『한국문학사론』. 대학도서, 1970.
- 김운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 탐방』. 국민서관, 1973.
-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4.
- 김석하. 『한국문학사』. 신아사, 1975.
- 장덕순. 『국문학사』. 동화출판사, 1976.

- 전규태. 『한국현대문학사, 상』. 서문당, 1976.
- 김동욱. 『국문학사』. 일신사, 1976.
- 김용직.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1977.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 박철희. 『한국시사 연구』. 일조각, 1980.
- 박을수. 『신한국문학사』. 성문각, 1982.
-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 출판부, 1982.
-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4권. 지식산업사, 1986.
- _____. 『한국문학통사』(제2판)1~5권. 지식산업사, 1989.
- 김재용 외 3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연구논저 1-〈국내저서〉

-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78.
- _____.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84.
- _____.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1985.
- 강재언. 『근대한국사상사연구』. 한울, 1983.
- _____.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 _____.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3.
- 강진철. 『한국사회의 역사상』. 일지사, 1992.
- 구로역사연구소. 『바로 보는 우리 역사』(개정판)2. 1990.
- 구중서. 『한국문학사론』. 대학도서, 1978.
- 권영민 외. 『개화기문학의 재인식』. 지학사, 1987.
- 권오만. 『개화시가연구』. 새문사, 1989.
- 김경동 외. 『근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김도형. 『한국민족주의론』3. 창작과비평사, 1985
- 김병택. 『한국근대시론연구』. 민지사, 1988.
- _____. 『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 김열규 외. 『한국 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 _____ 편.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 김영기. 『한국문학과 전통』. 현대문학사, 1973.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 제주문학론』. 제주대 출판부, 1998.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의 이해』. 일지사, 1973.
- _____. 『한국문학사론고』. 범문사, 1973.
- 김 중. 『전환기의 한국 현대문학사』. 수필과 비평, 1994.
- 김치수.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79.
- 김택영. 『동국역대사략』(東國歷代史略). 1899.
- 김학동. 『한국개화기 시가연구』. 시문학사, 1981.
- 김현·김주연 편.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1976.
-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 노재찬. 『한국근대문학과 전통의식』. 친학사, 1975.
- 동서문화연구소 편. 『비교문학총서1』.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 망원한국사연구회. 『한국근대민중운동사』. 돌베개, 1989.
- 문성숙. 『개화기소설연구』. 새문사, 1994.
- 민족문학연구소 엮음. 『민족문학사 강좌』(상·하). 창작과 비평사, 1995.
- _____ 편. 『한국문화사대계』5(언어·문학사편). 1967.
- 박종원 외.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년). 열사람, 1988.
- 박찬기. 『독일 고전주의 문학사적 연구』. 일지사, 1982.
- 박철희·김시대 엮음. 『문예비평론』. 문학과 비평사, 1988.
- 박해묵. 『반만년 조선역사』. 덕흥서림, 1923.
- 백철. 『문학개론』. 신구문화사, 1980.
- 성기조. 『한국문학과 전통논의』. 장학출판사, 1985.
- 소광희·손동현 공역. 『역사의 인식』. 경문사, 1979.
- 송진호·강만길 편. 『한국민족주의론』 1. 창작과비평사, 1982.
- 송민호. 『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 송희복. 『한국문학사론 연구』. 문예출판사, 1995.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1·2. 한길사, 1990.
 여증동. 『한국문학역사』. 형설출판사, 1983.
 유종호 편. 『문학예술과 사회현황』. 민음사, 1979.
 윤병로. 『한국현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1980.
 이광린. 『한국사강좌』5(근대편). 일조각, 1981.
 이광주·이민호 편. 『현대의 역사이론』. 한길사, 1993.
 이기백. 『한국사신론』(개정판). 일조각, 1976.
 이기백·차하순 편. 『역사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1981.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상』. 문예출판사, 1993.
 이만열. 『한국근대역사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81.
 이명현. 『이성과 언어』. 문학과 지성사, 1982.
 이민호. 『역사주의』. 민음사, 1988.
 이상신. 『역사학 개론』. 신서원, 1994.
 이선영. 『문학 비평의 방법과 실제』. 동천사, 1983.
 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이우성·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식』상·하. 창작과비평사, 1976.
 이유영. 『독일문예학개론』. 삼영사, 1979.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5.
 임의완. 『역사학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임중빈 편. 『한말저항시집』. 정음사, 1976.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임형택·최원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임희완. 『역사학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장덕순 외. 『한국 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92.
 전광용 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90.
 전종해 외. 『역사의 이론과 기술』.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5.
 정정호. 『전환기의 문학과 대화적 상상력』. 한신문화사, 1998.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6.

- _____.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 출판부, 1973.
- _____. 『한국문학사상사론』. 지식산업사, 1978.
- _____.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
- _____.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 차하순 편. 『사관이란 무엇인가』. 청람, 1980.
- _____. 『역사의 의미』. 흥성사, 1981.
- 최원식. 『민족문화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 _____.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 한국경제사학회 편. 『한국사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1970.
- _____ 편. 『한국사 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1991.
-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지성사, 1983.
-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5.
-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 강의』. 한울 아카데미, 1994.
- 홍기삼.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평민사, 1978.
- 홍일식. 『한국개화기문학사연구』. 열화당, 1980.

<논문>

- 강만길·신용하·정창렬. 「서평 좌담-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신동아』, 1984. 8.
- 강영희 외. 「새로 쓰는 민족문학사1」. 『한길문학』1, 1990. 5.
- 고명수. 「한국문학사상 근·현대 문학 기점 논의와 그 문제점」. 『목멱어문』4, 동국대 1991. 3.
- 고미숙. 「이명선의 국문학연구 방법론과 유물사관」. 『어문논집』28, 고려대 1989. 2.
- 고재석. 「지속성으로서의 한국문학사 서술 시론」. 『양지』6, 안양공전 1984. 12.
- 구모룡. 「근대성, 혹은 근대의 초극; 김윤식 읽기를 위한 각서」. 『오늘

- 의 문예비평』13, 1994. 5.
- _____. 「도남의 해석학과 문학사의 구성원리」. 『어문교육논집』12, 부산대 1992. 11.
- _____.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문제」. 『오늘의 문예비평』7, 1992. 9.
- 구중서. 「분단시대 민족문학의 방향성 정립」. 『인하』24, 인하대 1988. 3.
- _____. 「한국문학사 방법론 비판」. 『월간 중앙』, 1974. 8.
- _____. 「한국문학사의 연술 방법」. 『한가람』2, 1978. 1.
- _____. 「한국문학사의 저변 연구, 고려속요와 전통의 계승」. 『창작과 비평』11-1, 1976. 3.
- 권영민. 「문학사의 총체성 회복과 월북 문인」. 『문학사상』188, 1988. 6.
- 김교숙. 「전통과 문학 ; 전통의식의 서론」. 『사상계』3-7, 1955. 7.
- 김동욱. 「일반문학사 ; 한국문학사의 문제점」. 『청파문학』11, 1974. 2.
- 김명인. 「왜곡된 민족사의 문학적 복원」. 『문학사상』194, 1988. 12.
- 김봉균. 「한국문학사의 비판적 조명」. 『이용백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1983. 2.
- 김상일. 「문학사와 그의 대상」. 『한국문학』68, 1979. 6.
- 김석하. 「한국문학사 시대구분의 방안 추의」. 『동양학』2, 1972. 12.
- 김시태. 「문학사가로서의 조연현」. 『현대문학』443, 1991. 11.
- _____. 「조연현의 문학사 기술 방법」. 『한국문학연구』15, 동국대 1992. 12.
- _____. 「한국문학 비평사의 형성」. 『자유』112, 1982. 4.
- 김영덕. 「한국문학의 전통적 성격구명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논문, 1974. 5.
- 김영수. 「근대문학의 기점 연구」. 『논문집』24, 예술원 1985. 12.
- _____. 「한국문학의 맥락 논고」. 『논문집(인문사회)』18, 청주대, 1985. 12.
- _____. 「한국문학의 시대구분 재고」. 『청대춘추』29, 1985 .2.
- _____. 「한국문학의 통시적 맥락」. 『시문학』171-173, 1985. 10.

- 김영호. 「한국사정체론의 극복과 방향-시기구분과 자본주의 맹아의 문제」. 『아세아』, 1969. 3.
- 김용섭. 「우리나라 근대역사학의 발달 2」. 『문학과지성』, 1972 가을호.
- 김용직. 「1920년대 후반기의 한국문학사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5, 서울대, 1976. 1.
- _____. 「외래지향성과 그 극복의 길 ; 개화기문학 재평가의 문제점」. 『세대』10-7, 1972. 8.
- _____. 「한국근대문학사 방법」. 『한국문학』, 1974. 11.
- _____. 「한국문학의 정리체계와 도남의 방법」. 『담수』8, 1979. 10.
- 김우중.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전통계승 문제」. 『국어국문학』34·35, 1967. 1.
- 김윤식. 「근대성 또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현대문학』443, 1991. 11.
- _____. 「문학사적 질서, 현실주의적 질서」. 『한국문학』200, 1990. 11.
- _____. 「영정조에서 4·19에 이르는 한국문학사」. 『문학과 지성』8·10·12, 1972. 5·11, 1973. 5.
- _____. 「우리 근대문학 교육의 어떤 좌표」. 『현대비평과 이론』3, 1992. 3.
- _____. 「우리 근대문학 연구의 한 방향성」. 『외국문학』30, 1992. 3.
- _____. 「입화와 백철(상);거울화의 두 표정」. 『한국문학』185~187, 1989. 3~5.
- _____.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한국학보』1, 일지사, 1983.
- 김일근. 「민족문학사적 시대구분 시론;특히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하여」. 『자유문학』2.2, 1957. 7.
- 김재수. 「문학사 기술의 성립과 전개」. 『인문논집』38, 고려대, 1993. 12.
- 김재용. 「해금 작가들과 민족 문학사」. 『월간중앙』152, 1988. 9.
- 김주연. 「문학사와 문학비평 ; 한국문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

- 학과지성』6, 1971. 11.
- _____. 「한국문학사의 재문제 ; 문학과 역사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한국문학』8, 1974. 6.
- _____. 「후진국 문학 ; 문학사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문학』11, 1974. 9.
- 김현. 「문학사 방법과 반성; 『한국문학사』 비판에 대한 대답」. 『한국문학』9, 1974. 7.
- 김효중. 「도남의 국문학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도남학보』5, 1982. 4.
- 김희일. 「조선근세사 시기구분 문제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2. 1호.
- 도진순. 「북한 역사학계의 근·현대사 시기구분 논쟁과 그 변화」. 『역사와 현실』 창간호, 1989.
- 문병란. 「한국문학의 전통문제와 전통시의 분석」. 『사대논문집』, 조선대, 1972. 3.
- 문성숙. 「문학담당층에 따른 문학사 기술 방법론 시론」. 『한국문학연구』9, 동국대, 1986. 6.
- 박진태. 「도남의 『국문학사』와 민족 사관」. 『국어교육』69·70, 1990. 7.
- 박철희. 「한국 근대시와 자기인식」. 『문학의 해석』. 서강대학교출판부, 1988.
- 방기중. 「백남운의 역사이론과 한국사인식」. 『역사비평』, 1990. 여름호.
- 방덕영. 「한국문학 전통성의 모색」. 『형성』5-3, 1972. 2.
- 백천풍. 「한국근대문학사의 서술」. 『한국문학논집』7, 한양대, 1985. 2.
- 백철. 「〈한국문학사 연구〉 한국문학사와 원류적인 것」. 『세계평교협 아카데미논총』, 예술원, 1978. 6.
- _____. 「국문학사 서술 방법론 ; 국문학사술과 그 방법에 관한 사건」. 『사상계』44, 1957. 3.
- _____. 「민족문학사의 언어 조건」. 『예술원보』26, 1982.12.
- _____. 「신서 한국문학사에의 모험」. 『한국문학』52, 1978. 2.
- _____. 「한국근대문학사 서술 방법상 문제점」. 『서강』4, 1973. 12.

- _____. 「한국문학사 서술의 요강」. 『예술논문집』, 예술원, 13, 1974.
- 사재동. 「한국문학사의 기술 관점<특집>」. 『청대춘추』29, 청주대, 1985.
- 서경석. 「문학사 서술에 나타난 남북한의 거리」. 『문학과 비평』15, 1990. 9.
- 서연호. 「한국 근현대 희곡사 기술 방법과 시대구분」. 『어문논집』31, 고려대, 1992. 12.
- 성찬경. 「전통과 오늘의 한국문학」. 『심상』6, 1974. 3.
- 송민호. 「개화기의 근대문학적 성격」. 『문리논집(문학부편)』, 고려대, 1963. 7.
- 송영준. 「한국문학사 서술 방법론 연구」. 『논문집』25, 대전공전, 1979. 12.
- 송재영. 「한국문학과 전통의 방향; 한국문학의 전통문제」<특집>. 『보운』3, 1973. 12.
- 송희복. 「근대 이전 우리 문학사 인식의 발자취」. 『한국문학연구』14, 동국대, 1992. 2.
- _____. 「문학사와 민족 혁명의 대중문학; 이명선 연구」. 『한길문학』10, 1991. 9.
- _____. 「문학사와 시대구분」. 『동악어문논집』26, 동국대, 1991. 11.
- 신동욱. 『한국 현대 비평의 사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1975.
- 신동일. 「문학사 서술의 의의 ; 한국문학사를 중심으로」. 『육사논문집』31, 1986. 12.
- 신승엽. 「비평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하여」. 『민족문학사연구』1, 1991.9.
- 신영명. 「문학사 서술의 방법과 사대부 시가의 사적 전개」. 『어문논집』31, 고려대, 1992. 12.
- 신용하. 「‘광무개혁론’의 문제점-대한제국의 성격과 관련하여」. 『창작과비평』49, 1978.

- 신재기. 『한국근대문학비평론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2. 8.
- 신철하. 「“한국 근대문학 형성” 논의에 대하여」. 『외국문학』31, 1992. 6.
- 안승덕. 「국문학사 시대구분 문제」. 『수곡』8, 1977. 12.
- 양영길. 「김태준의 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백록어문』12, 1996. 1.
- 오세영. 「현대시사를 바라보는 시야」. 『한국문학』167, 1987. 9.
- _____. 「현대시와 문학사상; 전통성과 외래성」. 『월간문학』201~202, 1985. 11~12.
- 오현주. 「입화의 문학사 서술에 대한 고찰」. 『현상과 인식』52, 1991. 5.
- 원용문. 「시조문학사의 시기구분 문제」. 『홍익어문』10·11, 1992. 4.
- 유세중. 「중국현대문학사 시기구분론」. 『중국학 연구』6, 1991. 4.
- 윤경수. 「한국 근대문학의 기점」. 『현대문학』310, 1980. 10.
- 윤명구. 「국문학사 서술방법에 대하여」. 『이승녕고회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1977. 3.
- 윤석산. 「민족문학 형성을 위한 시론 ; 한국현대문학사관의 문제점」. 『북악』27, 1976. 2.
- 이경선. 「문학사 방법론 서설」. 『국어국문학』16, 1957.4.
- 이광호. 「현대시사 기술 방법론 비판」. 『한국어문교육』2, 고려대, 1987. 6.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5, 서울대 한국 문화연구소, 1984.
- 이기백. 「한국사의 시대구분 문제」.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 이기철. 「한국문학사와 「-ism」문제」. 『영남어문학』1, 1974. 11.
- 이동권. 「한국한문학사 서술의 문제」. 『어문논집』31, 고려대, 1992. 12.
- 이동영. 「이명선의 『조선문학사』고」. 『한국문학논총』13, 1992. 10.
- 이동하. 「문예사조, 작품, 문학사 ; 리얼리즘이라는 것」. 『문학정신』68, 1992.6.
- 이명재. 「신문학사 재정립의 문제점」. 『어문연구』42·43, 1984.

- _____. 「우리 문학사 기술의 대비적 연구 ; 남북한의 근대이후 문학사 중심」. 『논문집(인문과학)』35, 중앙대, 1992. 12.
- _____. 「한국문학사 어프로치론고」. 『문경』28~29, 1970.
- _____. 「한국문학사의 현황과 그 반성」. 『경희어문학』, 1982. 5.
- 이상경. 「임화의 소설사론과 그 미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창작과 비평』69, 1990. 9.
- 이상비. 「국문학에 있어서의 시대구분의 고찰 서설」. 『논문집』6, 원광대, 1972. 9.
- _____. 「민족문학사 연구」. 『논문집』, 원광대, 1978. 12.
- _____. 「민족문학사의 방법 연구」. 『논문집』9, 원광대, 1976. 2.
- 이순. 「문학사 발전에 대한 관건」. 『연세어문학』9·10, 1977. 6.
- 이중재. 「한국문학사 기술 방법론 고찰」. 『한국문학연구』제1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 3.
- 이철범. 「곡해된 아류의 문학사」. 『동서춘추』18, 1967. 12.
- _____. 「한국문학사의 이해, 그 전제」. 『현대문학』19, 1973. 6.
- 이청원. 「민족문학사의 방법 연구」. 『시문학』67~68, 1977. 1~2.
- _____. 「언문일치 운동의 기점 문제」. 『시문학』73, 1977. 8.
- 이태극. 「고전문학에 있어서의 전통계승 문제」. 『국어국문학』34·35, 1967.
- 이항녕·김종우. 「한국문학사의 정통성을 찾아야 한다 ; 남북작가 작품 해금 건의의 의의와 전망」<대담>. 『동서문화』106, 1983. 4.
- 임규찬. 「임화 문학사를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과 비판」. 『한길문학』11, 1991. 12.
- 임성운. 「문학사 교육의 대상에 대하여」. 『과학과교육』1, 순천대, 1993. 12.
- _____. 「문학사 기술 방법 연구」. 『문학과 비평』17, 1991. 3.
- _____. 「문학사 기술 방법의 구성적 이념」. 『한국문학연구』13, 동국대, 1991. 12.
- _____. 「한국문학사 기술 방법 연구사」. 『남도문화 연구』3, 순천대,

1991. 2.
- _____. 『문학사 기술 방법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 논문, 1990.
- 임재해. 「역사의 이해와 문학의 역사적 연구」. 『정신문화연구』19, 1984. 1.
- 임현영. 「근대문학사론고」. 『창작과 비평』35, 1975. 3.
- _____. 「민족문학의 민중지향적 접근 모색 ; 한국현대문학의 사적전개론」. 『인하』24, 인하대, 1988. 3.
- 임화. 「조선신문학사론 서설」. 『조선중앙일보』 1935. 10. 9 ~ 11. 3.
- 장덕순. 「한국문학사의 시대구분」. 『성심』 창간, 1972. 2.
- 전규태. 「국문학사 연구의 문예학적고」. 『인문과학』4·15,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66.
- 전용윤. 「국문학사 시대구분에 대한 고찰」. 『논문집』11, 대전공전, 1973. 5.
- 정규복. 「한국문학사 개론」. 『아세아연구』41, 고려대, 1971.
- 정명교. 「Lanson의 문학사 방법론 비판」. 『해사논문집』20, 1984. 9.
- 정병욱.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근대문학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8, 서울대, 1975. 1.
- 정환균. 「영정시대의 문학활동 양상」. 『홍익어문』5, 1986. 1.
- 조남현. 「문학사 지향의 몇 가지 명제 ; 한국문학사의 사조적 정리」. 『월간문학』74, 1975. 4.
- 조동걸·노태돈·안병욱·도진순·한홍구. 「좌담-북한에서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비평』, 1988. 겨울호.
- 조동일.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설문학』131, 1986. 10.
- _____. 「근대문학의 성립을 다룬 세 가지 관점」. 『창작과 비평』53, 1979. 9.
- 조석래. 「국문학사 시대구분의 방향」. 『논문집』28, 진주교대, 1984. 11.
- 조연현. 「서술방법과 정신, 민족의 정신적 내력의 再立像 ; 한국근대문학사 서술 방법상 문제점」 <특집>. 『서강』4, 1973. 12.
- 조연현. 「전통의 개념과 그 가치 ; 서정주와 김동리의 전통 태도」.

- 『보운』3, 1973. 12.
- _____. 「한국문학의 전통과 현대성」. 『자유문학』8, 1963. 1.
- _____. 「한국신문학사 방법론」. 『논문집(인문과학편)』, 동국대, 1965.
2.
- 조윤제. 「한국문학의 전통론」. 『자유문학』3-5, 1958. 5.
- 천관우. 「갑오경장과 근대화」. 『사상계』, 1954. 12.
- 최동호. 「1950년대의 시적 흐름과 정신사적 의미 ; 한국현대문학사 다
시쓴다」. 『현대문학』409, 1989. 1.
- _____. 「현대시사 서술 방법과 방향」. 『어문논집』31, 고려대, 1992
.12.
- 최일수. 「문학의 전통과 현대성」. 『신태양』4-12, 1955. 12.
- _____. 「전통주의와 세계주의」. 『현대문학』15-9, 1969. 9.
- 최지원. 「도남 국문학의 개관 ‘은근과 끈기의 길」」. 『성대문학』10,
1964. 2.
- 하정일. 「소설사 연구 방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적 검토」. 『민족문학사
연구』1, 1991. 9.
- 한상규. 「한국문학의 전통과 세계화의 방법론적 고찰」. 『논문집(인문
사회)』25, 공주사대, 1987. 12.
- 한승옥. 「현대소설사 서술 방법의 반성과 새로운 모색」. 『어문논집』31,
고려대, 1992. 12.
- 한점돌. 『한국 1910년대 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 홍기삼. 「실존주의와 문학사 기술 문제 ; 한국문학사의 사조적 전개」.
월간문학73, 1975. 3.
- 홍신선. 「우리 근대 자유시의 성립과 내력」. 『현대시』5-5, 1994. 5.
- 황정산. 「남북문학사 시대구분론」. 『현대시학』239, 1989. 2.
- 현대문학이론연구회 편.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집. 도서출판 신아,
1997.

연구논저 2-〈번역서〉

- Agnes Heller. 『역사의 이론』. 강성호 역. 문예출판사, 1988.
- Benedetto Croce. 『역사의 이론과 역사』. 이상신 역. 삼영사, 1978.
- Jauß. H.R.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장영태 역. 문학과 지성사, 1983.
- M. Mandelbaum. 『역사지식의 해부』. 임희완 역. 집문당, 1987.
- M. 마렌 그리제바하. 「문학연구의 방법론」. 장영태 옮김. 기린원, 1989.
- M. 콘퍼스. 『인식론』. 이보임 옮김. 도서출판 동녘, 1984.
- Michael Gelven.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입문서』. 김성룡 옮김. 시간과 공간사, 1991.
- René Wellek and Austin Warren. 『문학의 이론』. 송관식·윤홍로 공역. 한신문화사, 1982.
- William H. Dray. 『역사철학』.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3.
- 누시노프, 세이트린. 『사회주의문학론』. 백효원 옮김. 과학과 사상, 1990.
- 로버트 E. 스피러. 『문학의 해석』. 김인환 역. 흥성사, 1978.
- 뤼시앙 골드만. 『문학사회학방법론』. 박영신 외 옮김. 현상과 인식, 1980.
-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전양범 옮김. 시간과 공간사, 1989.
- 아그네스 헬러. 『역사의 이론』. 강성호 역. 문예출판사, 1990.
- 윌리엄 드레이. 『역사철학』.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3.

연구논저 3-〈외국서〉

- Croce, Benedetto. *History : Its Theory and Practice*, Eng. tr.. by Douglas Ainslie, 1920; 1960.
- Lerner, D. “*Moenization, Social Aspect*” Int'l Encyclopedia of the Sciences, Social. New York : Macmillam, 1968.

- Jauß, H.R. *Literaturgeschichte als Provokation* ; David C. Hoy, The critical Circle : *Literature and History in Contemporary Hermeneu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Febvre, L. *Combats pour l'histoire*, 1953, 日譯『歴史のためのいみどい』, 1976.
- Stone, Lawrence.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 in Charles F. Delzell (ed), *The Future of History*, Vanderbilt Uni. Press, 1977.
- Foucault, M. : *Die Ordnung des Diskurses*, München 1974, S.7.
- Man, Paul De. : *Blindness and Insight : Essay in the Rhetoric of Contemporary Criticism*, Minnesota Up. , 1983.
- Wellek, R. "The Concept of Evolution in Literary History," *Concepts of criticism* (ed) Stephen G.Nichols, JR., Yale University press, 1978.
- Collingwood, R.G. *The Idea of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Crane, R.S. *Critical and historical Principles of literary Hist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Schmidt, S. J. / On Writing "History of Literature", *Poetics*. 14(1985)
- Eisenstadt, S. N. *Modernization ; Protest and Change*, Englewood Cliffs. N. J : 1966.
- Grebstein(ed), S. N.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Critic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68.
- Grebstein(ed.), Sheldon Norman.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Criticism*, New York: Harper & Row, 1968.

A STUDY ON THE DESCRIPTIVE ASPECTS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Yang Young-gil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yung-tae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

DEPARTMEN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8. 12.

Summary

A Study on the Descriptive Aspects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by Yang Young-gill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descriptive aspects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There are a lot of books describing Korean literary history, ranging from “The Literary History of the Chosun Era”, written by An Hwak in 1922, to that of today.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methods describing Korean literary history. The methodology of describing literary history has not been variously discussed so far. Korean history during the Japanese rule was sunk into the logic of historical studies of Japanese colonialism. Historians could not help avoiding one-sidedness, distortion, and reduction in describing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with divided ideology. Accordingly, the academic basis of its methodology was not systematically deployed and couldn't help but stay sporadic.

Therefore, we now need to transform the fixed frame of the recognition bound by restrictions and reframe it freely so as to recover the liveliness of its methodology. If this work is done well, it is clear that the historical aspects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will be different. Accordingly, the present writer presented its problems and methods of settlement. After studying its characteristics and theories we can see “the descriptive aspects of the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The content is as follows:

- (1) A discussion o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briskly conducted in the 1990's. This is due to ① the release of the works of writers who crossed over into North Korea and the deceased writers from North Korea in 1988, ② the release of the works of some writers in North Korea in early 1990's who lived in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 ③ the partial opening of Korean literature and ④ the change of the historical aspect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because many literary studies on professional literature, the North Korean literature, the fraternal literature abroad, and etc. have been accumulated and widened in accordance wit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Russia, and the independent countries from the USSR.

(2) The debates on the descriptive methods of Korean modern history had been divided into ① the theoretical approach and descriptive methodology, ② the modernity and the starting point theory of modernity and ③ the division theory of the times. However most of them were personal opinions or quite incomplete ones, and there have been few systematic theses and reports on methodology so far.

(3) The steps of the descriptive methods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are divided into four steps in this thesis, as follows : the 1st step is the from 1922 through 1972, the 2nd step is 1973 through 1981, the 3rd step is from 1982 through 1987, the 4th step is from 1988 to the present time.

(4) The recognition on the modernity : The present writer suggested that we should find out the amplified logic 「that the race who has developed independent racialism is taking charge of the modern literary history and that our indoor and outdoor situations which have developed racial consciousness is the

background of modern literary history,」 and 「that we should recognize it in the changing situation of the paradigm which is made up of nationalism.」

(5) The starting point theory of modernity : The discussions prior to the claims that they should go back to the period of the King Young-cho and Jung-cho Dynasty were simpler than the ones based on systematic logic. After retrospective claims to the period of the Young · Jung Dynasty, many different kinds of starting point theories appeared, but they are not yet better in the way of logic than the original claims.

(6) The problems of starting point of modernity : The existing starting point claims have limitations as follows: Kapokyungchang has a limitation in the discontinuous & involuntary recognition of Korean modern literature; the original theory of Young-cho in the Jung-cho Dynasty being incapable of replacing the paradigm; Donhak's foundation and the opening of harbors to foreign countries in Korea by not overcoming the logic of the original theory of Young-cho in the Jung-cho Dynasty; lastly the 3.1 independent movement due to problems called the era of performance and at this point the Korean racial identity was highly damaged.

(7) The present writer introduced 'the conception of nation' and 'the conception of essence', and set up the period from the first yea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year of liberation from Japanese control over Korea as a modern period of time. A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journalism, publishing, literary societies, education, and Korean literature were produced in this period of time. And they took charge of the role of the background for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The descriptive literature, like historical novels,

biographical novels, discussion novels and poetical literature (patriotic songs) were enlightening. Songs came out at that time. And here literary societies were approaching the replacement of paradigm forming a modernized appearance.

(8) The problem of willingness and unwillingness : This w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the historical aspects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They perceived it unwillingly in the first step of literary history, but in the second step they got it over and perceived it autonomously.

(9) Problems wi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 These are the questions about whether the process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was begun anew, regardless of the literary tradition in previous periods. The description of the literary history by the former belongs to the first step of literary history. And they tried to get over the discontinuity in the second step which was found in “The Korean General Literary History” written by Cho Dong-il.

(10) The problems of 'idealism and activism : Idealism means that the spiritual or psychological point is emphasized in prescribing Korean literary history; Activism means all the behaviors human beings do to transform their own social environment in literary history. Even though these problems have been recognized only by activism as utilitarian usefulness, they came to be recognized by the two (activism and idealism) separately with the birth of idealism after the 3.1 movement. Kim Te-jun and Lim Hwa described the literary history based on utilitarian usefulness, which was based on materialism. Back Chul and Park Young-hee described it on the basis of activism which was concentrated on proletarian literature. However, most literary histories in the first step were described on

the ideal which advocated pure literature and tried to keep away from activism. After the 2nd and 3rd steps, Kim Yun-shik, Kim Hyun and Cho Dong-il introduced a social method. The activism was reflected finally in the 4th step of literary history.

(11) Problems of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 Lim Hwa, Cho Yun-hyun, Cho Dong-il and etc. described the literary history with objective recognition. But, Lee Je-sun and Kim Yong-jik described it with a method of subjective recognition. There were some problems in the objective recognition that had no unfairness of judgement and were not able to be explained in several ways. And there were some limitations not only in the description of literary history written on the basis of subjective recognition; but also in the identity of literary historians and the conception of a problem of not being developed in a historical view.

(12) Problems of 'monism and dualism' : The appearance of dualistic recognition started from the times of the Japanese occupancy over Korea. At that time they brought pressure on the monistic recognition and tried to efface freedom of thought. The historical literary facts based on dualistic recognition are as follows: the literary theory of the art-for-art principle, the humanism theory, the modernism theory, the pure literary theory, etc. Cho Yun-hyun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who described the literary history by this method. The writers who described the literary history by the method of monistic recognition were Kim Te-jun, Lim Hwa, Lee Myung-sun, Kim Yun-shik, Kim Hyun, Lee Je-sun, Cho Dong-il, Kim Je-yong and three other literary historians.

(13) Problems in 'cause and effect, and teleology' : In the case of the 'cause and effect' perception, Kim Hyun presented it as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literary accumulation, and Cho Dong-il presented it as era, class, division, etc. In the case of a 'teleology' perception, it was developed as an 'effectiveness' theory and it was shown as behaviorism, class consciousness, leadership, historic view of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n the society, and the ages & history.

(14) The method by the division of eras : the standard of dividing eras should be able to enlarge a certain connected ring for finding continuity in discontinuity. And the outline of concrete literary history should be set up systematically in the method of naming the era. To solve those problems, the writer suggested that we should present the peculiarity of the literary history through the following: the collective memory which was the background of Korean literary social change, the view that follows propositions and explains that a characteristic in the literary history should be able to be shown in them ;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alteration, social continuity and change; the long-term structure of literary history and its cycle; the in-depth historical view ; the essential conception and the recognition for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class division and the lower class division.

(15) The method of the conception of history : ① In describing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the positive description was reflected to the literary history by Lim Hwa, Back Chul and Cho Yun-hyun who belonged to the 1st step of literary history;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mentalities' was introduced by Cho Yun-che and Lee Je-sun; and the sociological description was adopted by Kim Hyun, Kim Yun-shik, Lee Je-sun, Kim Yong-jik, Cho Dong-il, Kim Je-yong and the other writers. ② It is said as follows: the positive

description was used to compare and explain Korean literature by colonial viewpoints; the method of history of mentalities tried to get over the positive description and adopted the new racialism; and the sociological method might be the servant of the ideology. ③ The writer manifested that the method was too objective, the method of history of mentalities was too subjective and the sociological method was too general.

(16)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descriptive aspect on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problems: The problems are as follows : ① The lack of systematic arguments on descriptive methodology of literary history. ② The descriptive aspects made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lose its methodological liveliness and made the historical aspects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poor. ③ The discussion about pro-Japanese literature and the position of resistant literature. ④ The lack of recognition for the background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and literati. ⑤ Not being able to reflect enoug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into Korean modernity. ⑥ Being inclined toward logic exclusively in the description of Korean literary history. ⑦ The surface and short-term aspects leaning to the narrative and instructive description. ⑧ The description of the literary history centered on the elite and the literary circles in the metropolis. ⑨ These days the description of modern literary history has been more or less unskillful. So as to clear up these difficult problems, we need 'the literary history centered on hypothesis' which helps overcome the error and bias concentrated on 'fact and historical evidence'.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describe 'the history of local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popular literature' free from the description of the

literary history centered on the elite and the literary circles in the metropolis.

As the result the present writer thinks that the methods on the description of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should be now discussed in more activated ways. This means that we should try to find a new methodology to solve the problems we have had with 'national' problems. To do this, we have to completely change our mind to brake and alter the old methodology. And we surely need to develop several kinds of new methodology.

